

향토사료 제32집



벌레이야기 - 황성 섬강변을 중심으로 -

한상균



향토사료 제32집 - 발간사



황성문화원장
박순엽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된 향토사료집 제 31집이 나오기까지 향토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발간되는 제32집은 자연과 관련된 것들로 황성 섬강변에서 발견된 거미류 47종, 파리류 44종, 딱정벌레류 74종, 나비류 97종, 노린재 46종, 총 308개의 벌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야생화와 곤충에 관심이 많은 저자 한상균 선생은 재직 시에는 이 분야의 무궁무진한 탐구 소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황성군 우천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에는 틈틈이 황성 섬강변 풀밭을 중심으로 발견된 곤충을 꾸준히 카메라 앵글에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포착된 곤충의 이름을 알아내고 어려운 분류작업과 숨겨진 생태를 관찰하는 작업을 계속해 황성문화원 향토지인 '황성문화'에 열 번에 걸쳐 연재하여 왔는데 이 모두를 모아 향토사료집 제32집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향토 주변 들판이나 숲속에는 이름 모르는 작은 들꽃, 곤충 등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으나 무관심 속에 그냥 지나치고 생태는 물론 그 이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혐오스러운 벌레, 해충으로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하여 하찮은 벌레들도 우리와 함께할 귀중한 생명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머리는 의학용으로, 거미는 친환경농업, 마취제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파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분해자로서 그 역할이 크며 무궁무진한 그들만의 신비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자가 이 분야에 전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섬강변 또는 주변 산책로에서 보통사람이면 그냥 지나칠 하찮은 벌레들도 예사로 보지 않고 그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열정, 집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작은 시작이지만 황성의 젖줄인 섬강변의 생태계 연구에 초석이 되며 그 노력의 결실이 세상에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8월

향토사료 제32집 - 격려사



횡성군수
한 규 호

횡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32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섬강 변에 서식하는 벌레와 곤충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번 향토사료집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매우 큽니다.

횡성의 젖줄인 섬강 주변 생태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주신 한상균 선생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횡성의 역사와 문화, 향토사 발굴에 앞장서며 횡성의 가치와 자존감을 드높여주신 횡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횡성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입니다.

특히 섬강과 그 주변 일대는 다양한 종류의 벌레와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섬강을 중심으로 거미와 나비, 큰나방, 파리, 노린재, 딱정벌레 등 우리에게 친근하게 벌레와 곤충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 이번 사료는 섬강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소중한 값진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료집에 모든 열정을 쏟아주신 한상균 선생과 횡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향토사료가 군민들의 큰 관심과 애정 속에서 널리 애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횡성문화원과 향토사학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향토사료 제32집 - 축사



황성군의회 의장
변기섭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애항심을 고취시킬 『향토사료 제32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순업 황성문화원 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산과 강, 숲과 나무 등 눈에 쉽게 들어오는 자연환경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 번 황성 섬강변을 중심으로 한 벌레, 곤충들의 생태에 관한 사료집을 편찬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집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조들과 황성 여러 마을의 향토사, 우리 주변환경에 대한 자연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후세들에게 남겨 줄 뜻 깊은 사료집이 지속적으로 집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번 사료집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향토사료 제32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벌레이야기 글순서



I. 들어가는 말 008



II. 벌레이야기 009

제1장 줄타기 명수 거미류 009



제2장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039



제3장 큰 나방 이야기 073

제4장 파리의 재발견 107



제5장 지독한 방귀벌레 노린재 무리 137

제6장 갑옷을 입은 딱정벌레 무리 173



III. 나가는 말 221

벌레 이야기

- 황성 섬강변을 중심으로 -

벌레 이야기

- 횡성 섬강변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평소에 사진촬영을 좋아해서 벌레 사진을 접사하다보니 벌레 사진이 쌓이게 되었다. 만나는 벌레마다 이름도 찾아보고 분류도 해보니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았다. 벌레의 종류가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들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침 산책길인 운암정주변과 승지봉등산로, 섬강둘레길, 섬강둔치 주변의 벌레를 촬영해 왔다.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횡성문화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횡성문화’에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되어 무척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벌레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란 말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버리지(벌레를 낚취 이르는 말)만도 못한 놈”이라고 꾸짖던 말 씀이 컸기에 쟁쟁하다. 곤충이라는 말이 있지만 내가 촬영한 사진이 거미도 있어 정답고 귀에 익은 벌레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게되었다.

끝으로 책을 내도록 도와주신 박순엽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II. 벌레이야기

제1장 줄타기 명수 거미류

II. 벌레이야기

제1장 줄타기 명수 거미류

거미는 거미목에 속하는데 전 세계에 35,000~40,000여종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45과 256속 679종이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횡성에서는 13과 34속 55종을 촬영하였다.

〈길고 흘쭉한 갈거미과〉

체형이 긴 편이며 물가 습지, 풀숲에 수평 둥근 그물을 치고 생활한다.

1. 꼬마백금거미 - *Leucauge celebesiana* Walckenaer, 1842



〈먹이를 기다리는 꼬마백금거미〉

2010년 7월 8일 북천리 냇가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성충을 촬영했다. 몸길이는 암컷 9~11mm, 수컷 6~8mm이다. 6~8월에 성충을 볼 수 있다.

2. 금빛백금거미 - *Leucauge subgemmea* Bösenberg, 1906

공근면 상동리에서 만났다. 몸길이 7~9mm 정도이다. 계곡 근처와 같이 습한 지역에서 둥근 그물을 비스듬히 치고 그물 위나 나뭇잎 아래 숨어 지낸다. 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날벌레를 사냥한다. 가장 특이한 것은 소리나 시각적인 외부 자극을 받으면 금빛이던 배가 빠른 속도로 초콜릿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금빛백금거미〉

3. 무당거미-*Nephila clavata* L. Koch, 1878



〈먹이를 기다리는 무당거미〉



〈사냥하는 무당거미〉



〈네발나비를 사냥하는 무당거미〉



〈무당거미의 짹짹 모습〉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미다. 인가 부근 나뭇가지 사이에 둥근 모양의 노란 입체 그물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었다. 2004년 우천초등학교에서 주로 촬영했다. 거미줄을 건드리면 손살같이 달려와 곤충을 물고 독을 주입시켜 기절시킨다. 곤충이 기절하면 거미줄에서 곤충을 떼어 내 다리에 달고 저장장소로 옮겨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잡은 먹이의 즙을 빨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거미줄을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다. 하지만 몹시 신중해서 먹이가 걸렸을 때와 같은 진동수로 흔들어야 달려온다. 속아서 돌아가는 모습이 재미있어 몇 번 반복하니깐 나중에 속지 않았다. 암컷의 삼분의 일 정도로 작은 수컷은 암컷의 기분을 잘 살피 접근해야 한다. 짹짹기가 끝나면 수컷은 암컷에게 잡아먹힌다. 알주머니를 만든 후 먹지도 않고 알주머니를 지키다 죽어가는 모습에서 강한 모정을 느낄 수 있다. 알주머니를 지키는 어미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다시 돌아와 알위에 자리를 잡는다.





4. 장수갈거미-*Tetragnatha praedonia* L. Koch 1878

2005년 5월 5, 20일 북천리 섬강가에서 풀잎 뒤에 숨어 먹이가 걸리길 기다리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짝짓기 모습을 촬영했다. 몸길이 ♀ 13~15, ♂ 10~12mm. 5~10월에 성충을 볼 수 있는데 .물가 풀 사이 수평 둥근 그물을 치고 산다. 서로 발목을 잡은 두 사람이 구르기 체조를 하는 모습 같은 짝짓기 모습이 다른 거미와 크게 다르다.



〈숨어 기다리다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



〈장수갈거미의 짝짓기〉

5. 비늘갈거미-*Tetragnatha squamata* Karsch, 1879



〈보호색이어서 보기 힘든 비늘갈거미〉

2008년 5월 17일 황성읍 북천리 섬강변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우 7~9mm, ♂ 5~7mm, 5~7월에 성체를 볼 수 있다. 작고 보호색이어서 찾기가 힘들었다. 한 번 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귀한 거미다. 노란빛을 띤 녹색 몸빛깔이 자극을 받으면 변한다고 한다.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비늘갈거미 수컷〉

2010년 7월 8일 황성읍 북천리 섬강변에서 촬영했다.

〈게를 닮은 게거미과〉

그물을 치지 않고 풀숲의 나뭇잎, 꽃송이에 잠복하여 먹이사냥을 한다. 모양과 걸음걸이가 게와 비슷해서 생긴 이름이다.

1. 곰보꽃게거미-*Mecaphe kumadai* Ono, 1985



〈꽃속에서 꿀벌을 사냥하는 곰보 꽃게거미〉

2005년 7월 8일 내지리 섬강둘레길에서 천인국꽃에서 먹이 사냥 모습을 촬영했다. 거미줄을 치지 않고 먹이를 찾아 다니는 배회성(徘徊性)거미로 성체는 5~9월에 볼 수 있다. 크기는 암컷 3.5~4.5 mm, 수컷 2.5~3.5mm 정도이다.

2. 꽃게거미-*Misumenops tricuspидatus* Fabricius, 1775



〈천인국에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꽃게거미〉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2010년 7월 28일 천인국 꽃에 숨어있는 모습 촬영. 거미줄을 치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배회성거미로 성충은 4~10월에 볼 수 있다. 크기는 암컷 6~8mm, 수컷 3~5mm 정도이다. 꽃이 많이 피는 곳에 살아 꽃게거미라 불리며, 꽃 속에 숨어 있다가 꽃에 오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3. 줄연두꽃게거미-*Oxytate striatipes* L. Koch, 1878



〈나뭇잎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줄연두꽃게거미〉

2006년 6월 17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운종계도 나뭇잎 위에, 뒤에 숨어있는 암컷과 수컷의 모습을 촬영했다. 몸길이 ♀ 10-13, ♂ 8-10mm. 5-10월. 4~5월에 성충이 보이는데 주로 어린나무 잎에



머물며 파리나 개미 등을 잡아먹는다.

4. 불짜게거미-*Synema globosum* Fabricius, 1775



〈먹이 활동하는 불짜게거미〉

2007년 6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거미줄을 치지 않고 먹이를 찾아 다니는 배회성 거미로 6~9월에 성체가 보인다. 크기는 암컷 5~8mm, 수컷 4~5mm 정도이다. 불(不)자 모양의 짙은 갈색 무늬가 있어 불짜게거미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번밖에 못 보았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거미다. 모양이 특이하여 쉽게 이름을 찾았다.

5. 대륙게거미-*Xysticus ephippiatus* Simon, 1880



〈덩치가 큰 하늘소를 사냥하는 대륙게거미〉

2007년 6월 5일 횡성읍 승지봉 등산로에서 촬영했다. 자기 몸보다 서너 배 큰 하늘소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단한 사냥기술이었다. 몸길이 ♂ 6-12, ♀ 5.5-7.5mm. 6-8월에 전국의 산과 초원 등에 흔하게 성체를 볼 수 있는 편이며, 넓은 잎이나 나무 등걸 위에 숨어서 먹이를 기다린다.

〈눈이 유난히 큰 강총거미과〉

배갑(머리와 가슴 부분)이 사각형 내지 사다리꼴이며, 앞 가운데 두 눈이 거대하여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이다. 몸이 납작하고 다리가 튼튼해 잘 뛰어서 생긴 이름이다. 배회성 거미로 산야의 관목이나 풀 숲, 전답, 제방 담벽 등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흔하며 각종 해충 구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종류의 거미들은 강총뛰어 매우 빠르게 움직여 촬영하기가 힘들었다.

1. 털보강총거미 - *Carrhotus xanthogramma* Latreille, 1819



〈앞사귀 위를 기어다니는 털보강총거미〉

2008년 5월 20일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7-9, ♀ 5-7mm 성체시기 5-8월. 거미줄을 치지 않고 바위나 식물의 앞사귀를 기어다니며 작은 곤충을 사냥하는 거미다.

2. 흰눈썹강총거미 - *Evarcha albaria* L. Koch 1878



〈흰눈썹강총거미〉



2008년 5월 22일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7-8 ♂ 5-7mm, 전국 산야, 초원, 사람이 사는 집 부근, 담벼락 등에 많으며, 곤충의 번데기나 유충 따위를 잡아먹고 산다. 5~8월에 성체가 되는데, 12월경에 나뭇잎을 구부려 알자리를 만든 뒤 30여 개의 알을 낳는다.

3. 갈색눈강총거미-*Phintella abnormis* Boesenberg, 1906



〈자동차헤드라이트를 닮은 눈이 인상적인 갈색눈강총거미〉

2008년 5월 20일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는 암컷 6~7mm, 수컷 5~7mm이다. 산지, 초원 등의 나뭇잎 위를 돌아다니며 생활한다. 성충을 5~8월에 볼 수 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눈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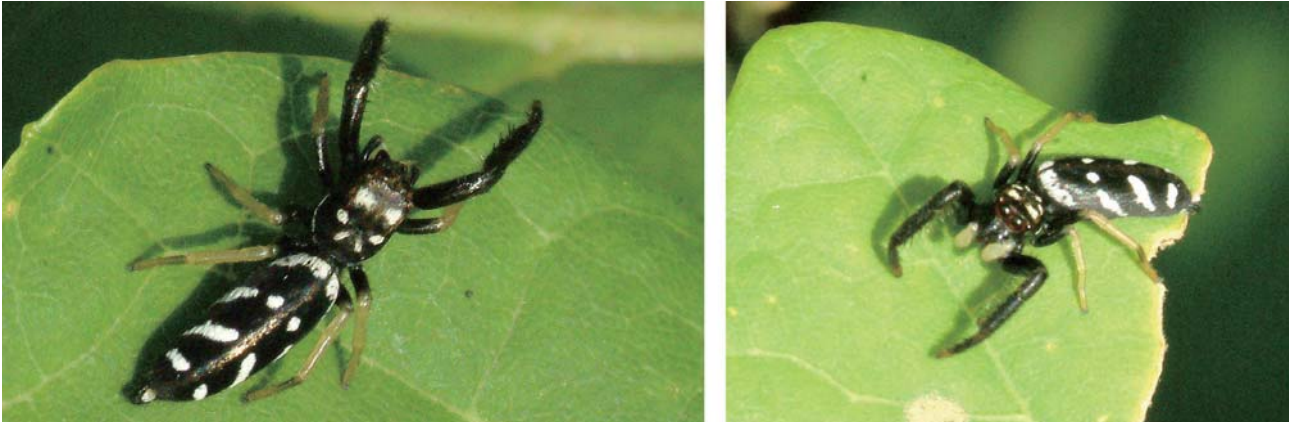
4. 왕강총거미-*Marpissa roemeri* Peckham 1894



〈왕강총거미〉

2008년 6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10-12 ♂ 8-10mm, 큰 나무 등걸, 사원이나 민가의 벽면이나 기둥 위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겨울에는 나무껍질 속에 주머니 모양의 집을 만들고 지낸다. 성충은 5월~11월에 보인다.

5. 어리수검은깡총거미 - *Mendoza pulchra* Proszynski, 1981



〈어리수검은깡총거미〉

2008년 5월 2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힘들게 촬영했다. 몸길이 ♀ 9-11, ♂ 7~9mm, 산과 들, 초원이나 벼과 식물의 잎 위 등에 많고, 성충은 출현기는 6~10월이다. 몸의 무늬가 선명하여 작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다.

6. 각시개미깡총거미 - *Myrmarachne innermichelis* Bösenberg, 1906



〈개미를 닮은 각시개미깡총거미〉

2008년 6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5-6, ♂ 4-4.5mm, 성충은 5-8월에 보인다. 갈잎 위에서 암수가 빠르게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때로는 개미집에 침입하여 개미 알이나 유충을 먹는다고 한다. 암컷은 개미와 비슷하다. 수컷의 가위 같이 생긴 입턱이 인상적이었다.

7. 눈깡총거미 - *Phintella arenicolor* Bösenberg, 1906

2008년 6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거미줄을 치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배회성 거미로 성충을 5~9월에 볼 수 있다. 크기는 암컷 4.5~6mm, 수컷 3.5~5mm 정도이다. 낮은 산, 논 주변, 풀밭 등에서 발견된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눈이 인상적이다.





〈눈이 인상적인 눈깡총거미〉

8. 큰줄무늬깡총거미-*Phintella arenicolor* Grube, 1861



〈큰줄무늬깡총거미〉

2008년 6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우 8-9mm, 5-8월에 성체가 보인다. 잎사귀 뒤에 숨었다가 먹이감이 지나가면 확 나타나 순식간에 포획을 한다.

9. 두줄깡총거미-*Plexippus paykulli* Audouin, 1826



〈먹이활동하는 두줄깡총거미〉

2007년 8월 13일 섬강둘레길에서 운 좋게도 등애를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몸길이 우 10-12, ♂ 8-11mm, 5-8월 성충이 보인다. 산과 들의 초원에서 나무나 풀 잎사귀 위를 돌아다니며 생활한다.

10. 검은날개무늬깡충거미 - *Telamonia vlijmi* Proszynski, 1984



〈검은날개무늬깡충거미〉

2008년 6월 17, 25일 섬강둘레길에서 운 좋게도 암 수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무늬가 달라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4~10월에 성충이 보인다. 크기는 암컷 9~10.5mm, 수컷 8~10mm 이다. 농경지나 정원 등에 살며, 꽃을 찾아오는 파리나 곤충을 잡아먹는다. 시력이 좋고 뿔뿔이를 잘한다.

〈작고 양증 맞은 꼬마거미과〉

아주 작은 거미로 접사를 하지 않으면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관목의 잎이나 갈대 잎 뒷면에 불규칙한 입체 그물을 치고 있었다. 먹이를 거미줄 띠로 묶어서 잡는다고 한다.

1. 주황왕눈이꼬마거미 - *Achaearana asiatica* Bosenberg, 1906



〈작고 귀여운 주황왕눈이꼬마거미〉



2008년 5월 17일, 6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2-3.3mm, 성체시기 5-6월. 나뭇잎 위에 빨간 점처럼 아주 작은 거미로 한 때 일본에서는 열대지방의 독거미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2.검정미진거미-*Yaginumena castrata* Bösenberg and, 1906



〈검정미진거미〉

2008년 5월 1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3-7mm 성충은 7-9월에 보인다.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풀밭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거미줄을 늘어뜨리고 지나가는 개미를 사냥한다고 한다.

〈알주머니를 뽕무늬에 달고 다니는 늑대거미과〉

암거미는 공 모양의 알주머니를 거미줄돌기에 달고 다니고, 부화한 새끼는 등에 업고 다니는 종이 많다고 한다. 초원·모래밭 등 건조한 곳에서 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논밭에 사는 것도 많아 해충 구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1.한국늑대거미-*Arctosa coreana* Paik, 1994



〈한국늑대거미〉

몸길이 ♀ 6.5-7.5 ♂ 5.5-6mm, 성체시기 4-8월. 큰 바위 밑에서 촬영하였다.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촬영하기 힘들었다. 한국 고유종이다. 2005년 6월 13,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2. 별늑대거미-*Pardosa astrigera* L. Koch, 1878



〈알집을 달고다니는 별늑대거미〉

2008년 5월 18, 2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7-10 ♂ 6-8mm, 4~10월 알주머니를 실젯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있다. 이른 봄부터 시가지 공원, 교외, 잡목림, 풀밭, 과수원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3. 가시늑대거미-*Pardosa laura* Karsch, 1879



〈알집을 달고다니는 가시늑대거미〉

몸길이 ♀ 6-8 ♂ 5-7mm, 4-8월에 논과 밭 등의 평지에서 많이 볼 수있다. 벼의 해충구제에 도움을 준다. 2008년 6월 30일, 8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알주머니를 입에 물고 달고 다니는 닳거미과〉

성체는 그물을 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 산란기에 암컷은 공 모양의 알주머니를 큰 턱으로 물고 다니는데, 부화 후 관목 가지에 불규칙한 육아 그물을 치고 새끼를 지키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다.

1. 황닷거미-*Dolomedes sultureus* L. Koch, 1877

몸길이 ♀ 20-28 ♂ 14-20mm, 성체시기 6-9월. 습지나 산야의 수풀이나 나무 위를 배회하며 빠르고 힘센 다리로 사냥하는 종이다. 황닷거미는 알집을 만든 후 입에 물고 다니는데 알주머니를 물고는 있지만 가랑이 사이로 언제든지 감싸 안은 모습을 하고 있다. 부화할 때쯤이 되면 풀이파리에 거미줄을 엮어 알집을 고정시킨다. 일생에 단 한 번 치는 거미줄을 녀석들은 사냥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아기의 육아용 놀이터로 사용한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식사도 못하며 알주머니와 약충을 돌보다가 자기 몸까지 새끼들에게 먹이고 생을 마감한다. 2007년 6월 22일, 8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알주머니를 물고 다니는 황닷거미〉

2. 닳표늪서성거미-*Pisaura ancora* Paik, 1969

2006년 8월 9일, 2008년 8월 3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10-12 ♂ 9-10mm, 4-9월에 성충을 볼 수 있다. 이른 봄에 짝짓기와 산란을 하여 커다란 알집을 물고 다닌다. 무덤가와 같이 해가 잘 드는 곳에 주로 서식하며 아성체나 준성체로 양지바른 곳 낙옆층에서 겨울을 난다. 알집을 입에 물고 마른 풀 위를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모성애가 진한 감동을 준다.



〈부화된 새끼를 지키는 어미 닳표늪서성거미〉

3. 아기늪서성거미-*Pisaura lama* Bösenberg & Strand, 1906



〈부화된 새끼를 지키는 어미 아기늪서성거미〉

2007년 8월 20일, 2008년 8월 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알주머니와 떨어진 거리에서 새끼를 돌보는 암컷을 촬영했다. 몸길이 ♀ 10-13 ♂ 7-11mm, 4~9월에 성충이 보인다. 양지바른 곳의 낙엽



층에서 아성체나 준성체로 겨울을 나며 비교적 이른 봄에 짝짓기와 산란한다. 서성거미는 그물을 잘 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성체 이전까지는 벼과식물 잎 사이에 몸을 겨우 숨길 수 있는 독특한 그물을 치고 생활한다. 부화한 새끼를 주위에서 지키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꼬마거미와 닮은 애접시거미과〉

꼬마거미과의 거미들과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서 혼동되었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있었다.

1. 앵도애접시거미-*Nematogmus sanguinolentus* Walckenaer, 1841



〈앵도를 닮은 앵도애접시거미〉

2008년 5월 17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1.7-2.2 ♂ 1.5-2.0mm, 성충은 5-9, 8-9월에 보인다. 초원, 습지, 풀숲 아래 땅위 1~2cm 되는 곳에 그물을 촘촘하게 치고 산다.

2. 쌍코애접시거미-*Paikiniana vulgaris* Oi, 1960



〈쌍코애접시거미〉

2005년 5월 1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3.0-3.5 ♂ 2.7-3.2mm, 성충을 연중 산과 들, 습지, 논 등의 지표면에 시트형 그물을 치거나 배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논거미로 벼해충구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덩치가 큰 왕거미과〉

국내 서식 거미 중 분포도가 가장 높은 거미로 둥근 그물을 치며 매우 우세한 거미다.

1. 노랑무늬왕거미-*Araneus ejusmodi* Bosenberg et Strand 1906



〈무늬가 인상적인 노랑무늬왕거미〉

2008년 7월 1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는 암컷 6~8mm, 수컷 5~6mm이다. 산지 풀숲이나 관목 나뭇가지 사이에 둥근 그물을 치고 산다. 성충이 보이는 시기는 6~9월이다.

2. 산왕거미-*Araneus ventricosus* L. Koch, 1878



〈현상불은 사나이를 연상케 하는 산왕거미의 배면〉

2005년 8월 4일 황성읍 북천리 섬강가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우 20-30 ♂ 15~20mm, 성충이 보이는 시기는 6~10월이다. 집 근처, 야외, 산지 등에 널리 서식하며. 저녁에 크고 둥근 그물을 치고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날벌레를 사냥하며 생활한다. 아침에 걸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 그대로 두는 것도



있다고 한다. 배 부분을 접사해보니 꼭 현상 붙은 사나이 얼굴처럼 무서워 보였다.

3. 호랑거미-*Argiope amoena* L, Koch, 1878



〈줄가운데서 먹이를 기다리는 호랑거미〉

2005년 7월 13일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거미줄을 쳐 놓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정주성 거미로 6~9월에 들이나 냇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크기는 암컷 20~25mm, 수컷 5~8mm 정도이다. 대표적인 남방계 거미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사이나 풀숲에 수직으로 대형 그물을 치며 가운데에 불완전한 X 자꼴의 흰색 띠를 만들고, 그 교차점에 거꾸로 매달려 지낸다. 암컷은 거미그물 가운데에서 머무르다가 먹잇감이 걸리면 재빨리 이동해 싸개띠로 들들 마는 모습이 어찌나 빠른지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였다. 먹이는 파리·메뚜기·나비 등 작은 곤충에서 사마귀·매미·갑충 따위의 큰 곤충까지 잡아먹는다.

4. 꼬마호랑거미-*Argiope minuta* Karsch, 1879



〈줄에 X자 모양이 인상적인 꼬마호랑거미〉

2008년 8월 1일 승지봉등산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8~12 ♂ 4~5mm. 7~10월에 성체를 볼 수 있다. 산과 들의 나무 밑이나 나무사이에 뚜렷한 X자 모양의 흰 띠줄을 지닌 둥근 그물을 치고 있다. 자극을 받으면 몹시 몸을 앞 뒤로 흔든다.

5.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 Scopoli, 1772



〈먹이를 기다리는 긴호랑거미〉

2010년 7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긴호랑거미와 방아개비를 사냥하는 멋진 모습을 촬영했다. 촬영 중 그물을 자극했더니 갑자기 몸을 흔들어 그물을 진동시키는 바람에 몹시 놀랐다. 몸길이 ♀ 20-25 ♂ 8-12mm로 8~11월에 성체가 보인다. 산야의 풀숲이나 논·밭에 지름 20~50cm의 둥근그물을 수직으로 치며, 가운데에 흰색 띠줄을 세로로 치고 가운데에 매달려 지낸다.





〈실을 뽑아 먹이를 감는 긴호랑거미〉

6.가시거미-*Gasteracantha kuhlii* C.L.Koch, 1838



〈사람이 다니는 산길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가시거미〉

2009년 9월 3일 황성읍 승지봉 등산로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친 모습을 촬영했다. 몸 길이 우 6-8 ♂ 3-4mm. 배는 단단한 키틴판(딱딱한 표피나 껍데기의 골격)으로 양옆과 뒤쪽에 날카로운 가시돌기가 나 있다. 수컷은 몸이 매우 작고 옆쪽 가시 돌기가 없다. 성체시기 7~10월. 산지의



수림사이를 걸을 때 얼굴에 거미줄이 걸리는데 바로 가시거미의 거미줄이었다. 자극에 매우 민감해 가까이 가면 즉시 낙하하여 도망치기 때문에 가시거미를 보기란 쉽지 않았다. 옛날 간첩을 추적할 때 이 거미줄의 상태를 보고 어떤 지점의 간첩 통과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

7. 각시어리왕거미-*Neoscona adianta* Walckenaer, 1802



〈각시어리왕거미〉

2005년 5월 31일 횡성을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6-9 ♂ 5-7mm 성충을 6-7, 9~10월. 논, 밭, 수로나 하천의 길가 등에서 여름철에 흔하게 볼 수 있다. 낮에는 잎을 말아 그 속에 숨어 지내며 해가 지기 직전부터 분주히 움직여 그물을 치는데, 그물 치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생각보다 짧다. 그물을 칠 때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방향을 바꾼다. 이는 다른 왕거미류도 마찬가지다. 초원, 습지, 논 등에 수직 또는 수평그물을 치고 있었다. 벼 해충의 천적으로 중요시된다고 한다.

8. 적갈어리왕거미-*Neoscona punctigera* Doleschall, 1857



〈적갈어리왕거미 수컷〉

〈적갈어리왕거미 암컷〉



2007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둔치 물가의 풀잎에서 암컷과 수컷을 촬영했다. 암수가 너무 달라 이름 알기가 힘들었다. 몸길이 ♀ 10~13, ♂ 7~9mm. 성충은 8~10월에 보인다. 산야의 활엽수나 풀숲 사이에 수직 둥근 그물을 치고 주간에는 나뭇잎이나 풀잎 뒷면에 은신하고 있다.

9. 지이어리왕거미-*Neoscona scylla* Karsch 1879



〈지이어리왕거미〉

2007년 7월 3일 산야의 수목사이에 대형 수직둥근그물을 치고 그 가운데 정지해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지이어리왕거미는 지리산에서 발견했으며 왕거미를 닮았다(어리)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몸길이 ♀ 12-15, ♂ 8-10mm. 성충은 7-9월에 보인다. 그물을 매일 새로 치고 헌것은 먹는다고 한다. 왕거미는 기본적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에 먹이활동을 하며 낮에는 대형 둥근 그물 한쪽 끝의 은신처에 숨어 지낸다. 수컷은 성체가 되면 그물을 치지 않고 암컷을 찾아다니며, 낮에는 나뭇가지에 붙어 휴식을 취한다.

10. 연두어리왕거미-*Neoscosa melloteei* Bösenberg et Strand, 1906



〈해질 무렵 거미줄을 다시 치는 연두어리왕거미〉

2007년 8월 15일 해질 무렵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촬영했다. 몸길이 ♀ 8-10, ♂ 7-8mm. 성충은 6~8월에 보인다. 야행성 거미로 낮에는 잎사귀 뒤에 숨어 있다가 저녁때 나와 산지 나뭇가지나 풀숲 사이에 수직 둥근그물을 친다고 한다. 검은테연두어리왕거미와 구분이 어렵다.

11.기생왕거미-*Nuctenea cornuta* Clerck, 1757



〈기생왕거미〉

몸길이 ♀ 10-12, ♂ 7-9mm. 성충은 6~10월에 보인다. 산지 관목사이나 풀밭에 경사진 둥근그물을 치며 풀잎을 접어 만든 집에 숨어 지낸다고 한다. 섬강변 풀밭에서는 주로 개밀(벼과 식물)의 잎을 접어 만든 집이 다양해서 촬영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자극을 주어도 나오지 않던 거미가 입김을 불어넣으니 빠르게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다. 이름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거미다.





〈기생왕거미의 다양한 집〉

12. 그늘왕거미-*Yaginumia sia* Strand, 1906

2005년 8월 27일 섬강둘레길에서 촬영을했다. 몸길이 ♀ 12-15, ♂ 8-10mm. 성충은 7-9월에 보인다. 집 근처, 야외, 산지 등에 널리 서식. 저녁에 크고 둥근 그물을 치고 아침에 걷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 그대로 두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늘왕거미〉

〈개미처럼 보이는 코리나거미과〉

지표성 거미로 산야의 낙엽층이나 부식토층 등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1. 황띠나나니거미-*Castianeira flavimaculata* Hu, Song et Zhang 1985

2008년 6월 2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개미와 같은 거미를 촬영했다. 몸길이 ♀ 7.5-9.5mm ♂ 6-7mm, 성체시기 6~9월 풀숲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크고 불규칙한 계단식 그물을 치고 가운데에 마련한 터널모양 집 속에 숨어 지내다가 먹이가 그물에 걸리면 재빨리 튀어나와 잡아먹는다고 한다.





〈개미처럼 보이는 황띠나나니 거미〉

〈집주위가 복잡한 풀거미과〉

1. 들풀거미-*Agelena limbata* Thorell, 1897



〈집주위가 깔끔하지 않은 들풀거미〉

2008년 6월 13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 15~19mm, ♀ 12~14mm, 성체시기 7~9월 산야의 풀숲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불규칙한 그물을 치고 중앙부 티널 속에 숨어 있다가 먹이가 걸리면 쫓아나와 포획한다. 알주머니는 흰색 다면체인데 부화된 애거미가 그 속에서 월동하다가 늦봄에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거미집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다.

〈작고 귀여운 잎거미과〉

주로 나뭇잎이나 풀잎 위에 작은 천막모양 그물을 치고 산다. 한국에는 잎거미속, 마른잎거미속의 2속 3종이 분포한다.

1. 아기잎거미-*Dictyna foliicola* Bösenberg & Strand, 1906

2008년 6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으나 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몸길이 2~3mm



이다. 낙엽 위나 건물 구석, 도로 양쪽 가드레일에 불규칙한 그물을 치고 산다. 주로 밤중에 먹이를 사냥한다. 4~11월에 5~7개의 알주머니를 만든다. 성충은 6~9월에 보인다.



〈만지면 터질 것 같은 아기잎거미〉

〈집 모양이 재미있는 염낭거미과〉

한국에는 6속 15종이 분포한다.

1. 에어리염낭거미-*Chiracanthium japonicum* Bösenberg & Strand, 1906



〈에어리염낭거미와 거미집〉

2008년 6월 30일 섬강둘레길에서 촬영했다. 나뭇잎이나 풀잎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행동이 민첩하다. 잎을 말아 염낭모양 알자리를 만들거나 돌 밑에 자루모양 집을 짓고 그 속에 알을 낳는다. 한국에는 6속 15종이 분포한다.

〈몸이 한통인 통거미류〉

통거미목은 3과 5속 6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통거미라는 이름은 전체적 형태에서 생긴 이름이며 장님거미라는 이름은 거미줄이 나오는 복부 끝의 방적돌기(실젯)가 없어 붙여진 이름이다. 또 두 개의 앞다리가 장님이 막대기로 땅을 더듬는 모습과 비슷한 모양으로 땅을 더듬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통거미는 머리, 가슴, 배가 한 통으로 되어있고 8개의 다리가 실처럼 가늘고 길어 유령거미와 혼동한다. 독선 대신 악취를 내는 선이 있다. 야행성이며 잡식성으로 작은 동물, 동물의 사체, 새똥, 식물, 버섯 등을 먹는다. 짹짹기가 거미와 다르게 음경으로 직접 한다.

1. 통거미-*Leiobunum* sp




〈몸이 한 덩어리로 된 통거미〉

2005년 7월 9일, 2007년 8월 9일 횡성읍 승지봉 등산로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4-4.9mm 다리길이 60-70mm 거미강에 속하지만 거미의 몸이 다르다.

〈거미사진 48종을 정리하며〉

거미를 촬영하면서 첫째, 거미는 모성애가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거미는 실로 짠 주머니 모양의 알주머니 속에 알을 낳고 알집을 정성들여 보호하고 있었으며 어린 새끼들을 목숨 바쳐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거미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 특히 알집위에서 굶어 죽어가는 무당거미의 암컷, 알집을 입에 물고 다니다 부화하면 옆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숙연해지기도 한다. 둘째, 거미는 각자 처지에 맞춰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거미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호랑이처럼 성질이 급해 거미줄이 흔들리기 무섭게 달려와 거미줄로 사냥감을 감는 호랑거미, 거미줄이 흔들려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무당거미는 무척 대조적이었다. 수컷이 준 먹이를 암컷이 먹는 동안 짹짹기를 끝내야 하는 숫 거미들의 기구한 운명도 상당히 흥미롭다. 요즘 들어 거미는 국가의 큰 자산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로 무농약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거미줄은 고강도 섬유, 렌즈의 눈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독과 소화 효소는 국부마취제와 해독제, 소화제 등의 의약품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거미 생태 관찰 체험을 통해서 거미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거미를 촬영하여 횡성군 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소개 했던 일은 큰 보람이었다.





제2장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제2장 나비아. 나비아.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아. 나비아.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추며 오너라’ 어릴 적 꽃밭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누구나 많이 불러보던 노래의 한 구절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비만 보면 어딘지 모르게 친근감이 가고 반가운 마음이 생겨, 카메라를 들이대게 된다. 나비 사진을 촬영하면서 나비 이름을 알고, 생태를 알아가는 과정은 나에게 큰 기쁨과 재미를 주었다. 곤충 가운데 하나로 오랫동안 연구와 수집대상으로 인기가 있었던 나비목은 약 10만 종(種)이 넘어 곤충 가운데 2번째로 큰 목이다. "인편(鱗片 : 비늘조각)이 있는 날개"라는 뜻의 ‘Lepidoptera’ 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학명으로 1735년 린네에 의해 처음 쓰였으며, 나비의 날개와 몸을 덮고 있는 작은 비늘가루를 고려한 것이다. 나비목 가운데 다른 어느 무리보다도 훨씬 많은 나방류(나비목의 90%)는 보통 몸이 통통하고 색깔이 흐릿하며 야행성이다. 나비는 주행성이며 보통 색깔이 밝다. 팔랑나비류는 나방과 나비류의 중간이며 역시 주행성이다. 거의 모두 초식성으로 식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어 남극을 뺀 어느 대륙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나비연구는 주로 마츠무라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이뤄졌는데 조선산 나비의 수는 921종으로 알려졌으나. 1939년 석주명 박사가 10여 년 간 연구 끝에 오류를 바로 잡고 248종으로 확정하였다고 한다. 1996년 까지 한국에서 채집된 나비는 263종으로 네발나비과, 부전나비과, 빨나비과, 제비나비붙이과, 팔랑나비과, 호랑나비과, 흰나비과로 이루어졌다. 내 고향 황성에는 몇 종의 나비가 살고 있을까? 조사와 연구가 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황성에서 촬영한 나비류 중에서 호랑나비과, 네발나비과, 부전나비과, 흰나비과의 42종을 소개한다. 아울러 나비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해 도감과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리가 네 개인 네발나비과>

크기는 중형에서 대형이다. 앞다리가 퇴화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는 종류로 뱀눈나비류(날개에 눈알무늬), 표범나비류, 줄나비류, 왕나비류 등이 있다. 애벌레들이 번데기를 만들 때 거꾸로 매달리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는 56속 13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1. 번개오색나비-*Apatura iris amurensis* Stichel 1909

2005년 9월 5일 청일면 신대리에서 ‘번개오색나비’ 를 만났다. 암수의 몸빛깔이 서로 다르고, 개체수도 많다. 앞날개의 길이는 수컷 32~40mm, 암컷이 36~44mm이다. 성충은 연 1회 6~8월에 나타나며 수액(樹液)에 모여든다. 수목이 우거진 산지에 살며, 나무 위를 민첩하게 날아다녀 채집하기 어렵다. 유충의 식수는 호랑버들이며 유충으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수의 색깔이 다른 번개오색나비〉

2. 황오색나비-*Apatura metis* Freyer, 1829



〈황오색나비〉

2005년 9월 5일 청일면 신대리에서 ‘황오색나비’를 만났다. 몸길이 70~80mm이다. 평지나 산지의 흔한 나비다. 수컷은 날개 윗면에 보라색 광택이 난다. 성충은 연 1~3회 발생하는데 황성에서는 7~8월

에 볼 수 있으며, 버드나무, 참나무 진에 잘 모인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버드나무과(수양버들, 갯버들, 호랑버들)의 식물이며, 녹색이던 유충의 체색이 갈색으로 변하여 나무 틈에서 월동한다고 한다.

3. 북방거꾸로여덩팔나비-*Araschnia levana* Linnaeus 1758



〈북방거꾸로여덩팔나비〉

2005년 5월 1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만났다. 주로 강원도 산지에 많으며 주로 계곡 주변이나 숲 가장자리에서 관찰된다. 수컷의 앞날개길이는 봄형이 17~18mm, 여름형이 18~24mm이다. 성충은 봄형이 5~6월, 여름형은 7~8월 연 2회 발생하는데, 봄형과 여름형은 전혀 다른 모습의 계절형을 갖는다. 성충은 쉬땅나무, 개망초, 큰까치수영 등의 꽃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흑썩기풀이며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고 한다.

4. 은줄표범나비-*Argynnis paphia* Linnaeus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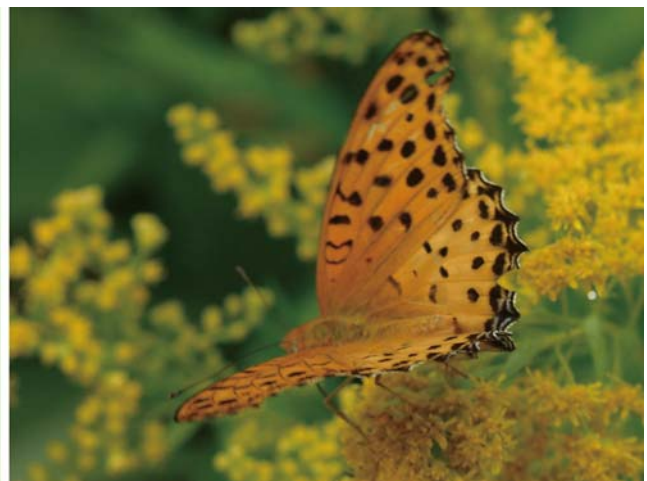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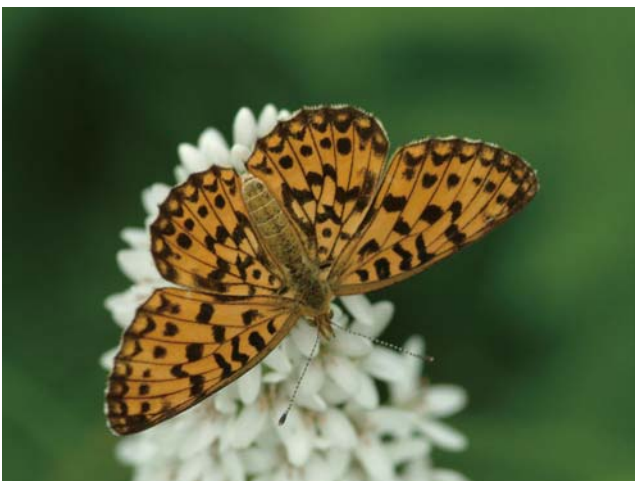
〈은줄표범나비 1〉



〈은줄표범나비 2〉

2005년 9월 12일 횡성읍 읍하리에서 '은줄표범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 32~39mm 정도의 나비로 6~9월 연 1회 발생한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하면(夏眠)을 하고 가을에 다시 활동한다. 산지의 숲길 주변에 사는 흔한 나비이며, 엉겅퀴나 큰까치수영의 꽃을 즐겨 찾아 꿀을 빠는데, 오전 중에는 잎이나 땅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제비꽃과 흰털제비꽃이며 애벌레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작은은점선표범나비-*Clossiana selene* Denis et Schiffermuller 1775



〈작은은점선표범나비〉



〈먹이활동을 하는 작은은점선표범나비〉

2005년 7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작은은점선표범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는 약 24mm이다. 연 3~4회 발생하며 3~9월에 흔히 볼 수가 있다. 산기슭 또는 야산의 풀밭에 살며 천천히 낮게 날아다닌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제비꽃과의 줄방제비꽃이다.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

6. 산은줄표범나비-*Childrena zenobia* Leech, 1890



〈산은줄표범나비〉

2006년 6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날개길이 30~40mm정도인 ‘산은줄표범나비’ 를 만났다.

높은 산지에서 연 1회 발생하며, 6월부터 9월에 걸쳐 나타난다. 중형종으로 수컷은 날개 윗면이 주황 갈색이며 암컷은 암녹색인데 암수 모두 뒷날개 아랫면에 흰색과 암녹색의 복잡하고 특이한 무늬가 있어 다른 종과 쉽게 구별 된다. 엉겅퀴, 큰까치수영, 참싸리 등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제비꽃류의 식물이며, 애벌레로 월동한다.

7. 작은멋쟁이나비-*Cynthia cardui* Linnaeus, 1758



〈작은멋쟁이나비 1〉



〈작은멋쟁이나비 2〉

2004년 10월 14일 우천초등학교에서 몸길이 40~50mm정도인 ‘작은멋쟁이나비’를 만났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활동하며 꽃 꿀이나 썩은 과일즙을 먹고 산다. 성충은 5~10월 사이에 여러 차례 발생하는데 가을에 더 많이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무리를 지어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른벌레의 모습으로 겨울을 보내며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애벌레의 먹이가 될 식물에 1개씩의 알을 낳는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떡썩이다.

제2장 나비야 나비야 유럽의 곤충이야기

8. 암검은표범나비 - *Damora sagana* Doubleday, 1847



휴식을 취하는 암컷
2008년 8월 6일 횡성 읍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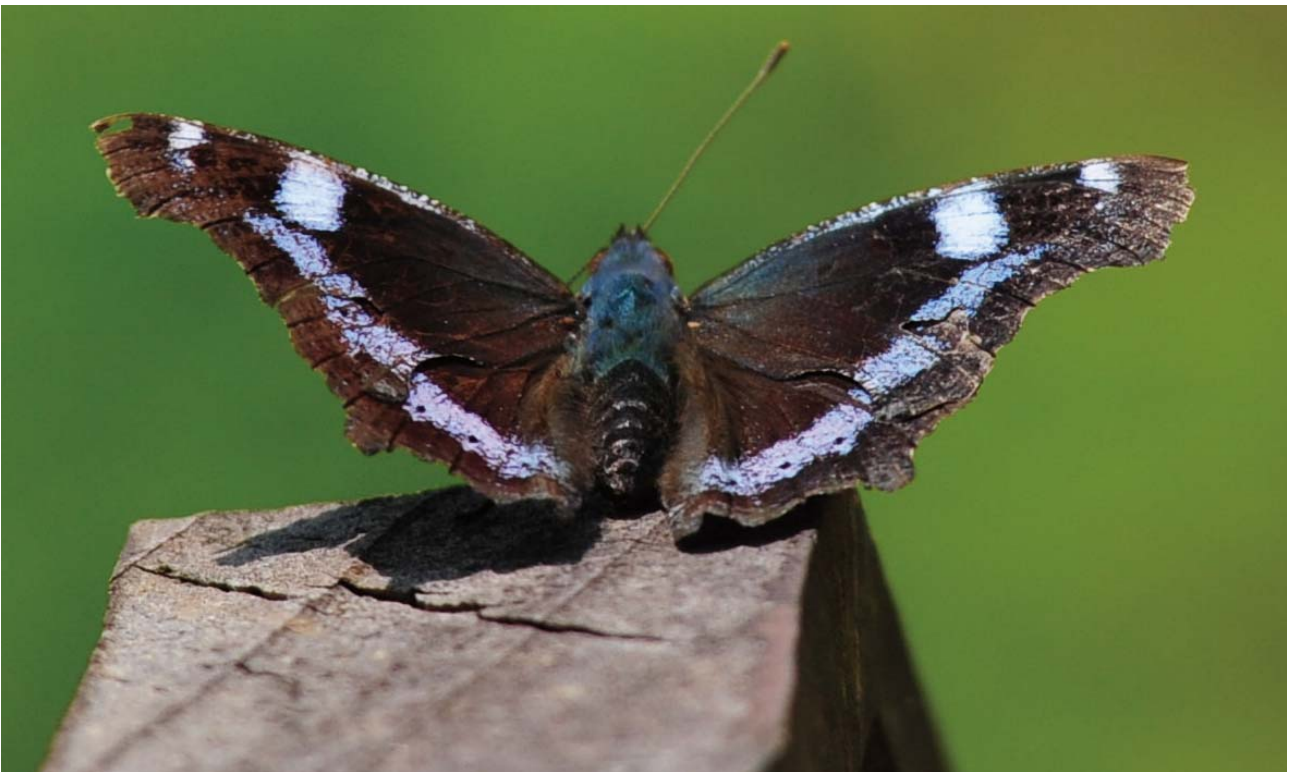
휴식을 취하는 수컷
'한국의 나비' 에서 인용



날개접은 모습과 애벌레
'주머니속 애벌레도감' 에서 인용

2008년 8월 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암검은표범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 약 31~42mm이다. 연 1회 발생하며, 6월부터 9월에 걸쳐 나타나는데 숲속에 많으며 꽃에 모인다. 먹이식물은 제비꽃 종류의 식물로 알 또는 1령 유충으로 월동한다.

9. 청띠신선나비 - *Kaniska canace* Linnaeus, 1763



〈휴식을 취하는 청띠신선나비 1〉

2005년 8월 4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청띠신선나비' 를 만났다. 몸길이 50~60mm이다. 암컷과 수컷은 빛깔이나 무늬의 차이가 적어 배끝의 모양으로 구별을 한다. 식물보다 봄을 먼저 알리는 전령사다.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이른 봄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해가 잘 드는 곳에 모여 날개를 펴고 일광욕을 한다. 성충은 4~10월 출현하며 먹이식물은 가시덩굴, 청미래덩굴 등이 있다.

11. 제이줄나비-*Limenitis doerriesi* Staudinger, 1892



〈제이줄나비 전면〉



〈제이줄나비 후면〉

2003년 5월 28일 우천초등학교에서 '제이줄나비' 를 만났다. 유리창에 앉아있어 앞뒷면을 다 촬영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 연 2회 발생하며 4~9월에 볼 수 있다. 먹이식물은 인동과(괴불나무)가 있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12. 굵은줄나비-*Limenitis sydyi* Lederer, 1853



〈굵은줄나비〉

2011년 11월 4일 갑천면 황성담에서 ‘굵은줄나비’ 를 만났다. 날개편길이가 수컷은 35mm 내외, 수컷은 60mm 내외이다. 앞뒷날개 윗면 검은색 바탕에 흰무늬가 있다. 이 나비의 이름은 뒷날개 아랫면의 은백색 무늬에서 유래한다. 6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 나타나며 연 1회 발생한다. 잡목림에 많으며 높은 수목 위를 선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빨리 날아다닌다. 4령 애벌레로 나뭇가지 갈라진 틈이나 흙 등에서 겨울을 지낸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다.

13. 은판나비-*Mimathyma schrenckii* Menetries, 1859



〈은판나비〉

2007년 9월 18일 황성읍 승지봉등산로에서 ‘은판나비’ 를 만났다. 날개편길이가 수컷은 84mm 내외, 암컷은 89mm 내외이다. 앞 뒷날개 윗면 검은색 바탕에 흰무늬가 있다. 수컷은 암컷보다 작고 날개 윗면 검정 바탕색이 훨씬 진하다. 이 나비의 이름은 뒷날개 아랫면의 은백색 무늬에서 유래한다. 6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 나타나며 연 1회 발생한다. 잡목림에 많으며 높은 수목 위를 선회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빨리 날아다닌다. 4령 애벌레로 나뭇가지 갈라진 틈이나 흙 등에서 겨울을 지낸다. 먹이식물은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느티나무이다.

14. 굴뚝나비-*Minois dryas* Scopoli, 1763



〈굴뚝나비〉

2005년 8월 22일 황성읍 승지봉등산로에서 ‘굴뚝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는 수컷이 25~34 mm, 암컷이 30~39mm이다. 연 1회 발생하며 7~8월에 나타난다. 억새 등의 풀 사이에 산란하는데 방란(放卵)한다. 땅에 떨어진 알은 약 1개월 만에 부화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월동한다. 이듬해 봄에 억새, 새포아풀 등의 잎을 먹고 자란다. 다자란 유충은 땅속에 들어가 번데기집을 틀고 그 속에서 번데기로 변태한다.

15. 부처사촌나비-*Mycalesis francisca* Cramer, 1782

2003년 6월 10일 횡성읍 승지봉등산로에서 '부처사촌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 길이 21~25mm이다. 날개의 앞면은 흑갈색이고 바깥선테두리에 접하는 가늘고 짙은 색의 한 띠가 뚜렷하다. 바깥쪽 앞날개에 2개, 뒷날개에 7개의 눈알 무늬가 있다. 연 2회 이상 발생하며 5월 하순~6월, 7~8월에 나타난다. 유충의 먹이는 참억새, 나도바랭이새, 주름조개풀 등이다. 유충으로 월동한다.



〈부처사촌나비〉

16. 부처나비-*Mycalesis gotama* Moore, 1857



〈부처나비〉

2010년 6월 10일 횡성읍 운암정부근에서 ‘부처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길이 20~28mm이다. 날개는 암갈색이며 앞날개에 테두리가 황색이고 중심이 흰색인 눈알무늬가 2개 있는데 앞 끝에 가까운 쪽이 작다. 또 앞 뒷날개 모두 눈알무늬가 있다. 연 2회 6월 중순~7월 상순, 8월 상순~하순에 발생한다. 유충은 벼, 억새 등을 먹는다. 풀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썩은 과일 등에 모인다.

17. 애기세줄나비-*Neptis sappho* Pallas, 1771



〈애기세줄나비〉

2010년 6월 10일 횡성읍 운암정부근에서 ‘애기세줄나비’ 를 만났다. 세줄나비 가운데 가장 작다. 날개를 펼치고 앉았을 때 위에서 보면 검은 밤색 바탕에 가로로 하얀 줄무늬가 3줄 나타난다. 애기세줄나비는 쥐똥나무나 나무딸기나 산초나무꽃을 찾아서 꿀을 빨아먹는다. 먹을 때에는 다른 나비나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날개를 폼뻗었다 접었다 한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아카시아나무나 싸리나무나, 나비나물 같은 콩과 식물이며, 유충은 몸색이 나뭇가지와 비슷한 검은 밤색이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유충은 동면을 할 때가 되면 잎자루와 나뭇가지를 실로 칭칭 묶어서 바람이 불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게 해둔다. 유충은 마른 잎에 매달린 채로 겨울을 난다.

18. 황세줄나비-*Neptis thisbe* Menetries, 1859



〈황세줄나비〉

2007년 9월 18일 횡성읍 운암정부근에서 ‘황세줄나비’를 만났다. 연 1회 발생하며, 6월부터 8월 까지 주로 숲 가장자리, 산길의 지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날개의 윗면은 흑색바탕에 흰색 또는 밝은 황색 무늬가 하트모양을 이루고 있다. 날개 편 길 이 34~43mm이다. 날개 빛깔은 암갈색이고, 앞날개에 3~4개의 노란 무늬가 하나의 가로띠를 이루고 있다. 먹이식물은 참나무과의 줄참나무이다.

19. 네발나비-*Polygonia caureum* Linnaeus, 1758



〈먹이활동하는 네발나비〉



〈먹이활동하는 네발나비〉

2007년 9월 15일 서원면 유현초등학교에서 ‘네발나비’를 만났다. 날개길이가 23~32mm이며, 연 2~4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하여 3월부터 11월에 걸쳐 나타난다. 낮은 산지와 숲 가장자리, 민가 주변, 수변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쉽게 관찰된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한삼덩굴, 삼 등을 먹으며 또 잎을 엮어 집을 짓는다. 여름형과 가을형은 일조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무늬에 의한 암수 구별은 어렵고 배 끝의 모양으로 확실하게 구별된다.

20.대왕나비-*Sephisia princeps* Fixsen, 1887



〈대왕나비〉

치해서 개미집으로 옮겨져 개미의 애벌레나 번데기를 먹으며 자라고, 개미는 큰점박이부전나비의 꿀을 먹으며 산다. 국내에는 45속 7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1. 푸른부전나비-*Celastrina argiolus* Linnaeus, 1758



〈푸른부전나비〉

몸길이 7~10mm, 날개편 길이 15~22mm이다. 3월 하순에서 10월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는데, 날개 윗면이 푸른색이며 아랫면은 흰색이다. 앞날개 가장자리 부분의 검은색 점무늬가 세로로 있으며 아랫날개에는 검은색 점무늬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싸리, 쯤싸리, 고삼 등이 알려져 있는데 애벌레는 주로 먹이식물의 꽃을 먹는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2. 암먹부전나비-*Everes argiades* Pallas, 1771



〈암먹부전나비〉



〈암먹부전나비의 짝짓기〉

2008년 4월 19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암먹부전나비’를 만났다. 날개편 길이 9~17mm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몇 차례 발생하며 풀밭에 많고 낮게 날아다니면서 꽃에 모인다. 수컷의 날개 앞면은 청람색이고 암컷은 흑갈색이다. 뒷면은 회백색으로 흑갈색 반점이 산재한다. 뒷날개에는 꼬리모양의 돌기가 있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토끼풀, 쪼록싸리를 먹으며, 성충은 개망초, 명석딸기 등의 꿀을 빨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3. 시가도굴빛부전나비-*Japonica saepestriata* Hewitson, 1865



〈시가도굴빛부전나비〉



〈시가도굴빛부전나비〉

2005년 7월 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시가도굴빛부전나비’를 만났다. 날개 편 길이 약 40mm이다. 날개의 바탕은 등황색이며, 뒷면에는 세로로 검은 줄이 물결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성충은 연 1회 발생하는데, 따뜻한 곳에서는 6월 상순에서 중순, 추운 곳에서는 7~8월에 나타난다. 성충은 낮에는 풀잎 위에서 지내며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날지 않으나, 해질녘에는 나무 위를 활발히 날아다닌다. 이 나비의 이름 시가도는 이 종의 앞. 뒷 날개 아랫면의 검은색 무늬가 시가도와 비슷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유충의 먹이는 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과 식물이다. 알로 월동한다.

4. 굴빛부전나비-*Japonica lutea* Hewitson, 1865



〈굴빛부전나비〉



〈꿀빛부전나비〉

2005년 5월 2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꿀빛부전나비’ 를 만났다. 날개 편 길이 약 24mm이다. 성충은 연 1회 발생하며, 평지에서는 5월 중순경, 고지에서는 7월경에 나타나는데 낮에는 나뭇잎 위에 앉아 쉬고 일몰 전쯤에 활발히 날아다닌다. 날개의 바탕색은 오렌지색이고 앞날개의 바깥둘레 앞부분은 검정빛이다. 뒷날개에 가느다란 꼬리 모양의 돌기가 솟아 있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참나무, 굴참나무 등의 어린잎이다. 알로 월동한다.

5. 부전나비-*Lycaeides argyronomon* Bergstrasser



〈부전나비〉



〈날개를 접은 부전나비〉



〈날개를 편 부전나비〉

2005년 6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부전나비’를 만났다. 날개편 길이는 18~38mm이다. 성충은 5월 중순에서 10월까지 수차례 발생하는데 작고 연약하며 민첩하게 날아다닌다. 개망초, 메밀, 갈퀴나물 등에서 꿀을 빨다. 부전나비의 날개를 보면, 윗면은 갈색을 띠며 아랫면에는 점무늬가 있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갈퀴나물, 낭아초, 별노랑이, 사철쭉 등이다. 알로 월동한다.

6. 큰주홍부전나비-*Lycaena dispar aurata* Leech, 1987



〈날개를 편 큰주홍부전나비〉

2010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큰주홍부전나비’를 만났다. 날개편 길이는 12~18mm이다. 연 3회 발생하며, 5월부터 10월에 걸쳐 나타난다. 주로 강둑이나 논밭 근처에서 개망초, 미나리 등의 꽃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 식물은 참소리쟁이, 소리쟁이 등이다. 월동은 애벌레로 한다.

7. 작은주홍부전나비-*Lycaena phlaeas* Linnaeus, 1761



〈작은주홍부전나비 1〉



〈날개를 편 작은주홍부전나비2〉

2010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작은주홍부전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 15~17mm이다. 성충은 4~10월 사이에 수차례 발생하는데 봄형(4월)과 여름형(6월)이 차이가 있다. 작고 아름다운 나비로 양지바른 풀밭이나 길가에서 살며 민첩하게 날아다닌다. 고추나무, 미나리아제비, 민들레와 개망초 등 여러 꽃의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애기수영, 수영이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8. 민무늬굴빛부전나비-*Shirozua jonasi* Janson, 1877

2008년 4월 1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민무늬굴빛부전나비' 를 만났다. 날개편 길이는 약 40mm 정도이다. 성충은 7월 말에서 9월 초에 연 1회 발생하는데 채집하기도 쉽지 않고 개체수도 드물다.

참나무숲 주변에서 살며 저녁에 활동이 활발하다. 유충은 일본에서 관찰된 기록에 따르면 초령기에는 진딧물, 각지벌레의 분비물과 참나무과 식물의 어린 싹을 먹으며 커감에 따라 진딧물, 각지벌레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나비로서는 다소 진귀한 반육식성 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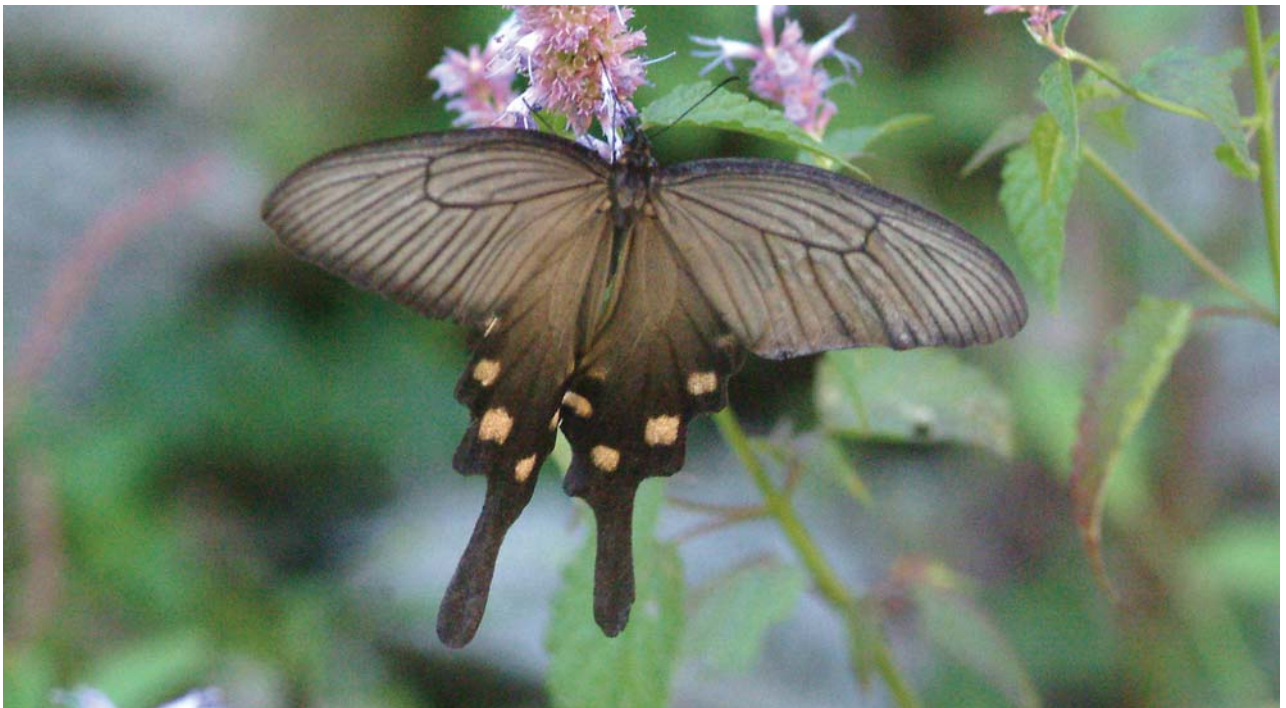


〈민무늬굴빛부전나비〉

〈크고 화려한 호랑나비과〉

대형나방으로 날개가 아름답고 뒷날개에 있는 꼬리모양돌기가 발달하였다. 호랑나비류, 제비나비류, 모시나비류 등이 있다. 국내에는 6속 19종이 기록되어 있다.

1. 사향제비나비-*Atrophaneura alcinous* Klug, 1836



〈사향제비나비〉

2005년 8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사향제비나비' 를 만났다. 날개 길이 41~55 mm의 대형나비이다. 봄형(5~6월), 여름형(7~8월) 연 2회 발생한다. 몸에서 향기가 나고 몸빛은 검다. 암컷은 뒷날개의 바깥 가두리에 등황색 무늬가 줄지어 있다. 연 2회 발생한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쥐방울 덩굴과 등칩이다.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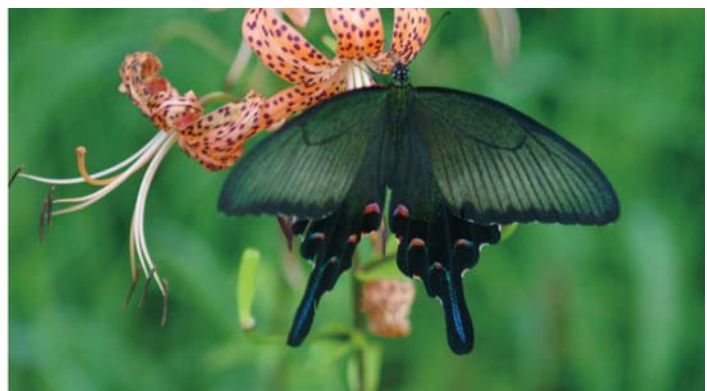


〈사향제비나비〉

2. 제비나비 - *Papilio bianor* Cramer, 1777



〈제비나비 측면〉



〈먹이활동하는 제비나비〉

2008년 8월 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제비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 4~7.3cm 이다. 연 2회 4~6월과 7~8월에 봄·여름형이 각각 나타난다. 라일락, 고추나무, 쉬땅나무, 누리장나무, 자귀나무, 얇은잎고광나무, 엉겅퀴에 잘 모여서 오후 무렵 무리지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텃세가 많은 나비로 일정한 영역을 활동무대로 확보하기도 한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산초나무·머귀나무·탱자나무 등이며, 번데기로 월동 한다.

3. 산제비나비-*Papilio maackii* Menetries, 1859



〈산제비나비〉

2005년 10월 19일 청일면 신대리에서 ‘산제비나비’ 를 만났다. 날개편 길이 약 4.1cm~7.5cm이다. 4~8월 까지 연 2회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사는 제비나비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이다. 1940년대에는 산신령나비라 불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엉겅퀴, 숫꽃다리, 곰취 등에 모여서 꿀을 빨다. 대체로 나는 힘이 강하여 호랑나비 무리 중에서 산꼭대기까지 가장 높이 날아오른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황벽나무, 산초 등이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4. 산호랑나비-*Papilio machaon* Linnaeus, 1758

2005년 8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산호랑나비’ 를 만났다. 날개 편 크기 36~59mm이며, 5~10월에 연2회 발생한다. 높은 산꼭대기에 살지만 평지에도 내려온다. 봄에는 수수꽃다리, 진달래, 엘레지, 라일락 등에서 꿀을 빨고 여름에는 동자꽃, 이질풀, 쉬땅나무 등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미나리, 기름나물, 참당귀 등이이며 번데기로 월동한다.



〈산호랑나비〉

5. 긴꼬리제비나비-*Papilio macilentus* Janson, 1877

2008년 10월 1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긴꼬리제비나비' 를 만났다. 날개편 길이 45~54mm 이며 5~8월에 연2회 발생한다. 봄에는 수수꽃다리, 고추나무꽃에서 여름에는 나리, 엉겅퀴꽃 등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산초나무, 초피나무, 탕자나무 등이며 번데기로 월동한다.



〈긴꼬리제비나비〉

6. 호랑나비-*Papilio xuthus* Linnaeus, 1767



〈먹이활동하는 호랑나비〉



〈휴식하는 호랑나비〉



〈수분섭취 하는 호랑나비〉

2005년 9월 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호랑나비’ 를 만났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나비로 크기는 봄형(몸길이 20~24mm, 날개편길이 70~75mm)과 여름형(몸길이 27~30mm, 날개편길이 90~105mm)이 다르다. 성충은 4~10월 까지 연 2~3회 발생한다. 맑은 날에는 물가와 각종 꽃에 잘 모인다. 예부터 인간과 가장 친숙한 나비로 알려져 있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산초나무, 황벽나무, 굴나무, 탕자나무 등이며 번데기로 월동한다.

7. 모시나비-*Parnassius stubbendorfi* Menetries, 1849



〈휴식하는 모시나비〉

2008년 5월 10일 장성읍 태백산에서 ‘모시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 약 2.5cm~3.8cm이다. 성충은 5~6월에 연1회 발생한다. 짝짓기 할 때 수컷은 분비물로 암컷의 배 끝에 수태낭을 만들어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못하게 한다. 모시나비는 날개에 비늘가루가 적어 투명한 날개가 모시천의 품위를 연상하여 생긴 이름이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현호색, 들현호색이며 알로 월동한다.



〈먹이활동하는 모시나비〉

8. 꼬리명주나비-*Seriginus montela* Gray, 1852



〈꼬리명주나비 암컷〉



〈꼬리명주나비 수컷〉

2004년 9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꼬리명주나비’ 를 만났다. 앞날개의 길이 25~36mm이며 꼬리가 가늘고 길다. 성충은 4~5월(봄형), 6~7월(여름형), 8월 중순까지 연3회 발생한다. 여름형은 봄형에 비해 크다. 맑은 날에는 대부분 날개를 접고 있으나 일광욕을 하기위해 날개를 펴고 앉기도 한다. 흐린 날에는 거의 날지 않는다. 긴꼬리가 명주의 섬유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쥐방울덩굴이며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

〈흔하게 보이는 흰나비과〉

1. 각시뿔노랑나비-*Gonepteryx mahaguru aspasia* Gistl, 1857



〈각시뿔노랑나비〉

2007년 9월 15일 서원면 유현초등학교에서 '각시뿔노랑나비'를 만났다.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30~35mm이며, 성충은 6월 말에서 8월 초, 월동 후 3~4월. 연 1회 발생한다. 성충은 엉겅퀴, 개망초, 백일홍 등의 꽃에서 꿀을 빨다. 암컷은 바탕색이 연한 녹색을 띠나 수컷은 황색이다. 유충은 갈매나무나 털갈매나무의 잎을 먹고 자란다. 어른벌레로 월동한다.

2. 기생나비-*Leptidea amurensis* Menetries, 1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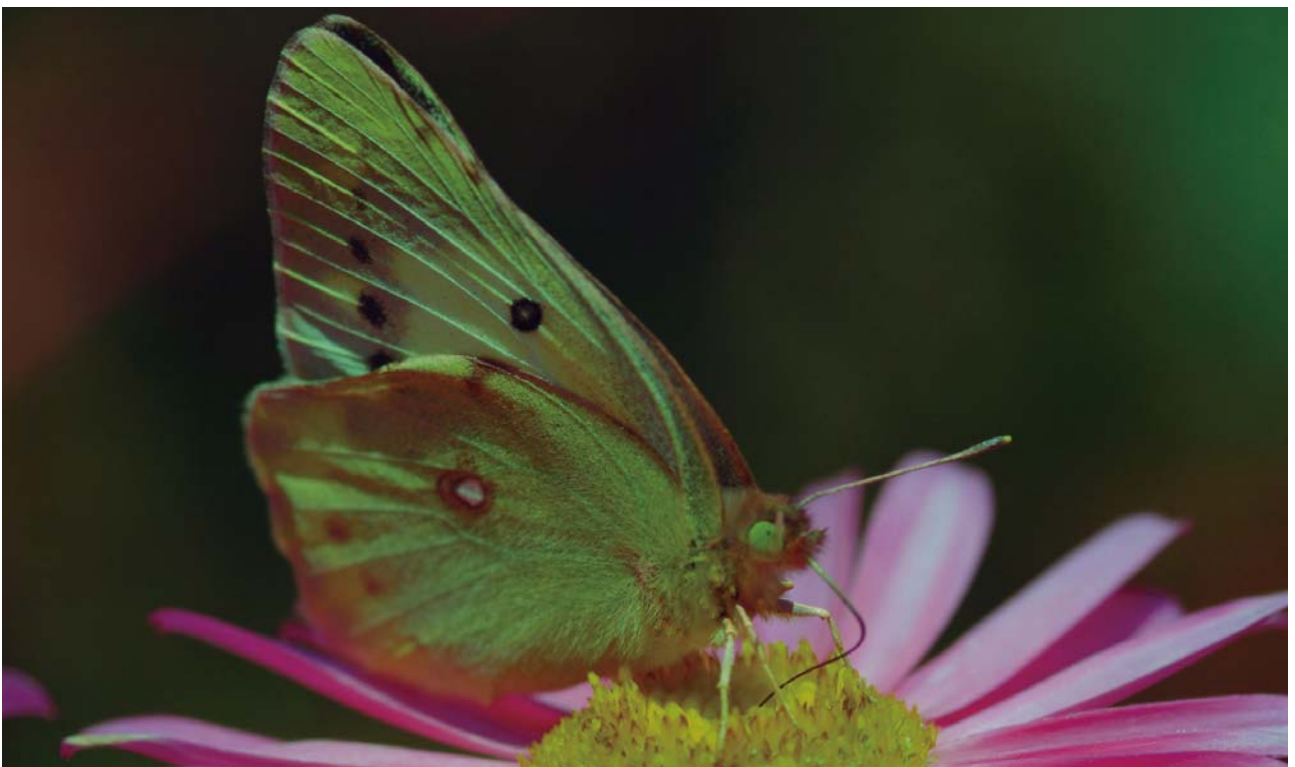


〈기생나비〉

2008년 5월 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기생나비' 를 만났다. 낮은 산지나 논밭 주변에 사는데 날 때 힘이 없어 보인다.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43~62mm이며, 4월 말부터 9월까지 연3회 발생한다. 성충은 꿀풀인 타래난초 등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콩과의 갈퀴나물이다.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

3.노랑나비-*Colias erate* Esper, 1805

2004년 9월 25일 황성읍 읍하리에서 '노랑나비' 를 만났다. 마을이나 풀밭에 살며 정원에 있는 꽃에 잘 모인다.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37~63mm 이며, 3월 말부터 10월까지 연 3~4회 발생한다. 성충은 개망초, 토끼풀 영경귀 등의 꽃에 모여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콩과식물(자운영, 들콩, 고삼, 아카시아, 토끼풀)이다.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



〈먹이활동하는 노랑나비〉

4. 배추흰나비-*Pieris rapae* Linnaeus, 1758



〈먹이활동하는 배추흰나비〉



〈먹이활동하는 배추흰나비〉

우리와 친숙한 나비로 배추밭, 무밭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50~60mm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연 4~5회 발생한다. 성충은 메밀, 무, 엉겅퀴 등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 식물은 무, 배추, 콩다닥냉이 등의 십자화과 식물이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5. 큰줄흰나비-*Pieris melete* Menetries, 1857

2007년 9월 15일 횡성읍 읍하리에서 '큰줄흰나비' 를 만났다. 성충의 날개를 편 길이는 55-65mm 정도이며, 4월 말부터 10월까지 연3~4회 발생한다. 성충은 미나리냉이, 엉겅퀴, 꿀풀 등에서 꿀을 빨다. 유충의 먹이식물은 미나리냉이, 속속이풀, 배추, 무, 냉이 등이다.



〈큰줄흰나비〉

〈나비사진을 42종을 정리하며〉

그 중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특이한 종도 있었다. 네발나비과는 다리가 본래는 6개이지만 2개가 퇴화되어 4개만 보인다는 것과 일부 부전나비 유충의 먹이가 식물이 아닌 반 육식성인 것이다. 네발나비의 다리는 왜 2개가 퇴화되었을까? 무척 궁금하였지만 아마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일 것이다. 반 육식성 부전나비의 생태도 국내에서는 연구가 덜 이뤄진 점이 아쉽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꽃밭에서 나비를 쫓던 어릴 때 추억이 떠올라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었던 점과 나비의 이름이나 생태를 알아가는 재미가 많이 좋았다.



제3장 큰나방 이야기

제3장 큰 나방 이야기

2003년 7월 1일 우천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6학년이 갑천면 병지방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수련활동을 갔었다. 아침 일찍 수련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기사분이 운동장에 떨어진 나방들을 쓸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나방들이 낙엽처럼 넓은 마당에 둥구는 모습을 처음 본 나는 참으로 신기하였다. 수련원 건물 옥상에 밤새도록 켜진 외등에 모여든 나방들이 새벽이 되자 지쳐서 벽에 붙어 있거나 마당에 둥군다는 것이었다. 이 나방들은 시간이 지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휴식을 끝내고 다시 산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 때 부터 나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 후 수년 동안 여름철이면 이른 아침에 수련원을 찾아가 나방을 촬영하고 이름을 찾아 분류하고 생태를 관찰하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나방의 개체수가 줄어들더니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아마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큰 원인이겠지만 외등의 색이 바뀌고 운영난으로 불을 끄는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아침에 외등이 켜진 곳을 살펴보는 버릇도 생겼다. 그 때 보았던 수많은 나방들 중 유난히 내 관심을 끈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 누에나방과 종류가 다양한 박각시, 자나방 등 이었다.

〈이름이 예쁜 박각시나방과〉

강원의 자연 곤충편(강원도교육청 1997)에 따르면 박각시나방은 50여종이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만 18종을 만날 수 있었으니 대단한 행운이었다. 박각시는 곤충강 나비목 박각시나방과(Sphingidae)의 나방이다. 박각시과의 나방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지붕위에 핀 하얀 박꽃 주위에서 붕붕대며 꿀을 빠는 나방을 보고 ‘박꽃신랑을 찾아온 각시나방’이라고 생각하여 박각시라는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유충은 10cm 가 넘을 정도로 크며 몸 끝 등쪽에 칩갈은 돌기가 있고, 참깨(깻망아지), 토마토, 담배, 감자등의 잎이나 줄기를 갹아먹는 해충이 많다. 50세가 넘는 분들은 어릴 때 농촌에서 크고 징그러운 ‘깻망아지’ 또는 ‘팔망아지(영동지방)’ 를 잡던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박각시 애벌레에 ‘망아지’ 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애벌레를 건드리면 망아지(말의 새끼)처럼 팔짝 팔짝 뛰어 깜짝 놀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방에서는 유충을 해열제, 구충제 등 약용으로 쓴다.

1. 포도박각시-*Acosmeryx naga* Moore, 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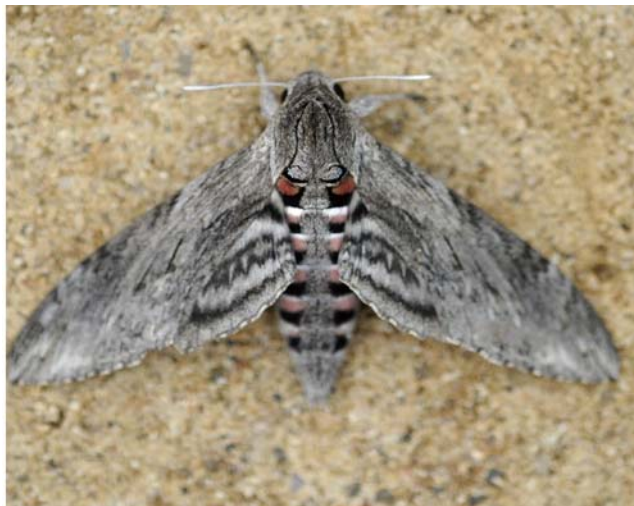
2013년 8월 28일 갑천면 횡성담에서 포도박각시를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80mm, 몸길이 36mm로 5월에서 8월에 연 2회 발생한다. 유충은 80mm까지 개머루, 포도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데 나뭇잎 전체를 먹어치워 피해가 크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2. 박각시-*Agrius convolvuli* Linnaeus, 1758



〈박각시 머리〉



〈박각시〉

2010년 10월 7일 이후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날개편길이 104~114mm, 몸길이 42~52mm. 성충은 7~10월에 연2회 출현한다. 유충은 100~110mm까지 고구마나 메꽃종류의 식물을 먹고 자라는데 자라면서 녹색, 갈색(오렌지색)으로 변한다. 성충도 사과, 복숭아 등에서

과즙을 빨아 피해를 준다. 위 사진은 테니스장 불빛에 모여든 것이다. 자주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박각시〉

3. 갈고리박각시-*Ambulyx japonica* Rothschild, 1894



〈갈고리박각시〉

2013년 8월 5일 갑천면 횡성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80~90mm 몸길이 50~60mm. 성충은 5~8월에 연2회 출현한다. 유충은 80mm까지 자라며 가래나뭇잎 전체를 먹어치워 피해가 크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4. 점갈고리박각시-*Ambulyx ochracea* Butler, 1885

2004년 8월 7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갈고리박각시와 비슷하다. 날개편

길이 97~102mm, 몸길이-40mm. 5~8월에 연2회 성충이 출현한다. 앞날개 양 끝 부분이 갈고리처럼 날카롭다. 애벌레는 길이가 59~70mm 정도 호두나무류나 참나무류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50mm 정도)로 월동한다.



〈점갈고리박각시〉

5.머루박각시-*Ampelophaga rubiginosa* Bremer & Grey, 1852



〈머루박각시〉

2004년 8월 12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84~97mm. 성충은 5~8월에 출현한다. 애벌레는 산머루 잎을 한 장씩 깨끗이 먹고 옮겨간다. 다자라면 줄기에서 잎을 잡아당겨 붙이고 번데기가 되어 약24일 후에 우화한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6.녹색박각시 - *Callambulyx tatarinovii* Bremer et Grey, 1852

2010년 10월 7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62~81mm, 몸길이 35mm. 5~8월에 성충이 연 2회 출현한다. 느티나무나 느릅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유충은 녹색이며 60~70mm 정도 자라며 회백색으로 적갈색사선이 있다. 유충이 잎을 먹지만 대량발생하지는 않는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녹색박각시〉

7. 콩박각시-*Clanis bilineata* Walker, 1866



〈콩박각시〉

2004년 8월 7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94~106mm 몸길이 35mm. 가슴의 등면에는 짙은 자주색의 가는 줄이 나있다. 6~8월에 연2회 성충이 출현하는데 밤1시가 지나야 불빛에 모여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시아, 싸리, 칩잎, 콩잎을 먹고 자라는 유충은 콩의 가장 큰 해충이다.

8. 솔박각시-*Hyloicus morio* Rothschild et Jor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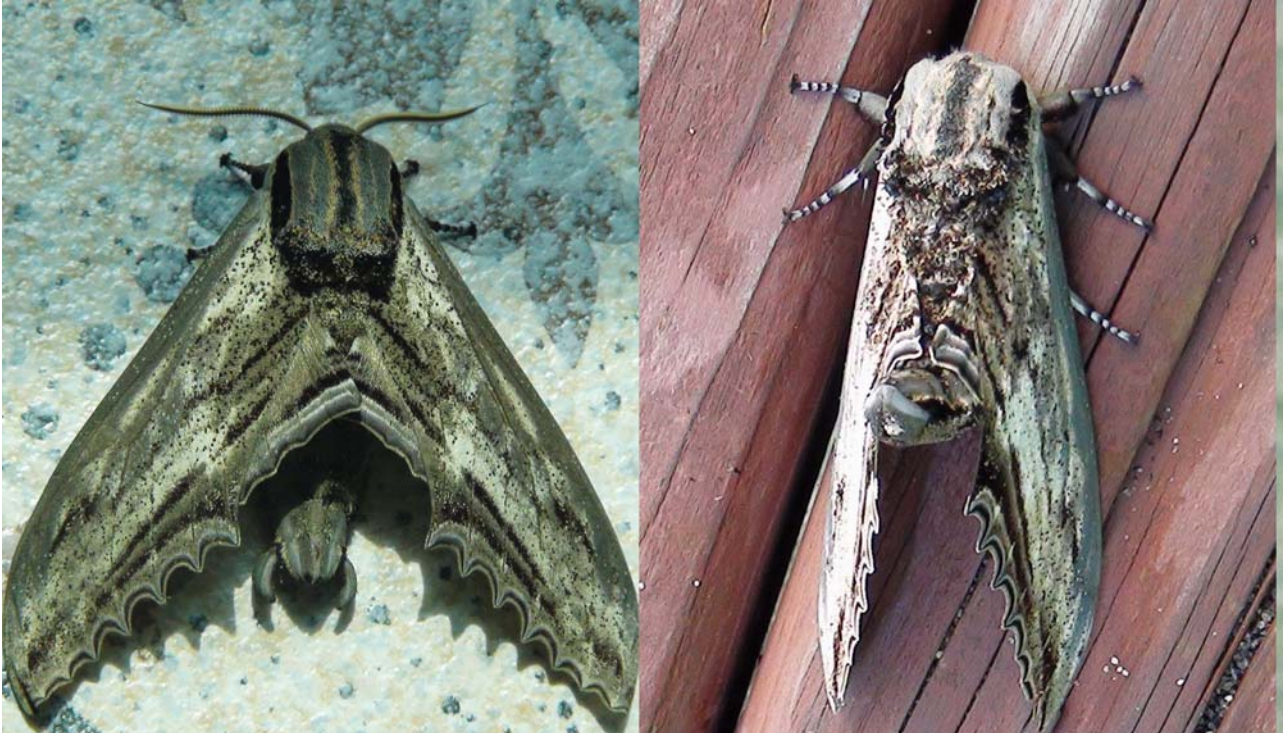
2014년 4월 22일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70mm, 몸길이 25mm. 성충은 4~10월 연2회 출현한다. 유충은 소나무, 곰솔, 낙엽송, 가문비나무 등의 잎을 먹고 약 65mm 정도 자라면 녹색 바탕에 등 윗면에 갈색 줄이 있고 그 양쪽으로 흰색 줄이 보인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9. 대왕박각시-*Langia zenzeroides nawai* Rothschild et Jordan, 1903



〈대왕박각시〉



〈대왕박각시〉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에 해마다 이른 봄이면 찾아와 자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이름처럼 날개편길이 130mm 나 되고 몸길이 45mm 정도로 우리나라 박각시 중 매우 크다. 사진처럼 생김새도 재미있고 특이하게 생겼다. 배끝을 높이 치켜든 모습은 돛단배를 생각나게 한다. 성충은 연 1회, 기온이 매우 낮은 이른봄(4~5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복숭아나무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남부지방에서 서식했었는데 횡성지방에서도 보이니 기후가 많이 더워진 모양이다. 개체수가 적은 종이지만 아침에 테니스장에서 매년 관찰할 수 있었다.

10. 툽날개박각시-*Amorpha amurensis* Staudinger, 1892



〈툽날개박각시 1〉

2014년 8월 17일 갑천면 추동리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71~98mm 몸길이-40mm 로 몸과 앞날개는 어두운 회색을 띄며 날개의 바깥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성충은 5~8월, 연1회 출현하는데 번데기로 월동한다.

11. 작은검은꼬리박각시-*Macroglossum bombylans* Boisduval, 1875

2005년 5월 17일 아파트 화단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43~52mm 몸길이-18mm 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벌새로 착각하기 쉽다. 성충은 7~10월 연2회 출현하는데, 성충은 주행성 나방으로 낮에 활발하게 날아다니며, 봉숭아 꽃 등의 여러 꽃에 모여들어 꿀을 빨아 먹는다. 덜 익은 유자나무의 열매를 찌르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애벌레는 꼭두서니 등을 먹으며 자란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작은검은꼬리박각시〉

12. 검은꼬리박각시-*Macroglossum saga* Butler, 1878

위 사진은 2005년 7월 8일 황성읍 승지봉 등산로에서 촬영하였고 아래 사진은 갑천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29~30mm. 흔히 벌새로 착각하기 쉽다. 성충은 6~10월 연2회 출현하는데 주행성 나방으로 야산에서 관찰된다. 유충은 아카시아, 굴거리나무 등의 잎을 먹으며 43~45mm 정도 자란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검은꼬리박각시〉

13. 분홍등줄박각시-*Marumba gaschkewitschii* Bremer et Grey, 1852



〈분홍등줄박각시〉

2006년 6월 15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96~110mm, 몸길이-20mm. 5~8월 연2회 출현하는 성충은 색깔이 예쁜 편이다. 유충은 뽕나무, 매실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등을 먹고 자란다. 먹이식물에 초록색의 알을 낳고 이들이 알에서 깨어난 후 6~8월과 8~10월에 잎을 갉아먹는다. 흙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한다.

14. 등줄박각시-*Marumba sperchius* Menetries 1857

2005년 7월 20일 갑천면 대관대리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96~110mm, 몸길이-20mm. 몸과 앞날개는 담갈색이다. 5~8월 연 1~2회성충이 출현하는데 평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유충은 밤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등줄박각시〉

15. 쥐박각시-*Meganoton scribae* Austaut, 1911



〈쥐박각시〉

2013년 8월 30일 갑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87~110mm, 몸길이 45mm. 성충은 6~8월 연 1회 출현한다. 유충은 참깨, 능소화, 오동나무, 쥐똥나무, 목련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16. 닳나무박각시-*Parum colligata* Walker 1856

2005년 갑천면 병지방리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69~74mm, 5~9월에 연 1회성충이 출현한다. 유충은 꾸지나무, 닳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닥나무박각시〉

17. 주홍박각시-*Deilephila elpenor* Linnaeus, 1758

2005년 승지봉 등산로와 갑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120mm. 몸통과 날개는 주홍색이다. 5~9월 연2회 출현한다. 유충은 봉선화, 달맞이꽃 등을 먹고 자란다. 중령 유충은 낮에도 잘 보이나 노숙 유충은 낮에는 땅 가까이 있다가 밤이면 먹으러 줄기 위로 올라간다. 흙속에 들어가 번데기가 되고 20일이면 우화한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주홍박각시〉

18. 빛나무박각시-*Phyllosphingia dissimilis* Bremer, 1861

2004년 8월 7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96~118mm. 성충은 5~8월. 연1회 출현하는데 주변 야산에서 관찰된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벚나무박각시〉

19. 점박각시-*Kentochrysalia sieversi* Alphèraky, 1897



〈점박각시〉

2005년 5월 15일 황성종합운동장에서 촬영했다. 몸길이 35mm, 날개 편 길이 90mm이다. 어른벌레의 몸은 전체적으로 회색을 띤다. 성충은 7월말에 주로 출현한다. 유충은 버드나무 등에서 기생한다.

20. 버들박각시 - *Smerinthus caecus* Menetries, 1857



〈버들박각시〉

2010년 10월 7일 갑천면 대관대리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64~75mm. 성충은 6~9월 연1회 출현한다. 유충은 버드나무, 사과나무, 뽕나무, 황철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21. 뱀눈박각시 - *Smerinthus planus* Walker, 1856



〈뱀눈박각시〉

2005년 갑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몸과 날개는 회갈색이며, 뒷날개 중앙 부분에 커다란 뱀눈모양의 무늬로 적을 위협한다. 날개편길이 35~50mm. 성충은 4~9월, 연2회 출현한다. 유충은 사철나무, 장미, 뽕나무, 사과나무, 버들류 등의 잎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22. 세줄박각시 - *Theretra oldenlandiae* Fabricius, 1775



〈세줄박각시〉

2005년 갑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촬영했다. 날개편길이 26~33mm, 성충은 5~10월, 연2회 출현한다. 유충은 개머루, 거지덩굴, 봉선화, 토마토 등을 먹고 자란다. 번데기로 월동한다.

〈무늬가 예쁘고 덩치가 큰 산누에나방과〉

산누에나방류는 산누에나방과(Saturniidae)에 속하는데 몸이 큰 종류가 많고 대개 광택이 있는 빛을 띠며 세계적으로 분포하나 열대 지방에 많은 종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방 중 가장 큰 것은 700mm가 넘는 것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화석으로만 남아있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에 날개편길이가 300mm나 되는 괴물 같은 ‘아틀라스대왕산누에나방(*Attacus atlas*)’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비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산누에나방류는 날개편길이가 140mm이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제일 큰 나방이며, 11종이 알려져 있다. 사람의 손으로 길러져 날지 못하는 ‘누에나방’과는 달리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며, 나방의 몸 색상이 흰색인 누에나방에 비해서 화려한 편이다. 천적인 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눈알 무늬가 앞뒤 날개에 있거나 앞날개 양 끝에 뱀 머리 같은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컷의 더듬이는 깃털 모양이고, 암컷은 빗살 모양이 많다. 대부분이 알로 월동하는 산누에나방류는 애벌레, 번데기, 나방의 네 단계를 거치는데 애벌레는 통통한 몸매를 갖고 있으며 90mm 정도 자라는 것도 있다. 활엽수를 먹이식물로 하며 다식성이다. 다 자란 애벌레는 실을 내어 만든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어른벌레는 입이 퇴화되어 먹지는 못하고 짹짹기와 알 낳기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1.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 *Actias gnoma* Butler, 1877

2005년 6월 17일 갑천면 병지방리에서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을 만났다. 예쁜 옥색이 특징이며, 큰 나방으로 눈에 잘 띈다. 밤에 가로등이나 주택의 불빛에 날아들 때는 그림자가 하도 커서 새처럼 보이는 어른벌레는 5~8월 연 2회 출현하는데 날개편길이는 95~110mm 정도 된다. 애벌레는 층층나

무, 자작나무 등의 잎을 먹으며 다 자라면 연두색을 띠는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2. 네눈박이산누에나방-*Aglia tau* Linnaeus, 1758



〈네눈박이산누에나방〉

2014년 4월 9일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에서 ‘네눈박이산누에나방’ 을 만났다. 날개편 길이 55~75 mm. 부엉이산누에나방과 비슷하나, 앞뒤날개의 바탕색이 다소 황갈색을 띠며, 이들 무늬의 모양이 차이를 나타낸다. 전국에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성충은 연 1회 4~6월에 출현한다.

3. 참나무산누에나방-*Antheraea yamamai* Guéin-Meneville, 1861



〈참나무산누에나방〉

2006년 8월 4일 갑천면 병지방리에서 ‘참나무산누에나방’ 을 만났다. 날개마다 하나씩 있는 커다란 눈알 모양 무늬가 특징이다. 참나무 밤나무 숲에 많이 있지만 밤에 불빛에 잘 날아옴으로 숲 근처의 가로등 밑에서 잘 보이는 어른벌레는 6~9월에 출현하는데 날개편길이 115~140mm이다. 상수리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졸참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라는 애벌레는 천잠이라고 불리는데 애벌레 몸의 길이는 5cm 정도이며 누런빛을 띤 녹색이다. 고치에서는 천잠사라고 불리는 갈색의 고급 명주실을 뽑는다. 옛날 제주도에서 전해내려 오던 천잠은 일본에 유출되어 고급 비단 생산으로 국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는 농가 소득을 위해 장려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4. 작은산누에나방- *Caligula fallax* Jordan, 1911



〈작은산누에나방〉

앞뒤 날개에 각각 하나씩 있는 눈알 모양의 무늬가 특징이다 무늬는 적갈색이고 흑색 테두리가 선명하다. 2005년 9월 10일 경 백두산 아래 숙소에서 처음 보았지만 횡성에서도 볼 수 있었다. 날개편 길이는 75~80mm 로 다른 산누에나방보다 작다. 애벌레는 뱀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매화나무, 뽕나무, 호두나무의 잎을 먹는다.

5. 밤나무산누에나방-*Dictyoploca japonica* Moore, 1862



〈밤나무산누에나방〉

2005년 9월 13일 백두산 숙소에서 처음 보았다. 눈알모양의 무늬가 뒷날개에만 크고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어스렁이나방’ 이라고 불리기도 한 밤나무산누에나방은 연 1회 7~9월에 발생하는데 날개편길이는 100~120mm 이다. 내가 본 산누에나방 중 체색이 아주 다양하였다. 유충은 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등의 잎을 먹고 머리와 몸은 녹색을 띠며 몸길이가 70~90mm 까지 자란다. 갈색의 큰 고치를 만드는데 고치가 너무 질겨서 찢어지지 않는다. 우화(羽化)한 나방은 분비물을 내어 고치를 녹이고 나온다고 한다.

6.가중나무고치나방-*Samia cynthia* Drury, 1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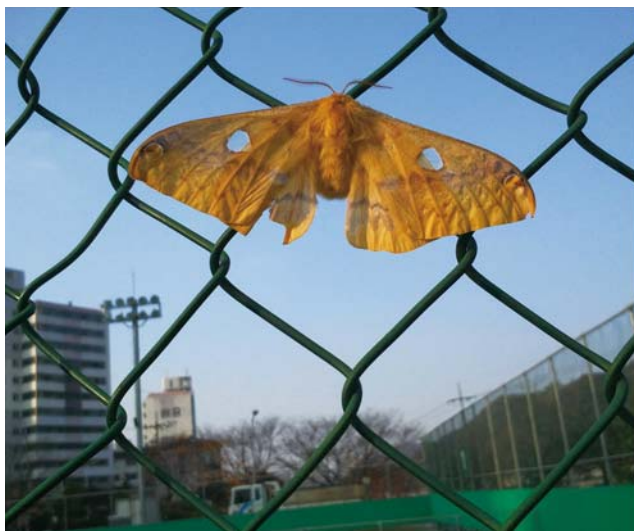
〈가중나무고치나방〉

2006년 7월 25일 갑천면 추동리에서 난생 처음 ‘가중나무고치나방’ 을 만났다. “세상에! 이런 나방도 있구나.”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앞날개 양끝이 돌출해 있어 뱀머리와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 수컷이 더 뚜렷하다. 어른벌레는 5~7월에 보이는데 날개편길이가 110~140mm 나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본 나방중 제일 컸다. 유충도 대형종으로 소태나무, 가중나무 등의 잎을 먹는다. 다 자란

애벌레는 먹이식물의 잎을 엮어 회갈색의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오늘은 재수가 대단히 좋은 날이었다.

7.유리산누에나방-*Samia fugax* Drury, 1773

2017년 10월 27일 아침 테니스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앞날개와 뒷날개의 눈알 모양의 무늬가 유리창처럼 맑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어른벌레는 늦은 가을(10~11월)에 출현하는데. 날개편길이는 수컷이 75~90mm, 암컷이 80~110mm 정도이다. 뽕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황철나무, 느릅나무류 등의 잎을 먹는다. 겨울에 나뭇가지에 달린 파란 고치는 ‘팠마구리’ 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실 때 ‘유리나방고치’ 를가지고 오시면, 할머니가 고치 속에다 팠을 넣어 주셨다. 장난감이 없던 어린 시절 이것을 흔들며 달가락 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놀던 기억이 새롭다. 자루가 긴 것이 특징이며 이미 어른벌레가 나온 구멍이 고치 밑에 있다. 알로 겨울을 난다.



〈유리산누에나방〉

〈애벌레가 귀여운 자나방과〉

자나방과의 곤충은 한국에만도 300여종이 있을 정도로 종류가 방대하다. 날씬한 몸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차게 날지 못하고 정지할 때는 날개를 수평으로 펴놓는 것이 특징이다. 주둥이는 있는 것이 보통이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날개가 퇴화되어 없는 것도 있다. 많은 종이 말라 죽은 잎처럼 생겼으나 어떤 종은 색상이 화려하다. 내려앉을 때 이 나방은 배경의 색깔이 자기 색깔과 비슷해 구별이 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떤 종은 뚜렷한 색깔로 자신이 맛이 없음을 포식자에게 경고한다고 한다. 자나방과의 애벌레는 앞다리 2~3쌍이 퇴화되어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손으로 길이를 재는 것 같아 통칭 ‘자벌레’ 라고 부른다. 자가 귀했던 어린 시절 엄지와 검지를 펴서 길이를 재던 생각이 떠올라 애벌레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알·애벌레·번데기·어른벌레를 거치는 갓춘탈바꿈을 한다. 애벌레는 나뭇잎 색깔과 나뭇가지 색깔로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에 따라 풀색의 애벌레는 ‘자나방’, 나뭇가지색의 애벌레는 ‘가지나방’ 이라고 이름 끝에 붙인다.

1. 참빛살얼룩가지나방-*Abraxas latifasciata* Warren, 1894



〈참빛살얼룩가지나방〉

2005년 5월 5일 황성읍 운암정 뒷산에서 색깔이 화려해 눈에 잘 띄는 ‘참빛살얼룩가지나방’ 을 만

났다. 성충은 가을까지 관찰되나 7~8월경 가장 많이 보인다. 몸길이 15~19mm, 날개편길이 37~42mm이다. 애벌레는 노박덩굴잎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뒷노랑점가지나방-*Arichanna melanaria* Linnaeus, 1758



〈뒷노랑점가지나방〉

2010년 6월 22일 운암정 뒷산에서 뒷날개의 특징이 한국명에 반영된 ‘뒷노랑가지나방’을 만났다. 성충은 6~7월, 8월에 2회 출현한다. 몸길이 25~40mm, 날개편길이 30~45mm이다. 더듬이는 수컷이 빗살 모양이고, 암컷은 실 모양이다.

3. 불회색가지나방-*Biston regalis* Moore, 1888



〈불회색가지나방〉

2007년 7월 26일 갑천면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불회색가지나방’을 처음 만났다. 날개의 모양이 물결처럼 아름다운 것이 특징인 성충은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에서 볼 수 있다. 날개편길이는 수컷 50~59mm, 암컷 70mm이다. 야행성으로 불빛에 잘 날아온다. 유충은 느릅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의 잎을 먹는다.

4. 세줄점가지나방-*Chiasmia hebesata* Walker, 1861

2005년 7월 6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앞날개와 뒷날개 모두 뚜렷한 갈색 줄무늬와

많은 점들이 특징인 ‘세줄점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몸길이 20~27mm, 날개편길이 50~60mm이다. 어른벌레는 1년에 1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월 경 깊은 산지에서 발견된다.



〈세줄점가지나방〉

5.노랑띠알락가지나방-*Culcula panterinaria* Bremer et Grey, 1853



〈노랑띠알락가지나방〉

2006년 5월 22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노랑띠알라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흰색 바탕에 갈색 가로 무늬가 특징이다. 날개편길이는 50~58mm 이다. 어른벌레는 6~8월에 나타난다

6. 먹세줄흰가지나방-*Myrteta angelica* Butler, 1881



〈먹세줄흰가지나방〉

2002년 5월 강림면 부곡리에서 ‘먹세줄흰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앞날개에 갈색의 비스듬한 세로줄 무늬가 3개가 특징이다. 몸길이 20mm, 날개편길이가 30mm 이다. 어른벌레는 늦은 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철(7~10월)에 이르기까지 출현하며 주로 깊은 산지에 서식한다. 잘 보이지 않는 나방이다.

7. 흰제비가지나방-*Ourapteryx maculicaudaria* Motschulsky, 1866



〈흰제비가지나방〉

2005년 6월 15일 황성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몸과 날개는 모두 백색인데, 앞뒤 날개에 담흑갈색의 네 개의 세로줄 무늬가 선명하며 꼬리부분에 2개의 흑색점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 ‘흰제비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그후 황성담에서 볼 수 있었다. 제비처럼 멋지고 날씬해서 생긴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이름이다. 날개편길이는 36~54mm이며 더듬이는 수컷은 빗살 모양이고 암컷은 실모양이다. 어른벌레는 6~8월에 출현한다.



〈흰제비가지나방〉

8. 끝짚룩노랑가지나방-*Pareclipsis gracilis* Butler, 1879

2007년 7월 22일 갑천면 병지방리 수련원에서 몸과 날개가 담황갈색으로 희미한 암회색 점이 가로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 '끝짚룩노랑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날개편길이는 30~38mm이고 5월과 7~8월에 나타나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더듬이는 암수가 모두 실 모양이다. 기주식물은 때죽나무이다.



〈끝짚룩노랑가지나방〉

9. 쌍점흰가지나방 *Lomographa bimaculata* Fabricius, 1775

2010년 6월 22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쌍점흰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날개길이는 22~29mm 이다. 성충은 6~8월에 출현한다. 기주식물로는 뽕나무, 자작나무가 있다



〈쌍점흰가지나방〉

10. 귀무늬가지나방-*Eilicrinia wehrlii* Djakonov, 1933



〈귀무늬가지나방〉

2005년 6월 14일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수련원에서 '귀무늬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날개편 길이는 30-31mm가량이다. 중형의 크기이며, 날개는 끝쪽으로 가면서 약간 가늘어진다.

11. 끝갈색가지나방-*lycauges pinguis*Anti Swinhoe, 1902



〈끝갈색가지나방〉

2010년 6월 22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끝갈색가지나방' 을 처음 만났다. 성충은 6월 중순-7월 상순과 8월 하순-9월 상순에 출현. 연 2회 발생. 유충은 뽕나무류 등의 잎을 먹는다.

12. 흰줄푸른자나방-*Geometra dieckmanni* Graeser, 1889

2005년 6월 1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흰줄푸른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몸과 날개는 녹색인데 앞날개에는 흰색의 세로줄이 선명하고 가늘게 나있는 것이 특징이다. 낮은 야산에 서식하며, 몸길이 20mm, 날개편길이 40mm 이다. 어른벌레는 5월~10월에 출현하는데 한여름에는 침엽수

등의 표면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애벌레는 밤나무, 참나무, 신갈나무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줄푸른자나방〉

13. 큰애기물결자나방-*Microlygris complicata* Butler, 1879

2008년 8월 18일 황성읍 운암 정뒷산에서 ‘큰애기물결자나방’을 처음 만났다. 짙은 갈색 앞날개에 물결 같은 흰줄무늬가 특징이다. 몸길이 10~14mm, 날개편길이 24~30mm 이다. 어른벌레는 5~7월에 산지에서 매우 귀하게 볼 수 있다. 다시 만나지 못해 좋은 사진을 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큰애기물결자나방〉

14. 별박이자나방-*Naxa seriaria* Motschulsky, 1866



〈별박이자나방〉

2005년 6월 26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박이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밝은 회색바탕의 날개에 흑갈색의 작은 점이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길이 15~23mm, 날개 편 길이 25~35mm이다. 먹이식물로는 쥐똥나무, 광나무,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라일락 등이 알려져 있다. 연1회 발생한다.

15. 왕무늬푸른자나방-*Ochrognesia difficta* Walker, 1861

2005년 8월 28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왕무늬푸른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뒷날개의 바깥쪽 부분이 누런 백색 바탕에 갈색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다. 어른벌레는 7~9월에 발생하는데 날개편길이는 28~35mm이며, 몸과 날개는 진한 녹색이다. 애벌레는 버드나무, 황철나무 따위를 먹으며 15mm 정도 자라는데 먹이식물의 가지 끝에 붙어 있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이동할 때 몸을 좌우로 흔드는 버릇이 있다.



〈왕무늬푸른자나방〉

16. 줄노랑흰애기자나방-*Scopula superior* Butler, 1878



2008년 6월 22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줄노랑흰애기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앞뒤 날개에 오렌지색 가로선이 여러 개가 달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날개길이 약 20mm이다. 주로 평지의 초원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충은 5~9월에 걸쳐 나타나며 어린벌레는 왕벚나무의 잎을 가해한다.

〈줄노랑흰애기자나방〉

17. 각시톱무늬자나방 - *Pingasa aigner* Prout, 1930

2010년 7월 13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각시톱무늬 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앞날개와 뒷날개를 반으로 나누는 톱니 모양의 세로 선이 특징이다. 날개편길이 36~41mm 이고 날개와 몸 색깔은 회색바탕이다. 산지에 서식하며 어른벌레는 6~7월에 걸쳐 한 번 발생한다.



〈각시톱무늬자나방〉

18. 네눈은빛애기자나방 - *Problepsis diazoma* PROUT, 1938

2005년 8월 30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네눈은빛애기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이름처럼 앞날개와 뒷날개의 4개의 눈 모양의 뚜렷한 무늬가 특징이다. 날개길이 28~34mm. 몸과 날개는 모두 순백색이다. 어른벌레는 6월~7월, 8월~9월에 출현한다.



〈네눈은빛애기자나방〉

19. 톱날푸른자나방-*Timandromorpha enervata* Inoue, 1944

2005년 5월 27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톱날푸른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앞날개 전연이 날개 끝 가까이에서 심하게 휘어지고 날개끝은 낫 모양으로 뾰죽한 것이 특징이다. 성충은 7월에 출현한다. 우화 직후는 몸과 날개색이 아름다운 녹색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색으로 변한다.



〈톱날푸른자나방〉

20. 홍띠애기자나방-*Timandra comptaria* Walker, 1862



〈홍띠애기자나방〉

2008년 8월 25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홍띠애기자나방' 을 처음 만났다. 연한 갈색을 띠는 앞날개 끝부분에서부터 중간 아랫부분을 지나 뒷날개로 이어지는 선명한 적갈색 선 무늬가 특

징이다, 몸길이 20mm, 날개 편 길이 30~50mm이다. 어른벌레는 한여름 중부지방에서 많이 보이며, 애벌레는 버드나무류의 잎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겨울자나방-*Inurois fumosa* Djakonov, 1933



2008년 6월 9일 황성읍 운암정뒷산에서 ‘겨울자나방’을 딱 한번 만났다. 초겨울에 어른벌레로 우화하는 나방으로, 암컷은 날개가 퇴화되어 흔적만 남아 있거나 종에 따라 아예 없기도 하다. 암수 모두 몸 길이가 1센티미터 내외로 작으며, 수컷의 날개 길이는 15~20mm 정도이다. 해가 진 후 암컷이 페로몬을 분비하면 이 냄새에 이끌려 수컷이 찾아와 짝짓기를 한다. 성충은 11월~12월, 2월~3월에 볼 수 있는데 알로 월동한다.

〈앞날개 끝이 꼬부라진 갈고리나방과〉

몸은 가늘고 길며 날개는 나비가 넓다. 몸과 날개는 백색이다. 많은 종이 날개꼭지가 돌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갈고리나방아과 · 멧쟁이갈고리나방아과의 2아과에 13속 18종이 분포한다.

1. 밤색갈고리나방-*Drepana curvatula* Borkhausen, 1790

2004년 8월 26일 2007년 6월 3일 운암정뒷산에서 ‘밤색갈고리나방’을 처음 만났다. 날개편길이 56mm. 성충은 5~9월에 연2회 발생한다. 유충은 오리나무 잎을 먹는 해충이다. 한국의 특산종이다.



〈밤색갈고리나방〉

2. 왕갈고리나방-*Cyclidia substigmata* Hubner, 1831

2007년 6월 3일 운암정뒷산에서 ‘왕갈고리나방’을 처음 만났다. 날개길이 29~36mm이다. 성충은 연 2회 5~6월과 8~9월에 걸쳐 나타나고, 유충은 오리나무 따위의 잎을 먹는데 어린 유충은 잎맥을 남기고 잎살만 먹는다. 먹이가 없으면 흩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잎 2장을 붙이고 그 속에서 여러

마리가 모여 산다. 공격을 받은 나무는 잎맥만 지저분하게 남는다.



〈왕갈고리나방〉

3. 작은민갈고리나방-*Auzata superba* Butler, 1878

2008년 7월 3일 운암정뒷산에서 '작은민갈고리나방' 을 처음 만났다. 날개길이 15~24mm이다. 성충은 6월~8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층층나무의 잎을 먹는다.



〈작은민갈고리나방〉

4. 참나무갈고리나방-*Agnidra scabiosa* Butler, 1878

2006년 6월 20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참나무갈고리나방' 을 처음 만났다. 낮에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날개길이 약 27mm이다. 성충은 5~9월에 나타난다. 유충은 졸참나무 등의 잎을 먹는다.



〈참나무갈고리나방〉

5. 황줄갈고리나방-*Nordstromia grisearia* Staudinger, 1892



〈황줄갈고리나방〉

2008년 5월 8일 갑천면 병지방 청소년수련관에서 ‘황줄갈고리나방’ 을 처음 만났다. 날개길이 11~16mm, 성충은 4~9월에 보인다.

〈나방류 사진 55종을 정리하며〉

나방류는 거의 대부분이 농작물의 해충이기 때문에 나비처럼 사랑 받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나비류에는 ‘붉은점모시나방’ 처럼 환경부지정 보호종이 있지만 나방류는 없다. 오랫동안 없었어야 할 존재로 여겨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특히 박각시류는 대형 나방으로 애벌레가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옛날 참깨밭에 깃망아지가 발생하면 며칠 못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참깨농사를 망치게 되니 온 집안 식구가 총 동원되어 깃망아지를 잡아 냇물에 버렸던 기억이 새롭다. 너무 징그럽고 커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물속에 넣어 죽게 했던 것이다. 지금은 농약의 발달로 참깨밭에서 깃망아지를 보기란 힘들다. 하지만 박각시류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방 사진을 촬영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재미있었던 추억이 되었고 행복했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침 일찍 갑천면 병지방리를 찾아서 수많은 나방을 만났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지만 찾을 때 마다 원인은 모르지만 개체수가 점점 줄어서 안타까웠던 마음도 들었다. 지금은 생각날 때 가끔씩 가보지만 나방보기가 힘들다. 특히 잊을 수 없었던 일은 백두산 숙소에서 ‘작은산누에나방’ 과 ‘밤나무산누에나방’ 을 보았을 때가 제일 기뻐던 것 같다. 같은 장소에서 본 ‘밤나무산누에나방’ 과 ‘작은산누에나방’ 이 날개의 무늬는 같지만 색깔이 서로 다른 것이 많아 놀랐고, 왜 체색의 차이가 생기는지 의문이 생겼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 봤지만 아직도 풀지를 못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어떤 이들은 먹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알 길이 없다.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제품, 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나방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요즘 와서 자원의 귀중함을 알고 해외반출 금지 종에 나방을 포함시켰다는 반가운 소식에 마음을 달랜다.

제4장 파리의 재발견



제4장 파리의 재발견

‘파리’ 하면 귀찮고, 더럽고, 때려잡아야 하는 존재로 알고 집집마다 파리채를 비롯하여 각종 파리잡는 도구를 갖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파리 사진을 촬영하면서 파리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파리가 때려잡아야만 하는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의 청소부로 고마워야 할 존재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횡성지역에서 서식하는 파리의 종류와 특징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는 곤충강의 파리목으로 파리류, 모기류, 등애류, 파리매류 등이 속해 있는데 수십 개의 과에 85,000여 종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견하여 기록한 전체기록 종은 64과에 1,099종이다. 완전변태를 하고 다양한 촉각을 갖고 있다. 가운데 가슴에 한 쌍의 앞날개가 발달하여 있으며, 뒷날개는 가는 막대기모양의 평균곤으로 퇴화되어 나는 기능은 없고 몸의 평형과 나는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겹눈은 큰 편으로 종류에 따라 서로 접해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수컷은 완전히 맞붙고 암컷은 떨어져 있어 암수를 쉽게 구별하기도 한다. 홑눈은 보통 3개이다. 구기는 흡수성이면서 먹이를 빨아 먹기에 알맞으며 가슴은 뚜렷하게 나뉘고 몇몇 절편으로 결합되었다. 다리는 긴 무리와 짧은 무리가 있으며 발목마디는 2~5마디로 끝에 한쌍의 육반(褥盤)이 있다. 배는 12마디로 된 것이 원형이다. 유충은 ‘구더기’ 라고 부르는데 다리가 없는 무각형(無脚型)으로 원통형이나 방추형이다. 입에는 갈고리 같은 한 쌍의 이빨이 있으나 씹을 수는 없고 다만 즙액을 빨아먹게 되어있다. 파리류는 육서 및 수서생활을 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여 인간에게는 경제적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횡성에서 촬영된 파리는 등애류 21종, 파리류 19종, 파리매류 5종이었다.

〈색깔이 화려한 등애류〉

파리목 중 색깔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벌과 비슷해서 별로 착각하기도 한다.

1. 가로무늬꽃등애-*Ischyrosyrphus laternarius* Müller, 1776-꽃등애과



‘가로무늬꽃등애’

2007년 7월 18일 횡성읍 북천리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2~13mm인 ‘가로무늬꽃등애’를 처음 만났다. 배부분에 있는 굵은 가로띠무늬가 특징적이어서 ‘가로무늬꽃등애’라는 이름이 붙었다. 1년에 3~4회 정도 발생하며, 애벌레는 땅속에서 번데기가 된 후 겨울나기를 한다. 애벌레는 작물에 모이는 해충인 진딧물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익충으로 분류된다. 어른벌레는 낮은 산지나 초지의 주로 흰꽃에 많이 모이며 자연계에서 화분매개충의 역할을 한다. 한여름에 관찰되지만 자연계에서 밀도는 높지 않다.

2. 꼬마꽃등애-*Sphaerophoria menthastri* Linnaeus, 1758-꽃등애과



〈꼬마꽃등애〉

2007년 7월 3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꼬마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성충은 몸길이 8~9mm인데 4~9월에 나타나며 땅벌처럼 생겼는데 꽃가루를 먹어 화분매개충의 역할을 한다.

3. 꽃등애-*Eristalis tenax* Linnaeus, 1758-꽃등애과



〈꽃등애〉

2010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꿀벌처럼 생겼는데 몸의 길이는 14~16mm이며, 배의 체절에 검은 띠가 있다. 성충은 4~10 월에 나타나 꽃의 꿀을 빨아 먹고 살아 가지만 알을 낳기 위해 오물에 모임으로 전염병을 매개한다. 유충은 더러운 물에 사는데 ‘꼬리구더

기'라고 부른다. 몸길이보다 꼬리가 길며 꼬리 끝의 호흡관으로 호흡한다. 사육조의 먹이나 낚시미끼로 쓰기위해 사육하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4. 끝노랑꽃등애-*Dideoides coquiletti* Van der Goot, 1964-꽃등애과



〈끝노랑꽃등애〉

2007년 9월 2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끝노랑꽃등애'를 처음 만났다. 몸의 길이는 16~17mm 정도이며 날개는 약간 흐리고 앞 가장자리는 황갈색이다. 다리는 가늘고 황갈색이다. 꽃에서 꽃으로 날썰게 떠돌아다니므로 떠돌이파리(hover flies)라고도 한다. 꿀과 꽃가루를 잘 먹는다. 암컷은 진딧물을 먹으면서 약 500개 알을 진딧물 밀도가 높은 곳에 낳는데 2~3일 후 부화한다. 유충은 다리가 없는 구더기모양이며, 성충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린다. 약 300~500마리의 진딧물을 먹고 자란 유충은 번데기가 될 때에는 땅으로 떨어져 고치를 만든다고 한다.

5. 노랑배수중다리꽃등애-*Mesembrius flavices* Matsumura, 1905-꽃등애과



〈노랑배수중다리꽃등애〉

2008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노랑배수중다리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약 10-14mm 이며 어른벌레는 4~8월에 야산 늪지의 풀밭과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6. 덩굴꽃등애-*Eristalis arbustorum* Linnaeus, 1758-꽃등애과



2008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덩굴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강 주변의 꽃들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벌처럼 생겼다. 몸길이는 11mm 정도이며, 어른벌레는 7~10월에 출현한다. 봄에서 가을까지 항상 흔히 발견되지만 특히 가을에 국화과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어른벌레는 꽃가루를 먹는다. 유충은 오염된 물속에서 유기물질을 먹는다.

7. 배짧은꽃등애-*Eristalis cerealis* Fabricius, 1805-꽃등애과



〈배짧은꽃등애〉

2010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배짧은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12mm 정도이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나타나며 흑색의 세로줄이 뚜렷하다. 주로 꽃이 핀 들판이나 숲에 산다. 꽃에

앞아있으면 꿀벌로 착각할 정도이다. 끈적거리는 주둥이로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준다.

8. 수선화꽃등애-*Merodon equestris* Fabricius, 1794-꽃등애과



〈수선화꽃등애〉

2005년 5월 31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수선화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13~14mm이다. 어른벌레는 5~7월에 나타나며 유충은 백합, 수선화 등의 구근해충이다.

9. 수염치레꽃등애-*Chrysotoxum festivum* Linnaeus, 1758-꽃등애과



〈수염치레꽃등애〉

2008년 7월 1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수염치레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12~14mm. 낮은 산자나 초지 애벌레는 농작물의 해충인 진딧물을 잡아 먹는다. 어른벌레는 주로 흰 꽃을 좋아하고 여러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는 화분매개충이다.

10. 수중다리꽃등애-*Helophilus virgatus* Linnaeus, 1758-꽃등애과

2008년 5월 5일 원주시 치악산 입구 정은사에서 '수중다리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12~14mm이며, 어른벌레는 4~10월 나타나 낮은 산이나 들관에 핀 꽃에서 꿀을 빨며 살아간다. 가슴에 황색 세로줄이 2줄 있으며 가장자리는 황색 털로 둘러싸여 있다. 다리는 검은색이고, 뒷다리 허벅지가 많이 부풀어 있어서 수중다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성충은 물가에 알을 낳으며, 부화한 애벌레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고인 물에서 생활한다. 애벌레는 배 끝에 숨관이 있어서 숨을 쉴 때 물 밖으로 숨관을 내어서 숨을 쉰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수중다리꽃등애〉

11. 스즈키긴꽃등애-*Spilomyia suzukii* Matsumura, 1916-꽃등애과



〈스즈키긴꽃등애〉

2008년 10월 1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스즈키긴꽃등애' 를 만났다. 성충의 몸길이는 18~25mm 정도이다. 몸은 흑갈색을 띠고 머리는 반구형, 오렌지색을 띤다.

12. 호리꽃등애-*Allograpia balteatai* De Geer, 1776-꽃등애과



〈호리꽃등애〉

2007년 8월 13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호리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0~12mm이며, 낮은산에서 볼 수 있다. 5~10월에 나타나 꽃에서 꿀을 빨며, 어른벌레로 월동한다. 애벌레는 진딧물을 먹어 농사에 이로운 곤충이다.

13. 알통다리꽃등애-*Syritta pipiens* Linnaeus, 1758



2014년 10월 23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알통다리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두꺼운 알통을 가진 허벅지 때문에 알통다리라는 수식이 붙었으며, 정지 비행을 잘하고, 성충은 꽃의 꿀을 빨아먹는다.

14. 어리대모꽃등애-*Volucella pellucens tabanoides* Motschulsky, 1859-꽃등애과



〈어리대모꽃등애〉

2017년 9월 3일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에서 ‘어리대모꽃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6~18 mm이다. 몸은 크고 광택이 나는 흑색으로 검정꽃등애와 비슷하나 머리의 겹눈 사이는 암컷은 앞면이 오렌지색이고 수컷은 약간 나비가 넓다. 성충은 5~9월에 출현하며, 들관이나 숲의 꽃에 잘 모여든다.

15. 노랑등애-*Chrysopilus sauteri* Bezzi, 1907-노랑등애과



〈노랑등애〉

2008년 5월 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노랑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의 길이는 15mm 정도이며, 누런 갈색이다. 성충은 물가 부근의 숲에서 발견되며, 작은 벌레 등을 잡아먹는다. 몸은 가늘고 뒤쪽으로 좁아졌으며 머리는 비교적 작다.

16. 남색멋등애등애-*Sargus nipponensis* Bigot, 1879-등애등애과



〈남색멋등애등애〉

2011년 8월 2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남색멋등애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11~15mm 이며, 두부는 흑청색으로 앞이마의 밑틀 양측에 1개의 작은 황백색무늬가 있으며, 가슴과 복부 배면은 광택이 있는 검은 청동색이 특징이다.

17. 동애등애-*Ptecticus tenebrifer* Walker, 1849-동애등애과

2007년 7월 3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동애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13~20mm이며, 몸빛은 흑색이다. 어른벌레는 행동이 둔하고 느려 공중을 나는 도중 다른 개체와 부딪치는 습성이 있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많이 나타나 오물이나 화장실 주위에 많이 모여 산다. 파리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라지만 파리와 달리 스스로 항균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오염의 전파로부터 안전한 곤충이다. 동애등애의 애벌레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연구에 의하면 ‘애벌레 1마리가 1일 2~3g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성충 1마리는 1000개 알을 산란 한다. 또 유충에 의해 처리된 남은 분해산물은 양질의 퇴비, 양계, 양식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자연순환농업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한다. 성산읍 신천리는 지난해에 동애등애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분해와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생활 실천마을(Green마을)’ 평가에서 2010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애등애 애벌레는 필수아미노산과 지방산을 포함한 단백질이 풍부해 생물먹이로 활용되고 있다.



〈등애등애〉

18. 황등애붙이-*Atylotus horvathi* Szilady, 1926-등애과



〈황등애붙이〉

2007년 8월 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황등애붙이’를 처음 만났다. 황등애붙이는 생김새가 파리처럼 보이지만 등애과의 곤충이다. 몸길이 12~14mm이며 몸빛깔은 암컷은 황회색, 수컷은 회백색이다. 성충은 8월에 보이는데 흔한 종이다. 암컷은 소, 돼지 등 동물의 피를 빨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염병을 매개하지만 수컷은 식물의 꽃가루나 수액을 빨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식물에 수분을 돕는다. 물가 주변 식물에 알을 낳는다.

19. 왕소등애-*Tabanus chrysurus* Loew, 1858-등애과

2009년 7월 2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왕소등애’를 처음 만났다. 눈이 크고 강해보이는 주둥이에 몸통도 커서 무섭게 느껴지는 왕소등애는 몸길이 16~18mm이다. 성충은 4~9월에 나타나 들관이나 마을에서 소나 말 등 가축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유충으로 월동한다.



〈왕소등애〉

20. 나나니등애-*Systropus nitobei* Matsumura, 1916-재니등애과



〈나나니등애〉

2007년 8월 1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나나니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3~15mm 이며, 검은색이다. 배는 누런 갈색이고 가슴등판은 세 줄의 황색 인분(鱗粉)이 세로로 있다. 성충은 7~9월 나타나며 산 속의 수목이 우거진 곳에 산다.

21. 닳은큰재니등애 - *Ligyra similis* Coquillett, 1898-재니등애과



〈닳은큰재니등애〉

2005년 5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닳은큰재니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2~14mm이다. 어른벌레는 7~9월 나타나는데 몸은 가늘고 길며 다리는 누른빛이고 몸의 등빛깔은 검정색, 배의 빛깔은 황갈색이다.

22. 빌로드재니등애-*Bombylius major* Linnaeus, 1758-재니등애과

2005년 4월 2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빌로드재니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7~11mm이며 들판, 숲에서 산다. 연2회 ,4~10월에 발생하는데 성충으로 월동한다. 온몸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털로 덮였으며, 비행술이(정지비행, 급선회) 뛰어나다.



〈빌로드재니등애〉

23. 탕재니등애-*Anthrax jezoensis* Matsumura, 1916-재니등애과



〈탕재니등애〉

2007년 5월 2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탕재니등애’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9~15mm이다. 성충은 5~7월 나타나는데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다. 성충으로 월동 한 뒤 봄부터 활동을 시작 한다 흰색 꽃에 주로 모여 긴 주둥이로 꽃 속의 꿀을 빨다. 보통 높이 비행하지 않으며 꽃 주변에서 한동안 정지비행을 한 후 꽃에 내려앉는다.

〈귀찮고 더러운 파리류〉

1. 연두금파리-*Lucilia illustris* Meigen, 1826-검정파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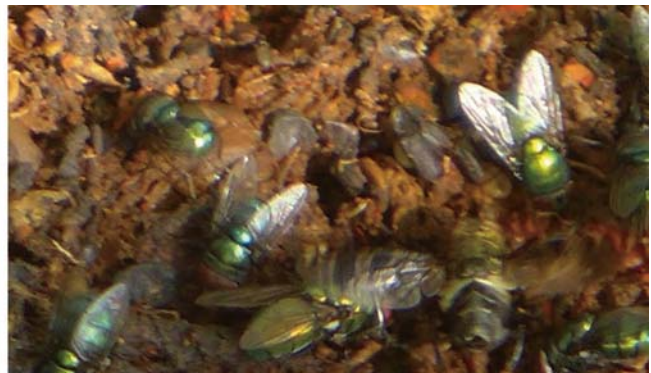
2005년 9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연두금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5~9mm이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볼 수 있으며 주로 낮에 활동하며 사람,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고기, 썩은 과일 등을 먹는다.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파리의 소화관으로 들어가거나 몸에 붙어 전파된다. 연두금파리가 속하는 금파리속(*Lucilia*)의 일부 종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상처나 궤양 또는 귀나 코 등에 알을 낳는다. 그곳에서 부화된 애벌레는 조직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갇아먹는 '승저증' 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더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두금파리〉



〈연두금파리 2〉



〈오물에 모인 연두금파리〉

2. 국화과실파리-*Campiglossa hirayamae* Matsumura, 1916-과실파리과

2007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국화과실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3.5~5mm 정도의 매우 작은 파리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있다. 애벌레는 먹이식물의 내부에서 잎살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식물에 해를 주며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먹이식물로는 동백나무·국화·산국이다.



〈국화과실파리 1〉



〈국화과실파리 2〉

3. 벼줄기굴파리-*Chlorops oryzae* Matsumura, 1995-굴파리과

2007년 7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벼줄기굴파리' 를 처음 만났다. 어른벌레는 5월 중·하순, 7월 상·중순, 9월에 연 3회 발생하는데 몸길이는 암컷이 2.5mm, 수컷이 2.1mm정도이며, 몸 전체

가 황색이다. 옛날에는 벼의 주요 해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벼줄기굴파리〉

4. 노랑털기생파리-*Servillia luteola* Coquillett, 1898-기생파리과



〈노랑털기생파리1〉

2007년 7월 8일 황성읍 승지봉등산로에서 ‘노랑털기생파리’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약 14~16mm로서 누런빛 털이 많고 몸이 뚱뚱한 것이 외형적인 특징이다. 어른벌레는 4~10월 나타나며 산에 피어있는 꽃에 잘 모인다. 주로 산에서 나방류 유충의 등에 알을 낳아 붙여서 유충이 기생하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는 파리류로 알려져 있다.



〈노랑털기생파리 2〉

5. 뒤병기생파리-*Tachina jakovlevii* Portschinsky, 1882-기생파리과

2008년 5월 2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뒤병기생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0~18mm 앞가슴 등판은 옅은 황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센털이 있다. 배부분은 검은색 바탕에 연한 노란색의 가로 줄 무늬가 2줄 있으며 짙은 갈색의 센털이 뺨뺨하게 나 있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볼 수 있고, 애벌레는 나비류의 몸속에서 기생생활을 하면서 자란다. 식성이 좋아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거나 잘 먹으며 특히 꽃가루나 꿀을 좋아한다.



〈뒤병기생파리 1〉



〈뒤병기생파리 2〉

6. 노랑박기생파리-*Cylindromyia pandulata* Matsumura, 1916-기생파리과

2010년 7월 17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노랑박기생파리’ 를 처음 만났다. 날개죽지가 노랑박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몸의 길이는 10mm내외로 작은 편이며 호리호리한 몸매를 갖고 있다. 애벌레는 무당벌레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노랑박기생파리〉

7. 빨들파리-*Sepedon aenescens* Wiedemann, 1830-들파리과



〈빨들파리〉

2007년 7월 2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빨들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9~11mm 이다. 애벌레는 수서생활을 하며 육식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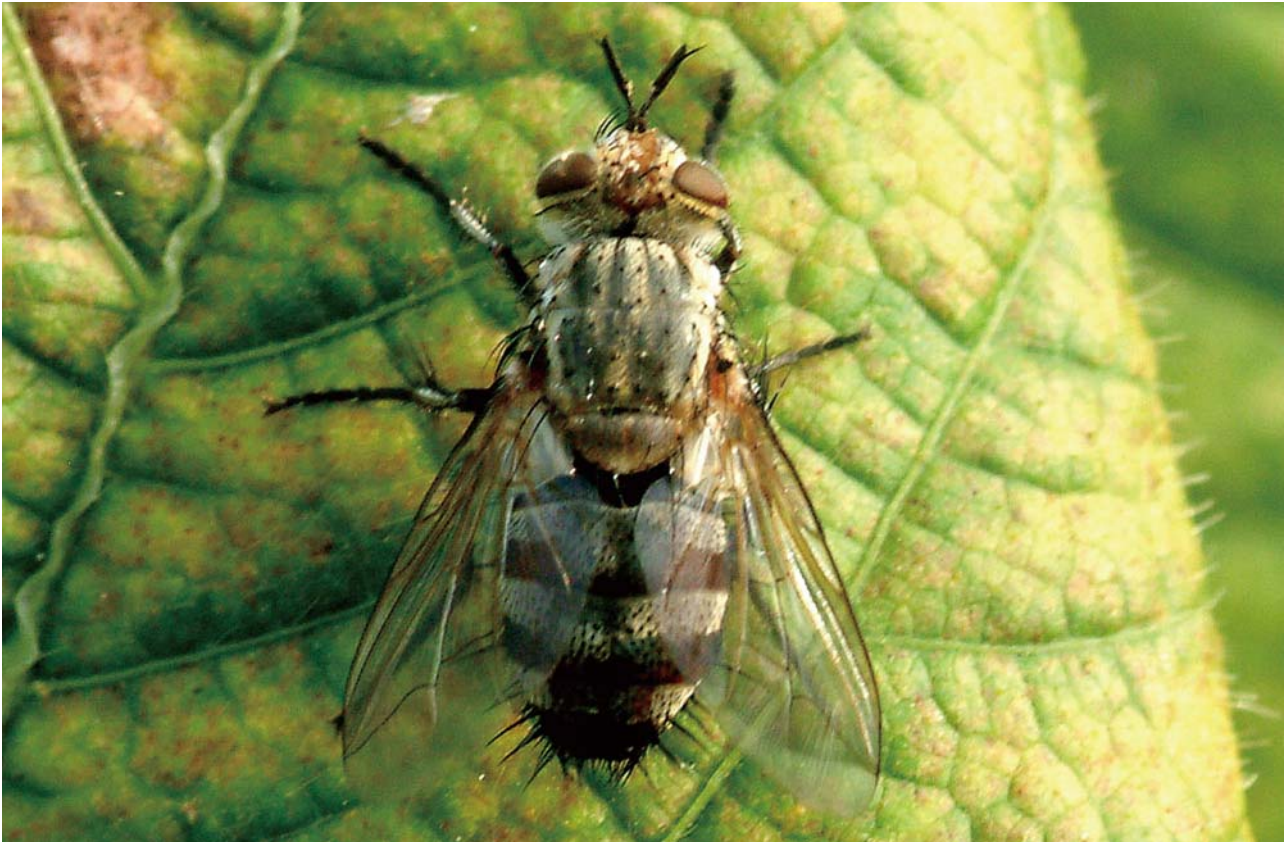
8. 똥파리-*Scatophaga stercoraria* Linnaeus, 1758-똥파리과



〈똥파리〉

2007년 10월 1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똥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약 10mm이며 몸빛깔은 누렇고 머리의 양쪽 겹눈은 갈색이며 이마는 오렌지색을 띤다. 숲이 우거진 산에서 이른 봄과 초가을에 많이 발견되며, 동물과 사람의 분(糞)에 모여든다. 애벌레는 돼지·소 등의 가축 똥이나 퇴비에서 발생하고, 어른벌레도 같은 장소에 모인다. 그러나 어른벌레는 포식성으로, 작은 곤충의 체액(體液)을 빨아먹는다

9.검정불기쉬파리-*Helicophagella melanura* Meigen, 1826-쉬파리과



〈검정불기쉬파리〉

2007년 7월 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검정불기쉬파리' 를 처음 만났다. 크기 7~13mm 이며 사람이나 동물의 똥, 죽은 동물과 썩은 물질, 쓰레기등에 잘 모인다.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할 파리다. 야외에 나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른벌레는 4월에서 10월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낮에 활동하고, 집 주위와 산, 들의 쓰레기나 더러운 오물 주위에 다른 파리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른벌레는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동물질에 모임으로 전염성 박테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위생해충이다. 애벌레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에서 자라는데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본래 쉬파리과 파리들은 알을 낳지 않고 뱃속에서 알을 품어 구더기를 부화시킨다. 그러다가 적당한 산란터가 보이면 알 대신에 구더기를 낳는데, 좀 더 높은 번식확률을 위한 파리만의 생존방법이다. 이런 구더기를 뱃 파리를 파리채로 잡게 될 경우 살아있는 구더기가 뱃속에서 나와 기어다니게 되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큰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10. 날개알락파리-*Prosthiochaeta bifasciata* Malloch, 1987-알락파리과



〈짜짓기 중인 날개알락파리〉



〈날개알락파리 1〉

2005년 6월 8일 횡성읍 군청뒤테니스장에서 '날개알락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0mm이며 머리는 짙은 오렌지색이고 날개는 그물망 같은 흑색무늬를 갖는다. 날개에 있는 얼룩무늬와 돼지코처럼 생긴 입이 앞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주둥이가 특징이다. 짹짹기를 하며 입맛춤을 하는 재미있는 파리다.

11. 장다리파리-*Dolichopus nitidus* Fallén, 1823-장다리파리과



〈장다리파리〉

2005년 9월 7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장다리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5~6mm이다. 몸빛깔은 청색 또는 남청색으로 금속성광택이 난다.

12. 얼룩장다리파리-*Mesorhaga nebulosus* Matsumura, 1935-장다리파리과

2007년 8월 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얼룩장다리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약 6mm이다. 이마는 넓고 광택이 있는 초록색인데 뒷머리와 얼굴은 백색 가루로 덮였다. 더듬이는 흑색이며 주둥

이는 황색이고 얼굴 아랫면에 백색 털이 많다. 가슴등판은 금빛이 나는 초록색이고 앞 가장자리는 약간의 백색가루로 덮여 있다.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맥은 연한 갈색인데 바깥가장자리의 앞 절반과 가로맥 주위는 암색이다. 평균곤은 황색이다.



〈얼룩장다리파리〉

13. 춤파리-*Euempis flavobasalis* Matsumura - 춤파리과



〈춤파리 1〉



〈춤파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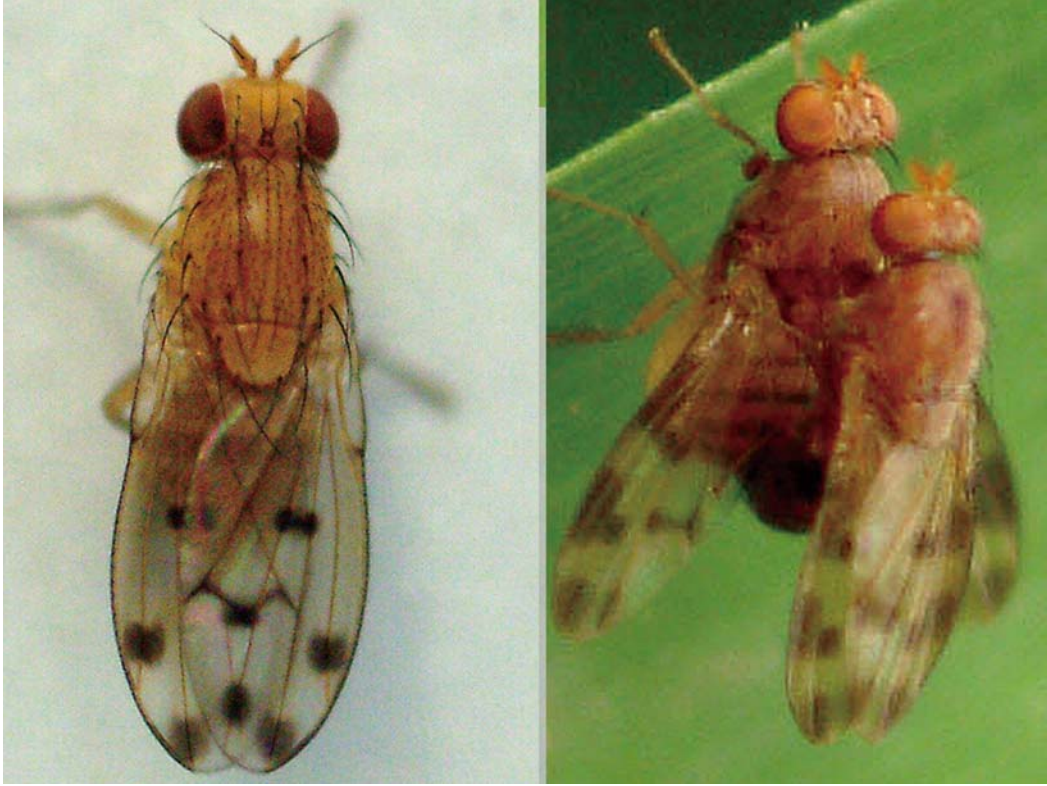
2008년 6월 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춤파리’를 딱 한 번 만났다. 춤파리들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의 행동으로 먹이를 잡아와 선물을 하는데 수컷의 앞다리에서 뽑은 하얀 실로 포장하는 종과 포장하지 않고 먹이를 가져오는 종 등 다양하다. 그러나 먹이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녀석은 자신의 분비물을 포장하여 암컷에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14. 꼬리꼬마큰날개파리-*Homoneura spinicauda* Sasakwa and Ikeuchi, 1982-큰날개파리과



〈꼬리꼬마큰날개파리〉

2007년 7월 3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꼬리꼬마큰날개파리’를 처음 만났다. 체장 3.7~4.6mm. 몸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며 부분적으로 흑갈색인 부분이 있다. 성충은 4~10월에 볼 수 있다.



15.검털파리-*Bibio tenebrosus* Coquillett, 1898-털파리과



〈검털파리〉

2008년 6월 9일 갑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검털파리'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약 11~14mm이며 수컷이 암컷보다 작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지만 머리와 가슴은 광택이 있으며 날개는 어두운 회색이다. 주로 다양한 풀 위에 매달려 있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많으며 행동이 매우 느리

다. 죽은 개체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바람이나 빗물을 따라 낮은 곳에 모여 있는 경우도 많다.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동안 들판이나 숲 가장자리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행동이 느리다보니 교미중인 성충이 많이 발견되며 외국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lovebug' 이라고도 한다. 애벌레는 적당하게 썩은 식물질이나 짐승의 배설물, 포아풀과 식물과 야채 등의 뿌리를 먹고산다. 초본들과 잡목들이 썩어 부패한 식물질을 먹는 곤충들에게는 대량발생과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 애벌레로 월동하며 이듬해 성충으로 우화한다.

〈파리잡아먹는 파리매류〉

1.검정파리매-*Machimus scutellaris* Coquillett, 1898-파리매과



〈검정파리매의 먹이활동 1〉



〈검정파리매 1〉

2007년 7월 1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검정파리매'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는 22~25mm이며, 몸빛은 검다. 가슴의 등 면에 두 줄의 세로띠가 있다. 사냥솜씨가 대단해서 잠자리, 배추흰나비, 나방,

꽃매미, 파리 따위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산다.

2. 광대파리매-*Neoitamus angusticornis* Loew, 1858-파리매과



〈광대파리매〉

2008년 6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광대파리매’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22~25mm 정도이며 산기슭이나 들판에 산다. 황갈색으로 배가 훌쭉하고 길게 생긴 성충은 4~6월에 나타나는데 매미나 팔랑나비의 어른벌레를 잡아먹는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3. 왕파리매-*Ommatius chinensis* Fabricius, 1794-파리매과



〈왕파리매〉

2008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왕파리매'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20~28mm이며 숲, 들관, 개울가에 산다. 7~8월에 성충이 나타나는데 몸에 털이 많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무서운 사냥꾼답다. 날아다니는 곤충을 새매가 나는 새를 공중에서 낚아채듯 사냥한다. 사냥한 먹이를 먹으며 짹짹 기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4. 쥐색파리매-*Philonicus albiceps* Meigen, 1820-파리매과



〈쥐색파리매〉

2005년 9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쥐색파리매'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15~20mm 정도이며, 5~8월에 성충이 출현한다. 몸은 회색, 배는 은빛이다.

5. 파리매-*Promachus yesonicus* Bigot, 1887-파리매과



〈파리매1〉



〈파리매〉

2007년 6월 8일 황성읍 섬강둔치에서 ‘파리매’ 를 처음 만났다. 몸길이 25~28mm 정도이며, 성충은 6~8월에 주로 들관이나 숲에서 파리, 밀들이, 벌, 풍뎅이 등 작은 곤충류를 사냥한다. 수컷은 복부 꼬리 끝에 백색 털다발이 있고 암컷은 꼬리 끝 두 마디가 청람색 광택이 난다.

〈파리의 재발견을 마치며〉

그동안 촬영한 파리의 이름과 생태를 알아보고 분류하는 동안 파리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편견을 바꾸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파리에 대한 재발견을 한 셈이다. 파리는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며,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유용하며, 파리는 박멸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잘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파리는 똥과 죽은 동식물로 넘쳐나는 지구를 깨끗이 청소하는 자연의 청소부이고 또 벌이나 나비처럼 꽃과 꽃사이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받이를 해주는 훌륭한 농사꾼이며, 썩은 시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여드는 파리의 종류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파리종의 구더기는 살아있는 조직은 해치지 않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출하여 괴사조직을 녹임으로써 괴사조직을 제거하며, 괴사조직을 먹이로 취하는 환경 때문에 Phaeni (Lucilia) Sericata 의 구더기는 미생물과 독에 대항하는 생존체계로 진화되었다. 따라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효과가 좋다고 한다. 앞으로 파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 인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5장 지독한 방귀벌레
노린재 무리

제5장 지독한 방귀벌레 노린재 무리

누구나 싫어하는 벌레가 있다면 그 벌레는 바로 노린재 일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지독한 냄새 때문이다. 어릴 때 예쁜 벌레를 붙잡아 가지고 놀았는데 손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손을 씻고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고 ‘이 녀석 노린재를 만졌구나. 그거 만지면 삼년동안 재수 없단다.’ 하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노린재라는 벌레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벌레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또 한 번은 하교 중 잘 익은 오디를 게걸스럽게 따먹었는데 이상한 맛이 있어 빨아보니 벌레가 나왔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벌레가 노린재였다. 누구나 어릴 때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일 것이다.

벌레사진을 정리하다보니 노린재가 의외로 많다는 것과 무늬가 예쁜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린재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노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 라는 우리나라 말에서 이름이 생긴 노린재는 곤충강 노린재목에 속하는데 노린재목의 학명은 Hemiptera이며 한자로는 반시목(半翅目)이라고 한다. 날개의 절반은 딱딱하고 절반은 막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전 세계에 35,000여 종, 우리나라에도 600여 종이 있으며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몸길이는 1.5~65mm에 이르며, 몸의 모양도 판 모양, 긴 막대 모양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더듬이는 실 모양으로 길고 보통 4~5마디인데 땅에서 사는 종류는 길고 물속에 사는 종류는 짧다, 주둥이는 뾰족하여 찢어서 빨아먹기 좋게 생겼다. 겹눈은 대개 크고 잘 발달되었으며 홑눈은 2개이거나 없다. 노린재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가운데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노린내가 나는 진을 내보내는 구멍이 있어 적이 나타나면 냄새를 피운다. 또한, 노린재가 집단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냄새의 강약으로 분산을 재촉하는 경계 신호가 되기도 하고, 무리를 모이도록 하는 유인 물질이 되기도 한다. 냄새 즉 분비물의 성분은 헥사놀(hexanol)과 옥시헥사놀(oxo hexanol)이라 불리는 불포화 알데히드로 휘발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노린재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등에 역삼각형으로 된 작은 방패판(소순판)이 있다는 것이다.

어미는 늦은 봄에 나뭇잎이나 풀잎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나온 약충-若蟲(불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의 유충)은 4~5번 허물을 벗는데 허물을 벗을 때 마다 몸이 커지며 자라서 번데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성충이 되는 3단계 불완전변태(不完全變態)를 한다.

노린재는 채소나 나뭇잎의 즙을 빨아 먹어 산림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것도 있다. 물속에 사는 것, 땅 위에 사는 것, 물 위에 사는 것, 물가에 사는 것 등 종류에 따라 다르다.

황성에서 주로 촬영한 노린재는 10과 37속 47종이다. 과별로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인용하였다.

〈화려한 광대노린재과〉

시골장터에서 엇을 파는 광대를 떠오르게하는 광대노린재과의 곤충들은 자신을 천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화려하게 진화시켜 온 녀석들이다. 요즈음에는 화려한 색상과 무늬로 관상가치가 높아 관심을 받는데 우리나라에는 큰광대노린재, 광대노린재, 방패광대노린재, 긴광대노린재, 도토리노린재 등이 있으며 종류는 많지 않다.

1. 도토리노린재-*Eurygaster testudinaria* Geoffroy 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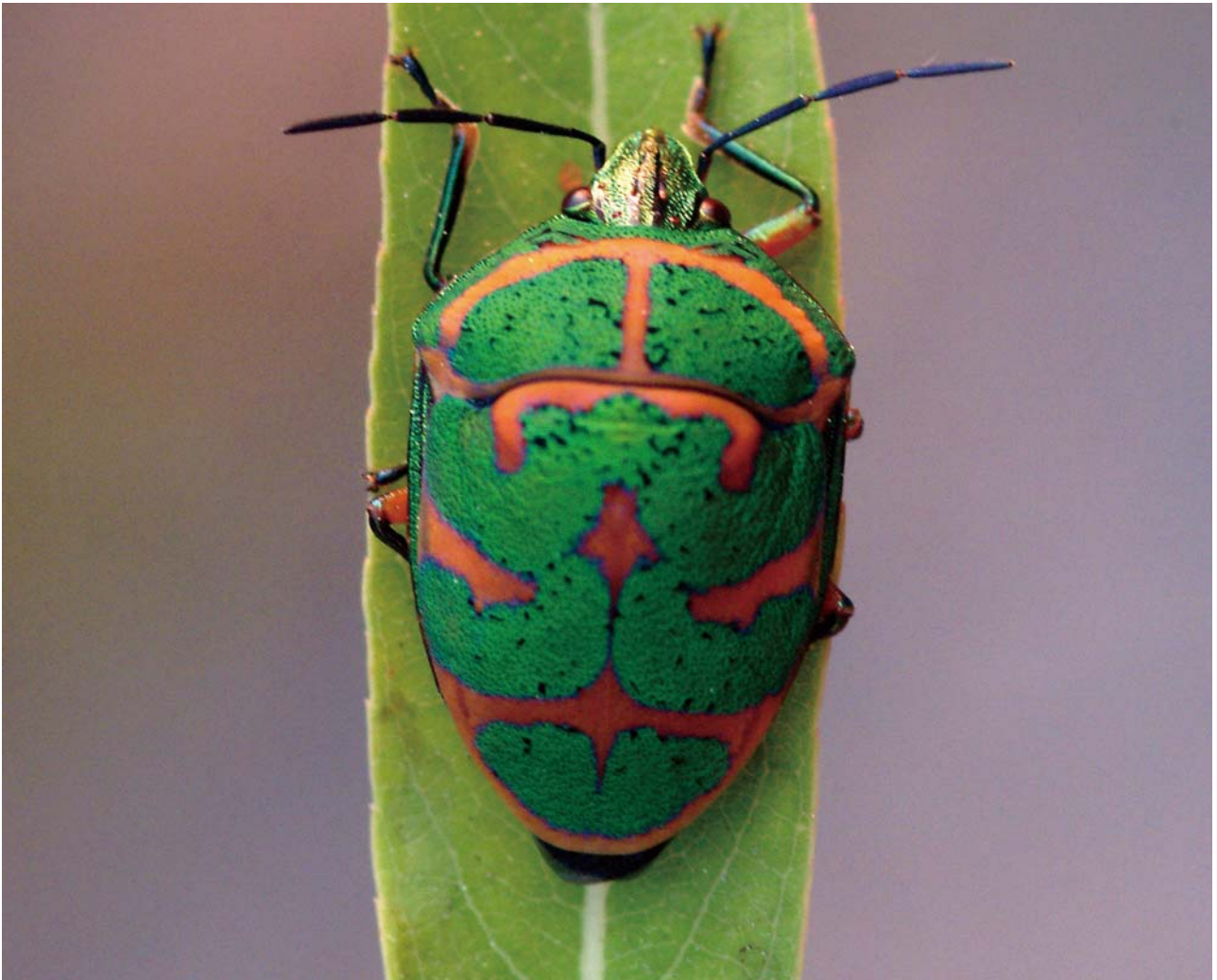
〈따논 딸기에 날아 온 도토리노린재〉



〈딸기즙을 빨아먹는 도토리노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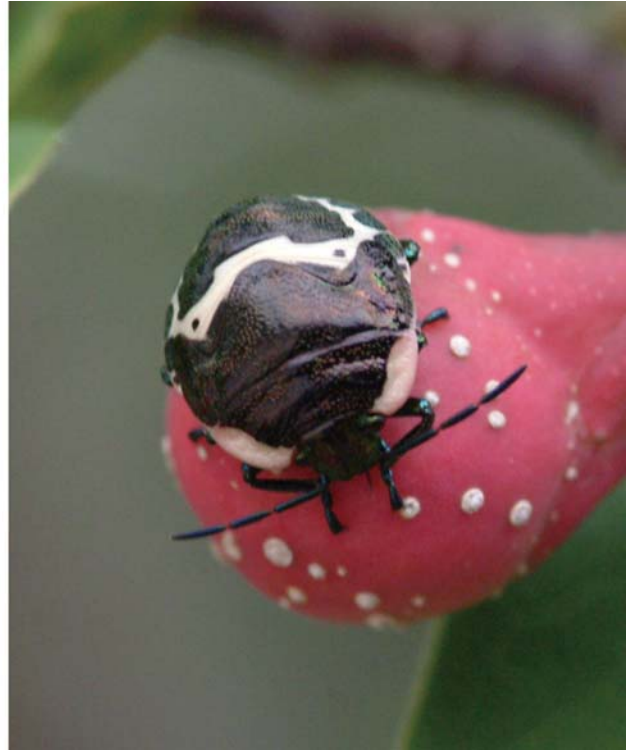
2005년 7월 19일 섬강둘레길을 걷다가, 곰의딸기가 탐스러워 뺏는데 어디서 노린재가 날아와 앉아있었다. ‘아! 바로 이놈이구나. 어렸을 때 먹었던 노린재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딸기나무에 노린재가 붙어서 딸기 즙을 빨아먹고 있었다. 화려한 색상을 갖고 있진 않지만 광대노린재과로 분류되는데, 몸길이 9~11mm 정도이다. 등면의 빛깔은 거의 균일하나 연한 갈색부터 진한 갈색까지 개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몸 빛깔 때문에 ‘도토리노린재’ 라는 이름이 붙었다. 7월에 성충이 나타나는데, 여름과 가을에는 억새류의 이삭에 많이 모인다. 성충으로 월동해 이듬해 봄에 나타날 때에는 포아풀과 식물 등의 잡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 광대노린재-*Poecilocoris lewisi* Esaki, 1935



〈광대노린재 성충〉

2005년 5월 20일 우천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목련나무 앞에서 알껍데기와 부화한 약충이 열댓 마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보니 약충들이 달아나서 몇 마리 남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목련나무 빨간 열매에 약충들이 모여 즙을 빨아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성



〈광대노린재 약충〉



〈알에서 부화한 광대노린재 약충〉

충을 관찰 할 수 있었지만 이 약충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광대노린재 약충이라는 걸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약충과 성충의 무늬와 색깔이 너무 달라 광대노린재 약충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이다. 몸길이 17~20mm정도이며, 몸의 등 면이 금속광택이 나는 황록색 바탕에 주황색의 줄무늬가 있지만 금속광택이 나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 줄무늬가 있는 녀석들도 있다. 주로 숲이나 들

판의 수풀에 살며 약충이나 성충 모두 식물의 즙액을 빨아 먹는 초식성 곤충이다. 등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목련, 노린재나무의 열매 등에서 발견되는데. 먹이를 많이 먹은 뒤에 낙엽 밑에서 약충으로 월동한다. 월동한 유충은 5월경에 성충이 되며 옆에 나란히 알덩어리를 낳는다. 성충은 5월부터 8월까지 볼 수 있다. 광대노린재는 몸 안에 강한 신맛이 나는 유독물질을 저장하며 죽을 때도 냄새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들을 잡아먹은 새 등의 포식자는 이 신맛에 크게 놀라 다음부터는 이들을 피한다.

3. 큰광대노린재-*Poecilocoris splendidulus* Esaki, 1935



〈큰광대노린재 성충〉



〈무광택 큰광대노린재 성충〉

2013년 8월 23일 ‘큰광대노린재’ 를 만났을 때가 제일 기뻐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색깔이 나는 보석같은 애벌레가 신비했다.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가 나타나 빨강, 녹색, 보라 색등 마치 무지개를 보는 느낌을 갖게 된다. 횡성읍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 다양한 모습을 촬영했다. 성충은 몸길이 17~19mm정도인데 몸빛깔은 금록색이며 보랏빛을 띤 홍색의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곤충이다. 광택형과 무광택형이 있다. 약충들이 허물벗는 모습과 약충들의 성장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신이 났다. 종령 약충은 너무 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보석을 대하는 듯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보석벌레’ 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색상이 나오는 재미 있는 벌레였다. 5월에 약충이나 성충은 회양목의 새순에서 즙액을 빨아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충은 5월부터 7월까지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석회암이 잘 발달된 정선, 영월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회양목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춘천, 홍천지역에서도 발견이 된다. 이것은 나무가 인위적으로 이동이 될 때 알이나 유충이 붙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다. 약충으로 월동한다.



〈큰광대노린재 약충〉

〈큰광대노린재 약충의 허물벗기〉



〈보석처럼 빛나는 큰광대노린재 약충〉

〈큰광대노린재의 짝짓기〉

〈몸이 긴 긴노린재과〉

노린재 무리중 작은 크기에 속하며, 모양과 색상이 다양한데, 국내에는 81종이 알려져있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1. 더듬이긴노린재-*Pachygrontha antennata* Uhler, 1860

2005년 7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더듬이가 길어서 '더듬이긴노린재'를 만났다. 몸길이 9mm정도이며 몸빛깔은 암갈색을 띠고 광택이 있다. 머리는 암갈색으로 점들이 성기게 나 있다. 다리는 앞다리 넓적마디의 알통이 흑갈색으로 부풀어올라 있고 안쪽에 날카로운 이빨 모양의 돌기가 많다. 봄에서 가을까지 강아지풀이 있는 곳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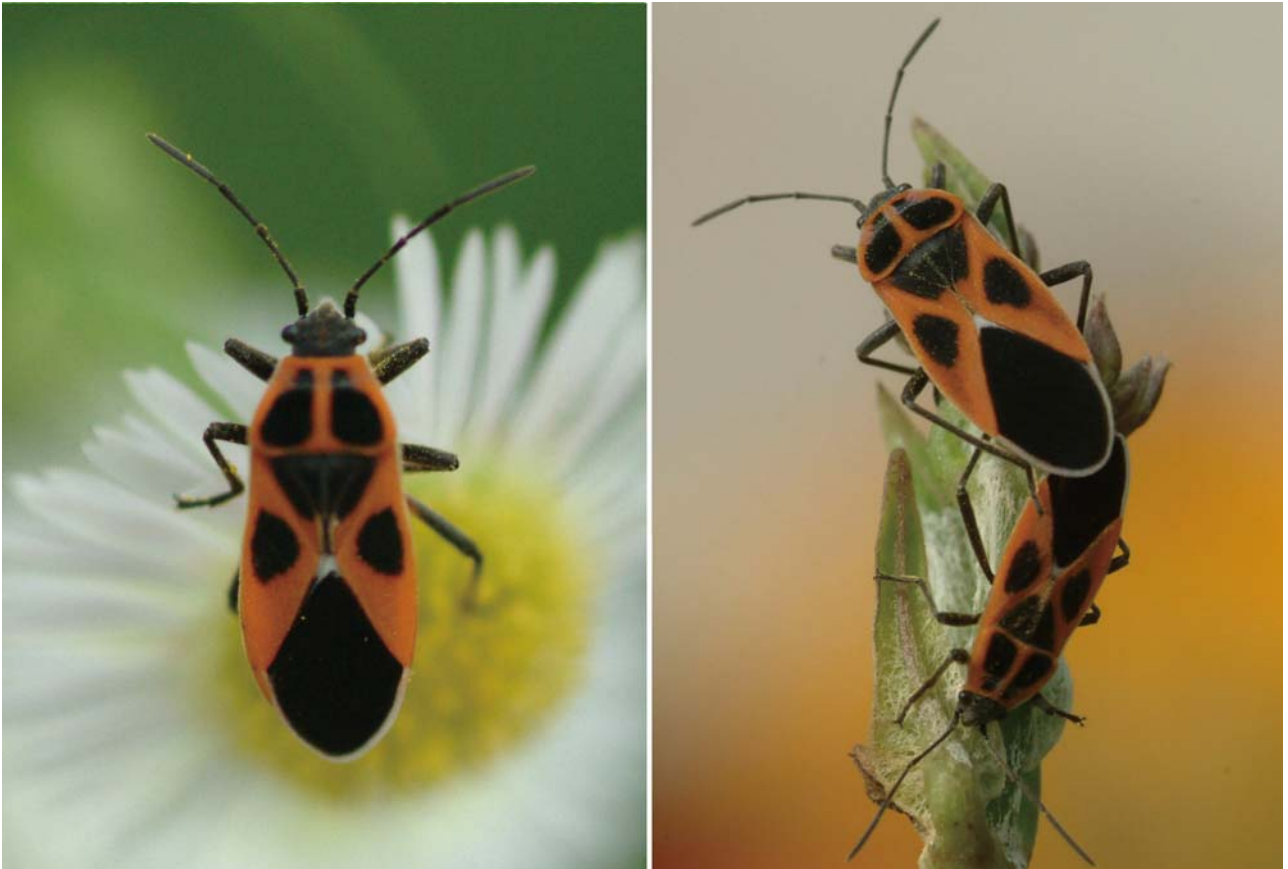


〈더듬이긴노린재 성충〉

2. 십자무늬긴노린재-*Lygaeus hansenii* Jakovlev 1883

2005년 7월 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9~10mm정도이며 등면에 짧은 황색털이 나있는 ‘십자무늬긴노린재’를 만났다. 등판은 진한 주황색이며 검은색인 가슴과 배의 위쪽으로 X자 모양으로 십자무늬가 나타난다. 성충으로 월동하며, 이듬해 5월경 월동처에서 나와 활동을 시작하고 5월 하순경에 박주가리로 이동하여 기생한다. 7~8월, 9~10월 2회에 걸쳐 발생한다.

특용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들깨 등을 가해하는 해충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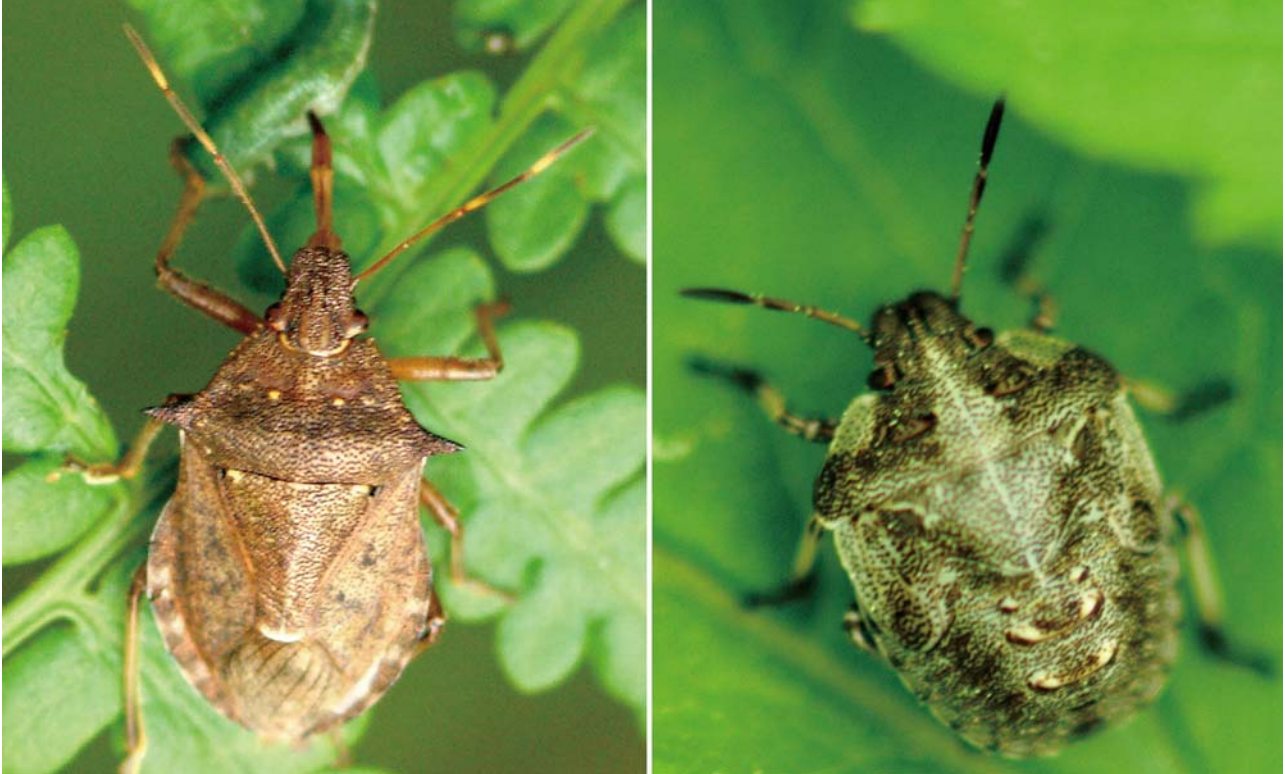
〈십자무늬긴노린재 성충〉

〈무늬가 다양한 노린재과〉

우리나라에는 69종이 알려졌다. 모양과 색은 다양하며, 노린재 무리 중 크기가 중간인 편에 속한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3. 가시노린재-*Carbula abbreviata* Motschlsky, 1866

2007년 9월 17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9~11mm정도이며 구릿빛을 띤 광택이 있는 ‘가시노린재’를 만났다. 산지와 산간밭의 경계부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종이다. 풀이나 관목에서 즙액을 빠는데, 청미래덩굴이나 나무딸기의 열매를 먹는다. 성충은 7~10월에 볼 수 있으며, 숲(가장자리), 들(풀밭)에 서식한다.



〈가시노린재 성충과 약충〉

4. 감보라노린재-*Menida violacea* Motschulsky, 1861



〈감보라노린재의 성충과 약충〉

2008년 5월 2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9~10mm 정도이며 몸빛깔은 아름다운 남자색의 광택이 있는 검은색 '감보라노린재' 를 만났다. 유충은 어두운 녹색으로 금속광택이 강하다. 미나리과 식물의 꽃에 살면서 즙액을 빨아먹는다. 6월쯤 기생식물의 잎 뒷면에 1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성충으로 집단을 이루어 겨울을 난다.

5. 남색주둥이노린재-*Icrona caerulea* Linnaeus 1758

2007년 8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는 6~9mm정도이며 주둥이노린재 종류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하는 ‘남색주둥이노린재’ 를 만났다. 몸 전체는 광택이 강한 남색을 띄며. 앞날개 막질부는 검은색 또는 갈색을 띄며 불투명하다. 성충은 3~9월에 관찰되며. 약충도 볼 수 있었다.



〈남색주둥이노린재의 성충과 약충〉

6. 네점박이노린재-*Homalogonia obtusa* Walker, 1868



〈네점박이노린재 성충〉

2008년 6월 19일 황성읍 섬강산책로에서 몸길이가 12~14mm정도인 ‘네점박이노린재’ 를 만났다. 몸빛깔은 약간 녹색을 띤 회갈색 바탕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다. 또 적갈색을 띤 개체도 있다. 산지의 등나무, 칩 등 콩과식물에 서식한다.

7. 대왕노린재-*Pentatoma parametallifera* Zheng



〈대왕노린재 성충〉

대형노린재로 몸길이 23~25mm정도이며 어깨와 배의 뿔돌기가 훨씬 더 크고 길게 발달하였다. 몸의 등면은 초록색 바탕에 구릿빛과 보랏빛 금속광택을 가진다. 앞가슴등판의 양 어깨는 크고 길게 돌출되어 있고 등쪽으로 활처럼 휘어졌다. 먹이식물로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참나무 등이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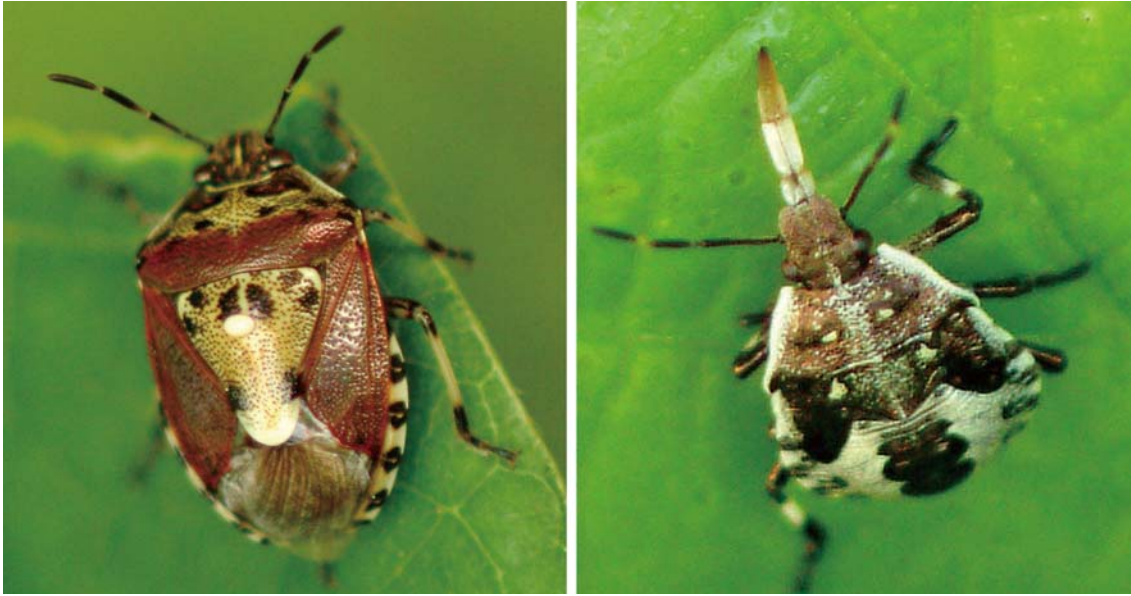
8. 메추리노린재-*Aelia fieberi* Scott, 1874



〈메추리노린재 성충〉

2007년 7월 3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mm 정도로 광택이 있는 연한 갈색과 짙은 갈색이 세로 줄무늬를 이루는 ‘메추리노린재’를 만났다. 화분과 식물에 기생하며 특히 잠자리피 이삭에 많이 모인다. 악취가 특히 심하며 벼를 해친다. 성충은 5~10월에 나타난다.

9. 무시바노린재-*Menida musiva* Jakovlev, 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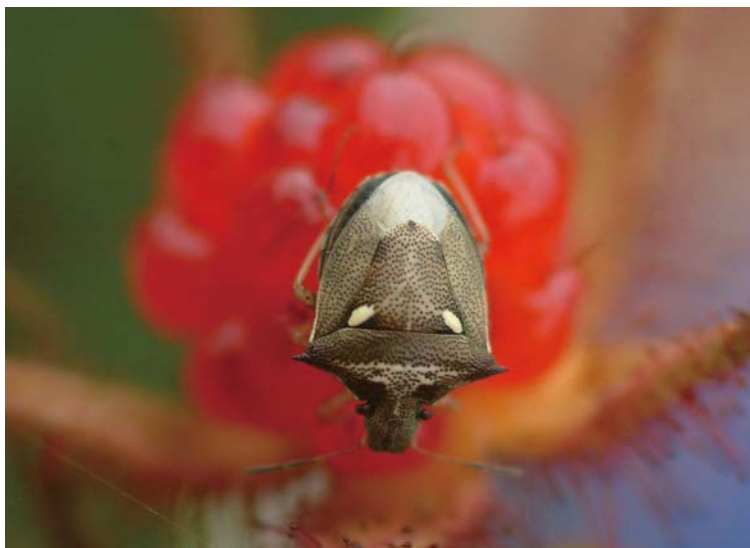


〈무시바노린재의 성충과 약충〉

2005년 5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9mm 정도이며 몸빛깔은 적갈색이고, 검은색의 미세한 점들이 흩어져 있으며 광택이 있는 ‘무시바노린재’를 만났다. 머리는 점들이 촘촘히 나 있어 흑갈색에 가깝고 접눈도 흑갈색이다.

10. 배둥굴노린재-*Eysarcoris ventralis* Cheema, 1973

2005년 7월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5~7mm 정도의 작은 노린재로 몸빛깔은 등면이 연한 회갈색에 검은색의 점들이 있는 ‘배둥굴노린재’를 만났다. 머리는 검은색이며 약간 보랏빛의 광택이 있다. 화분과 식물을 주로 먹는다. 성충으로 월동하고 이른 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



〈배둥굴노린재 성충〉

11. 분홍다리노린재-*Pentatoma japonica* Distant, 1882



〈분홍다리노린재 성충〉

2007년 7월 19일 횡성읍 삼일공원에서 몸길이 17~20mm 정도로 큰 노린재인데 몸빛깔은 금속 광택이 나는 선명한 녹색으로 매우 아름다운 ‘분홍다리노린재’를 만났다. 그러나 죽으면 어두운 녹색으로 변하고 광택도 사라진다. 산이나 들판의 느릅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의 활엽수에 기생한다. 나무줄기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주로 낮에 활동한다. 성충은 7~9월 사이에 나타나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12. 비단노린재-*Eurydema rugosa* Motschulsky, 1861



〈비단노린재 성충〉



〈먹이활동하는 비단노린재〉



〈비단노린재의 짝짓기〉

2005년 7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7~10mm정도이며, 몸빛깔은 등면이 검은빛을 띤 남색이고 오렌지색의 줄무늬가 있는 ‘비단노린재’ 를 만났다. 배면은 황백색 또는 오렌지색이다. 십자화과 식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특히 무, 배추, 냉이 등 채소의 열매에 피해를 준다. 성충으로 월동하고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식초 위에 2줄로 알을 낳는다. 우화한 성충은 7월 중순쯤 냉이 등에 알을 낳고 8월 하순에 우화한다. 약충과 짝짓기하는 모습도 촬영할 수 있었다. 루드베키아 꽃속에 숨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3.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Stal, 1855



〈썩덩나무노린재 성충〉

2005년 6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4~18mm이며, 몸빛깔은 어두운 갈색에 황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여기저기 있는 ‘썩덩나무노린재’ 를 만났다. 성충은 어린 열매에 주둥이를 꽂고 즙액을 빨아먹는데, 초가을에는 콩 등에 많은 피해를 준다. 연 1회 발생한다. 8월까지 성충을 볼 수 있다. 성충은 10~11월에 월동할 장소로 이동해 월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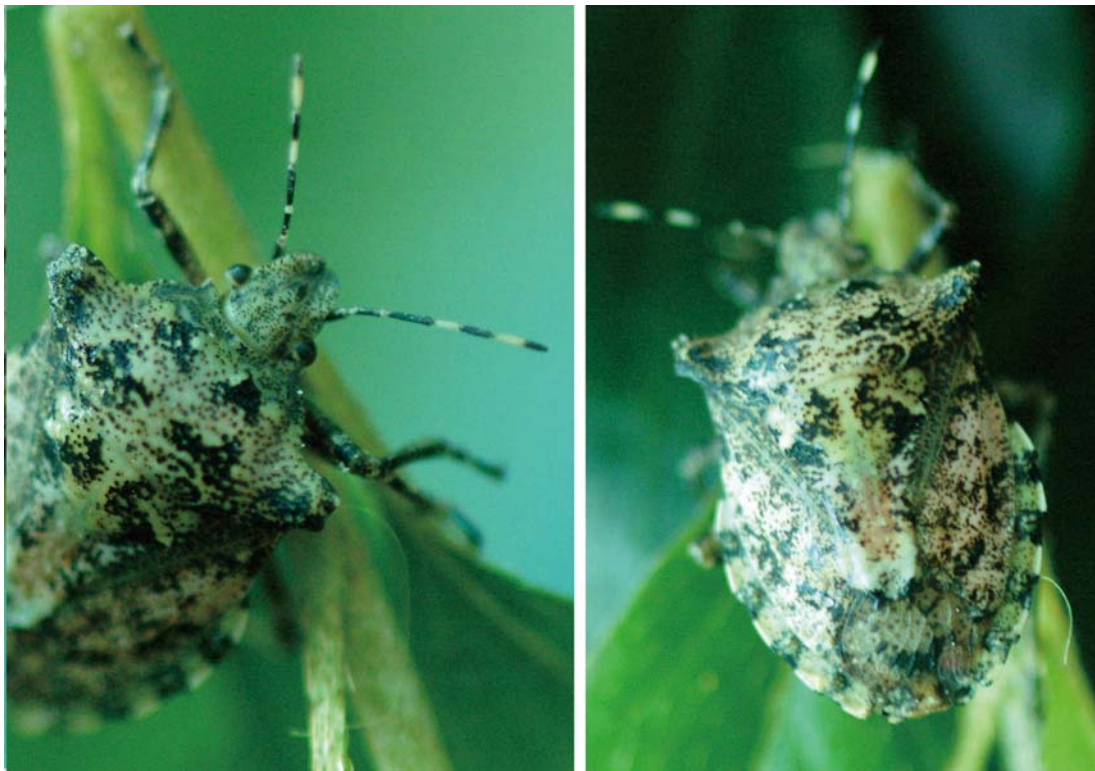
14. 알락수염노린재-*Dolycoris baccarum* Linnaeus, 1758



〈알락수염노린재 성충〉

2005년 7월 2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알락수염노린재’를 만났다. 몸길이 11~13mm정도이며 몸빛깔은 적갈색에서 황갈색으로 변이가 심하다. 성충은 4월 말부터 8월에 십자화과, 콩과, 화본과 식물의 열매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때로는 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특히 오동나무잎에 많이 서식한다. 농작물의 잔재물이나 식물의 뿌리 부위 등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5월 중순경에 할미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교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 2회 발생하며 성충은 4~8월에 활동한다.

15. 얼룩대장노린재-*Placosternum esakii* Miyamoto, 1990



〈얼룩대장노린재 성충〉

2007년 7월 13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20~22mm정도로 큰 노린재인 ‘얼룩대장노린재’를 만났다. 몸은 넓적한 타원 모양이고 몸빛은 암갈색 또는 회갈색이다.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무줄기와 비슷한 보호색을 띄고 있다. 성충은 4~9월에 나타나 주로 야산의 참나무림에서 볼 수 있고 밤나무, 백양나무, 은사시나무, 포플러 등 활엽수에 모여 즙을 빨아 먹는다.

16. 장흡노린재-*Pentatoma semiannulata* Motschulsky, 1859

2008년 8월 17일 몸길이 18~24mm정도의 큰 노린재로. 몸빛깔이 흙빛과 비슷하여 이름이 붙여진 ‘장흡노린재’를 만났다. 몸은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도는 회색이다. 약충과 어른벌레가 작물에 모이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산림수목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림해충으로 분류된다. 성충은 7~9월에 출현하여 주로 느티나무류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정향나무, 나무딸기, 청미래덩굴에도 모인다.



〈장흙노린재 성충〉

17. 풀색노린재-*Nezara antennata* Herting, 1971



〈풀색노린재의 성충〉

2007년 7월 16일 원주 부론면 단강리 풀밭에서 몸이 전체적으로 풀색이라 ‘풀색노린재’ 라는 이름 붙여진 몸길이 11~17mm 정도의 노린재를 만났다. 성충으로서 겨울을 지낸다. 암컷은 콩과식물이나 채소의 잎 뒷면에 알 덩어리를 낳는 습성이 있다. 과수원, 정원, 토마토, 콩, 목화, 가지 등 작물에 발생하며, 5월부터 서리 내리기 전까지 바늘 같은 주둥이로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는다. 과일이 없을 때는 잎이나 줄기를 빨아먹어 피해를 준다. 부화한 약충은 군생하고 약충기간은 약 1개월이다. 6~7월에 제1세대 성충이 나타나고, 이어서 9월에 제2세대 성충이 발생한다. 성충은 낮 동안 활발하게 날아다니며, 사람이 계속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자취를 감춘다고 한다.

18. 홍다리주둥이노린재-*Pinthaeus sanguinipes* Kanervo, 1946



〈홍다리주둥이노린재〉

2007년 8월 1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는 14~18mm 정도이며, 몸은 암갈색 바탕에 흑색의 점각이 산포되어 있는 ‘홍다리주둥이노린재’ 를 만났다. 몸 전체에 붉은색이 돈다. 다리가 붉어 홍다리주둥이란 이름이 붙었다. 성충은 6~10월에 출현하여, 주로 활엽수 잎이나 줄기에서 활동한다.

19. 홍줄노린재-*Graphosoma rubrolineatum* Westwood, 1873

2007년 8월 1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예쁘고 아름다워 애완용 가치가 있는 노린재로 구릿대 열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홍줄노린재’ 를 보았다. 광택이 도는 검은색 바탕에 주홍색 세로 줄무늬가 있어 이 이름이 생겼다. 몸길이 9~12mm 정도이며 개체에 따라 줄무늬가 적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변이가 심하다. 미나리과 식물의 꽃과 종자에 잘 모인다. 당귀, 인삼 등 약용식물의 꽃과 열매에 해를 입힌다.



〈홍줄노린재 성충〉



〈홍줄노린재 성충〉

〈앞가슴 모서리가 튀어나온 빨노린재과〉

노린재 무리 중 중형~대형으로 방패모양이다. 우리나라에 21종이 알려졌는데 색상이 아름다운 종이 많다. 대부분 앞가슴 양옆 모서리가 발달하고 빨처럼 튀어나온 종이 많으며 수컷 생식기가 가위 모양인 종도 있다. 암컷들은 모성애가 강해 알이 깨어날 때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1. 긴가위빨노린재-*Acanthosoma labiduroides* Jakovlev, 1880



〈긴가위빨노린재 성충〉

2008년 5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는 약 17~19mm 정도로 몸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이지만 돌기와 배 끝의 붉은색이 어우러져 화려한 ‘긴가위빨노린재’를 만났다. 앞 등의 양쪽은 붉은색이며, 암·수간 체형이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수컷의 배 끝에는 붉은색의 생식마디가 가위 모양으로 뒤까지 뻗어 있어 긴가위빨노린재라는 이름이 붙었다. 5~10월에 숲이나 들판에서 성충을 볼 수 있으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2. 붉은가위빨노린재-*Acanthosoma spinicolle* Jakovlev, 1880

2004년 10월 21일 강림면 강림리에서 몸은 초록색과 적갈색이 섞여있는 ‘붉은가위빨노린재’를 만났다. 앞날개 혁질부 일부와 앞가슴 등판 일부가 적갈색을 띠고 수컷 생식기에 난 돌기는 길고 가늘며, 뒷쪽으로 가위 모양으로 열려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몸길이 12~16mm 정도로 성충은 4~10월에 나타나며 오갈피나무, 층층나무 등에 붙어 주로 나무열매의 즙액을 빨아먹는다.



〈붉은가위뿔노린재〉

3. 에사키뿔노린재-*Sastragala esakii* Hasegawa

2008년 6월 17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12mm 정도로 몸은 붉은색 바탕에 초록색 및 적갈색 무늬를 띤 ‘에사키뿔노린재’ 를 만났다. 작은 방패판 가운데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 하트 무늬가 있어 사람들이 예뻐하는 노린재란다. 암컷은 모성애가 강해 알과 부화한 새끼들을 감싸고 거미나 육식곤충에게서 지켜 준다. 애벌레는 층층나무, 말채나무의 잎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즙액을 빨아먹는다. 4~11월에 보인다.



〈에사키뿔노린재 성충〉

〈크기가 작은 잡초노린재과〉

노린재 무리 중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며 우리나라에는 12종이 알려졌다. 식물종자를 주로 먹고 살지만 농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종만 등불에 찾아온다.

1. 붉은잡초노린재-*Rhopalus (Aeschyntelus) maculatus* Fieber, 1837

2005년 5월 24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는 5~9mm 정도인 몸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광택이 있는 '붉은잡초노린재'를 만났다. 4~10월에 나타나 산야의 초원지대나 경작지 주변에 널리 분포한다. 화본과 및 국화과 식물을 먹고 산다. 때때로 벼이삭을 가해하여 피해를 입힌다.



〈붉은잡초노린재 성충〉

2. 샷포로잡초노린재-*Rhopalus (Aeschyntelus) sapporensis* Matsumura, 1905



〈샷포로잡초노린재 성충〉

2008년 5월 24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은 갈색을 띠며 광택이 나고 흑갈색 점각이 있는 ‘삿포로잡초노린재’를 만났다. 산지나 초지의 경작지 주변에서 관찰된다. 화본과나 국화과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산다. 성충은 6~10월에 나타난다.

〈물밖에도 나오는 장구아재비과〉

수생곤충으로 우리나라에 150여종이 알려져 있다.

1. 게아재비 - *Ranatra chinensis* Mayr



〈게아재비 성충〉

2008년 7월 20일 홍수가 난 섬강둔치를 걷다가 물밖으로 나온 ‘게아재비’를 보았다. 몸길이는 40~45mm 정도로 몸은 회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막대기 모양으로 대단히 가늘고 길다. 불빛에도 잘 날아드는데, 물 속 곤충답지 않게 보라색이 도는 우윳빛 속날개가 멋지다고 한다. 물 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숨관을 내밀고 숨을 쉬는데 호흡관이 몸길기와 비슷하면 암컷, 더 길면 수컷이다. 수생식물 사이에 꼼짝않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포획한다.

〈흡눈이 없는 장님노린재과〉

몸의 크기는 소형 중형이며 길거나 달걀모양이고 몸은 연약하며 흡눈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215종이 알려졌다. 색상과 크기는 다양하나, 일부 그룹은 무늬가 뚜렷하지 않아 사진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식물에서 즙을 빨아 먹지만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종류도 많아 천적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1. 밀감무늬검정장님노린재-*Deraeocoris ater* Jakovlev, 1889



〈밀감무늬검정장님노린재 성충〉

2008년 7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의 길이 8~9mm이며, 몸이 검고 광택이 강한 ‘밀감무늬검정장님노린재’를 만났다. 숲의 나무, 덩굴 및 초본식물에서 5~9월에 발견된다.

2. 큰흰숨털검정장님노린재-*Proboscidocoris varicornis* Jakovlev, 1904



〈큰흰숨털검정장님노린재 성충〉

2008년 7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크기 4~6mm정도인데 검은색이며 광택이 있고 온몸에 회백색 솜털이 불규칙한 반점모양으로 나있는 ‘큰흰숨털검정장님노린재’를 만났다. 성충은 5~10월에 나타난다.

3. 풀밭장님노린재-*Lygus rugulipennis* Poppius, 1911



〈풀밭장님노린재 성충〉

2007년 6월 24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는 5~6mm정도이며 연한 갈색 바탕에 갈색 또는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풀밭장님노린재’ 를 만났다. 작은 방패판은 검은색이고, 누런빛 도는 흰색 하트모양이 있다. 4~11월에 나타나며 산지 초원이나 평지에서 산다.

〈활엽수에서 잘보이는 참나무노린재과〉

노린재 무리 중 크기가 중간인 편에 속하는데 몸은 편평하며, 색상의 변화가 크다. 우리나라에는 10종이 알려졌으며 주로 활엽수에서 관찰된다. 일부 종만 등불에 찾아온다.

1. 두쌍무늬노린재-*Urochela quadrinotata* Reuter, 1881

2007년 11월 5일 우연히 내가 사는 대동아파트 101동 후면에서 몸길이 약 15mm정도이며 몸빛깔은 붉은색을 띤 갈색인 ‘두쌍무늬노린재’ 를 만났다. 등면이 편평하고 머리가 작았다. 들이나 야산에 있는 개암나무와 같은 활엽수에서 보이는데, 5월 말쯤에 나무줄기에서 짹짹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충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나타난다.



〈두쌍무늬노린재 성충〉

2.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Urostylis annulicornis* Scott, 1874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 성충〉

2008년 5월 2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13mm정도인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를 만났다. 몸은 전체적으로 황색 기운이 있는 녹색 바탕이며 보다 진한 무늬가 있다. 어른벌레는 산지의 참나무의 앞에서 4~11월에 흔히 발견된다. 약충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자라면서 모양과 무늬색깔이 변화가 심하다.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 약충〉

〈다른 곤충의 체액을 빠는 침노린재과〉

몸크기는 중형 대형이고 긴 모양이다. 대부분은 다른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는 육식성 노린재이지만 몇 종류는 혈액만 빨아먹고 때로는 사람을 찔러 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1. 고추침노린재-*Cydnocoris russatus* Stal, 1886



〈고추침노린재 성충〉

2006년 6월 1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4~17mm정도이며 몸빛깔은 노란빛을 띤 붉은색을 띄며 온몸에 황갈색 잔털이 퍼져있는 ‘고추침노린재’를 만났다. 이름 때 문인지는 모르지만 가을에 빨갱게 익은 고추가 생각난다. 4~10월에 나타나는데 여름에 산지에 흔하며 나뭇잎 위에서 서

식한다. 작은 곤충을 잡아 주둥이를 몸에 꽂아 체액을 빨아먹는다. 성충으로 겨울을 지낸다.

2. 극동왕침노린재-*Epidaus tuberosus* Yang, 1940

2008년 6월 3일 횡성읍 승지봉등산로에서 몸길이 18~22mm정도이며 몸빛깔은 회황색 또는 황갈색 바탕에 주홍색이나 선홍색 무늬가 있는 '극동왕침노린재' 를 만났다. 성충은 4~10월에 나타나며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손을 주둥이로 쏘기도 한다. 성충으로 나무껍질 밑이나 동굴 등에서 겨울을 지낸다.



〈극동왕침노린재 성충〉

3. 다리무늬침노린재-*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Stål, 1861



〈다리무늬침노린재 성충과 약충〉

2008년 8월 2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3~16mm정도인 ‘다리무늬침노린재’ 를 만났다. 주로 나무숲이나 풀밭에서 서식하며 다른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는데, 대부분 나비류의 유충을 잡아먹는다. 성충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나타난다.

4. 왕침노린재-*Epidaus tuberosus* Yang, 1940



〈왕침노린재 성충〉

2007년 11월 11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101동 후면에서 몸길이 20~25mm정도로 큰편에 속하며 몸은 갈색인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짧은 황색털로 덮여 있는 ‘왕침노린재’ 를 만났다. 월동하러 찾아온 것일까? 성충은 4~11월에 나타나는데 침이 예리해 찔리면 아프다. 성충으로 집단을 이루어 겨울을 난다.

5. 흥도리침노린재-*Pselliopus cinctus* Fabricius, 1776



〈흥도리침노린재〉

2008년 5월 2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2~14mm정도인 ‘홍도리침노린재’를 만났다. 성충은 4~10월에 나타난다.

〈허리가 튼튼한 허리노린재과〉

우리나라에는 16종이 알려졌다. 노린재 무리 중 중대형에 속하며 몸은 조금 긴편으로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다. 땅위 식물체 위에서 살며 식물을 먹는데 주로 과일과즙을 빨아먹는다. 일부 종만 등불에 찾아온다.

1. 파리허리노린재-*Acanthocoris sordidu* Thunberg, 1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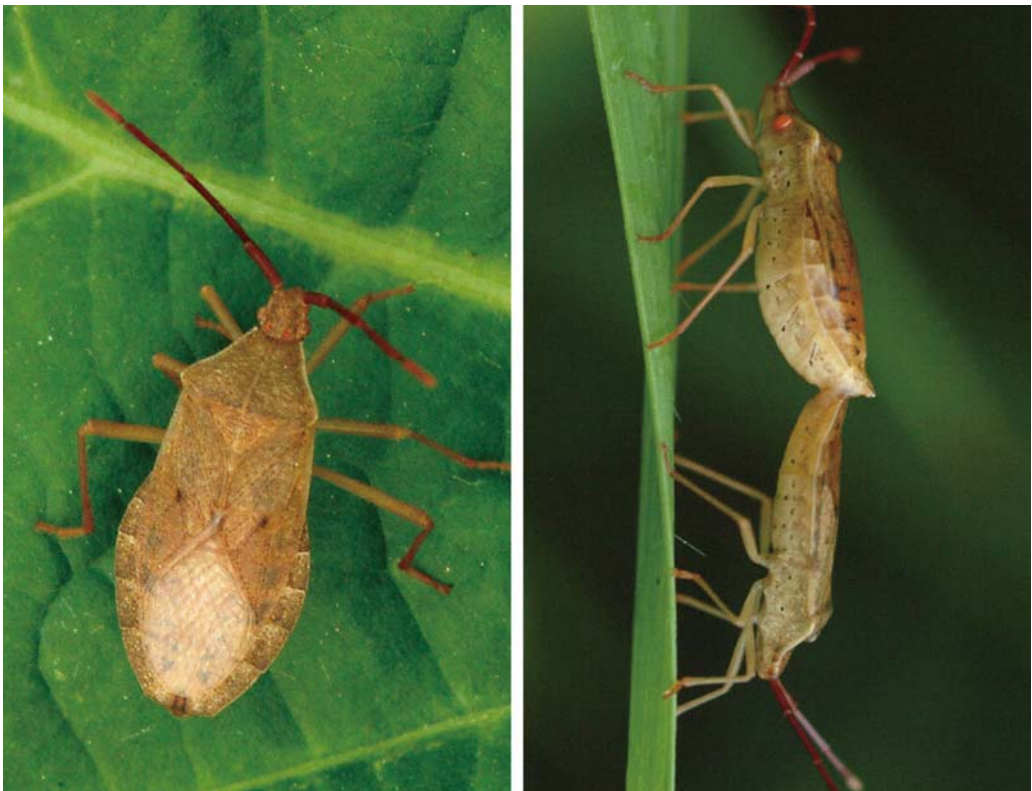
2008년 5월 2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14mm정도이며 몸빛깔은 등면이 균일한 회색빛을 띤 흑갈색이며 광택은 없는 ‘파리허리노린재’를 만났다. 성충은 5~10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파리, 고추, 고구마, 가지 등에 무리지어 기생하는 습성이 있다.



〈파리허리노린재 성충〉

2. 넓적배허리노린재-*Homoeocerus dilatatus* Horváth, 1879

2005년 8월 5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몸길이 11~16mm정도인 ‘넓적배허리노린재’를 만났다. 몸빛은 누런 갈색이고 더듬이는 붉은 갈색이다. 다른 종류에 비하여 배가 특히 넓다. 칩이나 콩 등 콩과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콩과 식물의 해충이다.



〈넓적배허리노린재 성충〉

3. 노랑배허리노린재-*Plinactus bicoloripes* Scott, 1874



〈노랑배허리노린재 성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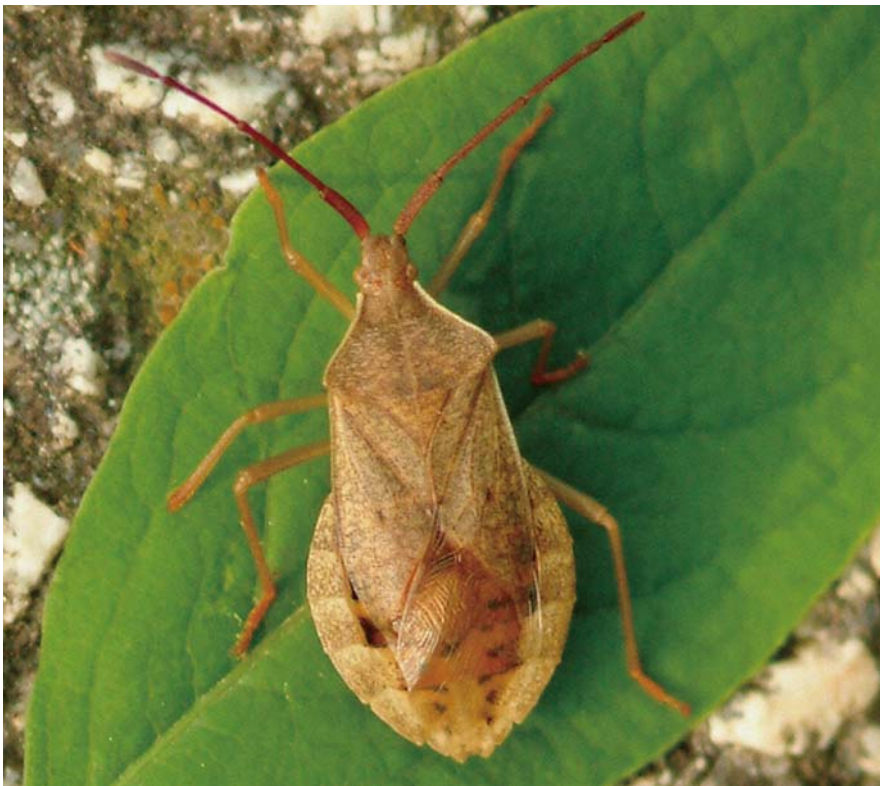
2016년 9월 3일 횡성읍 삼일공원을 산책하다 화살나무에서 몸길이 13~18mm정도인 ‘노랑배허리노린재’를 만났다. 막 부화한 약충과 성충을 볼 수 있었다.



〈노랑배허리노린재 약충〉

몸 등면은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인 데 반해 배는 진한 노란색을 띄어 노랑배허리노린재라고 이름이 붙었다. 색상이 고급스럽고 멋스러워 영국신사를 연상시킨다. 4~12월에 나타나 군집 생활을 하며 화살나무, 노박덩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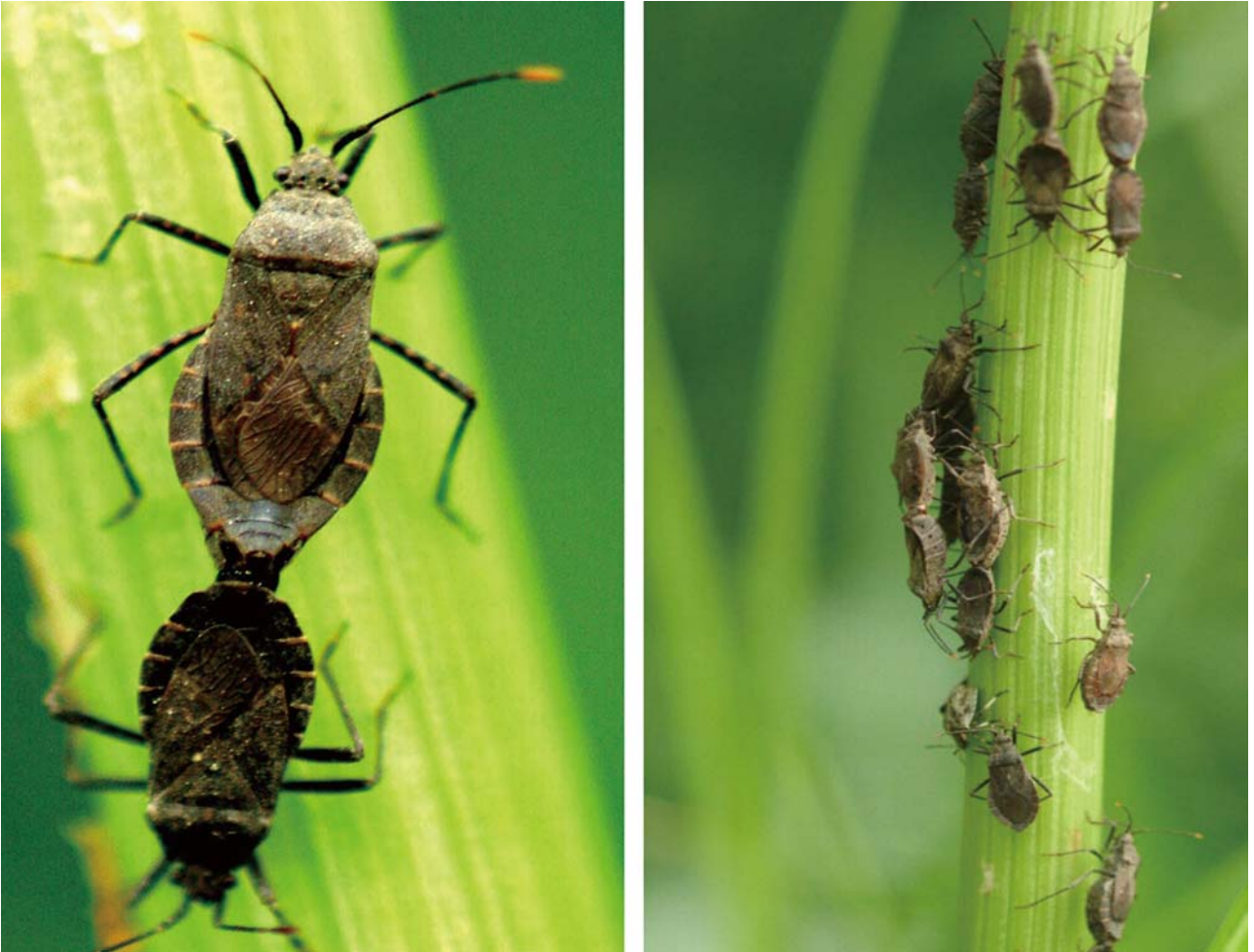
4. 두점배허리노린재-*Homoeocerus unipunctatus* Thunberg, 1873



〈두점배허리노린재 성충〉

2005년 7월 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1~16mm 정도로 몸빛깔은 황갈색 또는 연한 갈색에 갈색의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두점배허리노린재’ 를 만났다. 칩에 가장 많이 모이고 그 밖의 콩과식물에도 모인다. 4월부터 10월까지 나타난다. 배가 유난히 크고 넓다.

5. 떼허리노린재-*Hygia lativentris* Motschulsky, 1866



〈떼허리노린재 성충〉

2008년 5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을 산책 중에 엉겅퀴 줄기에 수백마리가 떼지어 짹짹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몸길이 8~12mm 정도인 ‘떼허리노린재’ 를 만났다. 생태와 딱맞는 이름이 재미있다. 머리에서부터 배에 이르기까지 검은색 또는 갈색을 띄고, 광택은 없으나 표면에 노란색의 짧은 털이 있다. 먹이식물로는 엉겅퀴나 말오줌대가 알려져 있다.

6. 벼가시허리노린재-*Cletus trigenus* Thunberg, 1783

2008년 8월 2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11mm 정도로 몸빛깔은 균일하게 황갈색이나 약간 진한 색의 개체도 있으며 어두운 갈색의 점들이 있는 ‘벼가시허리노린재’ 를 만났다. 유자나무 등에 발생하여 열매에 반점이 생기는 피해를 준다.



〈벼가시허리노린재 성충〉

7. 장수허리노린재-*Anoplocnemis dallasi* Kiritschenko, 1916

2006년 9월 1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몸길이 18~20mm 정도이며 몸빛깔이 흑갈색인 ‘장수허리노린재’를 만났다. 족제비싸리, 개싸리 등 콩과식물의 새싹을 먹는다. 성충은 4~10월까지 나타난다.



〈장수허리노린재 성충〉

8. 큰허리노린재-*Molipteryx fuliginosa* Uhler, 1860

2005년 7월 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9~25mm로 한국에 분포하는 육서노린재 무리 가

운데에서 가장 크다는 ‘큰허리노린재’ 를 만났다. 몸빛깔은 어두운 갈색이고 몸 표면에는 연한 갈색의 털이 촘촘히 나 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들판의 잡초나 엉겅퀴, 양지꽃, 머위 등에도 있다. 성충은 4월부터 10월까지 나타난다.



〈큰허리노린재 성충〉

9. 툽다리허리노린재-*Riptortus clavatus* Thunberg, 1783



〈툽다리허리노린재 성충〉

2007년 9월 23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몸길이 13~18mm정도이며 몸 빛깔은 진한 갈색인 ‘툽다리허리노린재’를 만났다. 유충과 성충은 콩과 식물의 진을 빨아먹는다. 성충이 나는 모습은 마치 쌍살벌과 비슷하고, 약충(若蟲)일 때는 개미와 비슷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 의태 전략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여름에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벌처럼 보이는데, 낮은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노린재사진을 정리하며〉

그 동안 찍어놓은 노린재 사진을 정리하다보니 노린재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했다. 분류하는데 성충과 약충이 너무 달라 약충의 이름을 찾는 게 어려웠지만 네이버카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큰광대노린재의 종령 약충을 채집하여 성충으로 변태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크게 아쉬웠다. 노린재는 눈에 확 띠 정도로 큰 녀석들도 있지만 작은 녀석들도 있고, 칙칙한 색깔로 완벽하게 위장하는 노린재도 있지만 화려하고 멋진 색상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노린재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노린재의 세계를 접하면서 고약한 방귀로 냄새만 피우는 노린재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 곤충 세계에서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고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노린재를 접할 때마다 기쁘고 흥분 됐던 일들이 나에게서 큰 행복이었다.



제6장 갑옷을 입은
딱정벌레 무리

제6장 갑옷을 입은 딱정벌레 무리

2007년 8월 25일 오후 4시쯤 섬강변 산책길에서 이상한 벌레를 발견하고 너무 기빠서 정신없이 촬영하는데 갑자기 ‘뽕’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강냉이를 튀길 때처럼 하얀 연기가 나왔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나와 집사람은 얼마나 놀랐던지. 저렇게 조그만 벌레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났던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도감을 찾아보니 ‘폭탄먼지벌레’라는 딱정벌레과의 곤충인데 위험을 감지하면 몸속에 저장했던 가스와 강한 산성의 액체를 향문으로 폭발시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액체가 피부에 묻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셔터소리에 위험을 느꼈던 모양이어서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딱정벌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딱정벌레목(Coleoptera)은 곤충의 종 가운데 40%인 35만 여종을 차지하는 데 몸의 크기와 형태도 차이가 심하여 0.25mm의 작은 종에서 150mm에 달하는 큰 종까지 있다. 몸의 형태는 구형, 난원형, 원통형, 편편형 등 여러 가지이다. 딱정벌레목에 속한 무리들은 견고하고 두꺼운 ‘키타질’로 된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서 갑충(甲蟲)으로도 불린다. 막질로 된 뒷날개는 딱딱한 앞날개 안쪽에 접혀 있으며, 대부분 앞날개를 곧추 세운 뒤 뒷날개를 내밀어 비행한다. 가슴은 아랫면에서 다리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101과 3,654종이 알려졌다. 등불에 다양한 무리가 찾아오며, 대부분 이른 밤부터 모여든다. 먹는 먹이도 다양해서 식물의 잎, 작은 물고기, 나무의 즙, 작은 동물, 동물의 시체 등 매우 다양하다. 유충은 세 쌍의 가슴다리와 한 쌍의 다리가 있으며 큰 턱이 잘 발달돼 있다. 번데기는 나용이며 대부분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되지만 상당수의 종이 식물체 내, 유충의 껍질 속, 또는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되기도 한다. 알▷애벌레▷번데기▷어른벌레를 거치는 완전변태를 하며 1년에 1~4세대를 나는 종으로부터 수년에 1세대를 경과하는 등 다양하나 보통은 1년에 1세대를 난다. 분포의 범위도 다양하여 세계 각지의 고산, 평야, 하천, 늪, 지상이나 동굴, 식물체의 외부와 내부, 흙 속 등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로는 견고한 앞날개와 날 수 있는 뒷날개가 있는 점, 유충기에 땅 속과 식물체의 외부 내부 등 천적의 눈으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점, 각종 동식물 등 유기물질을 식이(食餌)하는 식이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황성에서 촬영한 딱정벌레는 모두 22과 75종으로 다음 표와 같다.

〈나그네 길을 안내해주는 길앞잡이과〉

몸길이 8~20mm정도이며. 아름다운 금속광택의 무늬가 있다. 큰 턱이 매우 크고 날카로워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데 알맞다. 건조하고 넓은 곳에 서식한다. 동작은 매우 민첩하며 길에서 만나면 앞으로 수미터 날아가서 이쪽을 보고 앉았다가 이쪽에서 계속 접근하면 다시 날아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길앞잡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었다. 유충은 단단한 평지에 수직의 갱도를 파서 그 입구에 머리를 뚜껑으로 삼고, 지나가는 곤충을 기다렸다가 옆을 지나가는 곤충을 물어 갱도 안으로 끌어들여 먹는다. 사람이 갱도에 접근하면 속으로 숨어 버리는데 풀줄기로 낚아서 유충을 잡을 수 있다. 한국에는 길앞잡이속(屬) 1속에 16종(種)이 기록되었다.

1. 길앞잡이-*Cicindela chinensis* Degeer, 1774



〈길앞잡이 성충〉

2016년 4월 24일 오후 횡성댐 둘레길에서 운종계도 ‘길앞잡이’ 를 처음 관찰할 수 있었다. 몸 길이 20밀리미터 정도의 곤충으로 매우 화려한 빛깔이 인상적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5월경에 가장 많은 개체가 나타나며, 6월 이후에는 더위를 피해 풀숲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산길에서 개미나 늑대거미 등 작은 벌레를 사냥해서 먹는다. 2년살이 곤충인데 첫 해에는 애벌레로, 둘째 해에는 어른벌레로 겨울나기를 한다.

2. 산길앞잡이-*Cicindela sachalinensis* Morawitz, 1862



〈산길앞잡이 성충〉

2008년 4월 19일, 공근면 삼군리 산길에 산의 흙모래가 깔려 있는 사면 도로에서 몸길이 5~17mm의 녹색을 띤 ‘산길앞잡이’ 를 뜻밖에 처음 만났다. 앉았다 날아갔다 를 반복하는 놈을 쫓아가 진땀을 쏟은 덕분에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 기뻐다. 성충은 5월에서 9월에 나타난다. 유충이나 성충으로 겨울을 난다.

〈모식성인 딱정벌레과〉

우리나라에는 485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큰 턱이 발달한 포식성으로 모양과 색은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1. 큰명주딱정벌레-*Campalita chinense* Kirby, 1819



〈큰명주딱정벌레 성충〉

2009년 4월 19일 내가사는 대동아파트 1동 뒤 목련나무에서 운 좋게도 몸길이 25~40mm로 대형인 ‘큰명주딱정벌레’ 를 처음 발견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니면 여기도 살아갈 환경이 조성되었나? 손으로 집어보니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 놓고 사진은 찍을 수 있어 좋았지만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 성충은 4~8월에 낮은 산이나 평지에서 보이는데 주로 밤에 활동한다. 한국에서 흔하게 출현하는 종은 아니며, 어른벌레는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를 잡아먹고 애벌레는 지표 속의 다른 절지동물을 잡아먹는 곤충이다. 어른벌레와 애벌레 상태로 겨울나기를 한다. 성충은 집단적으로 소란스럽게 운다고 한다.

2. 풀색먼지벌레-*Macrochlaenites pallipes* Gebler, 1823

먼지벌레 종류는 위험을 느끼면 고약한 냄새가나는 액체를 뿜는다고 한다. 2008년 8월 9일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인상적인 몸길이 14mm인 ‘풀색먼지벌레’를 만났다. 습지의 돌 밑에서 주로 살며 성충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다. 성충으로 땅 속에서 월동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지낸다. 야행성으로 작은 벌레나 지렁이 등 각종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이다.



〈풀색먼지벌레 성충〉

3. 멧쟁이딱정벌레-*Carabus jankowskii* Oberthur, 1883



〈멧쟁이딱정벌레 성충〉

2014년 5월 29일 아침 일찍 횡성댐에서 몸길이 28~40mm로 우리나라에 서는 가장 큰 딱정벌레의 하나인 ‘멧쟁이딱정벌레’를 만났다.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진땀을 흘리며 뛰어 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도 이놈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던지! 성충은 산 속 경사진 면의 돌 밑이나 썩은 나무에서 겨울을 나며 유충인 경우는 종령 유충으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번데기로 변해 5월 중순에는 성충이 된다. 성충은 산지의 지표면에서 4~11월에 보인다. 죽은 곤충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밑동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도 모여든다.

4. 큰먼지벌레-*Lesticus magnus* Motschulsky, 1860

2009년 4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24mm로 광택 나는 검은색의 '큰먼지벌레' 를 만났다. 성충으로 월동하며 6월부터 7월까지 개체수가 가장 많고 움직임도 활발하다.



〈큰먼지벌레 성충〉

5. 폭탄먼지벌레-*Pheropsophus jessoensis* Morawitz, 1862



〈폭탄먼지벌레 성충〉

벌레사진을 촬영하다가 가장 크게 놀란 벌레다. 2008년 6월 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을 걷다가 몸길이 18mm 정도인 '폭탄먼지벌레' 를 만났다. 모처럼 동반 산책하던 아내도 평하는 소리와 함께 환연

기를 내뿜는 장면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호수나 개천과 같은 습기가 많은 땅에서 사는데 성충은 5~9월에 보이며 야행성으로 낮에는 돌이나 낙엽 밑, 또는 흙 속에 숨었다가 밤에 나와서 각종 해충을 잡아먹어 유익하다. 위협을 느끼면 향문 주위의 분비샘에서 독한 물질을 내뿜어 독가스를 만들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방귀벌레’라 불리기도 한다. 이 독가스가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살이 부어오르고 몹시 아프다. 먼지벌레 중 가장 폭발력이 큰 벌레다. 유충은 땅 속에서 산다. 성충으로 겨울을 난다.

〈몸이 가늘고 연약한 가뢰과〉

몸길이는 대부분 10~20mm이나, 25~30m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몸은 가늘고 길며 연약한 편이나 약간 가죽질이다. 몸 빛깔은 대부분 어두운 검은색, 회색, 갈색, 황갈색 또는 선명한 금속성 홍채가 있다. 대부분의 성충은 지표면이나 나무의 잎, 꽃에서 볼 수 있으며 꽃이나 나뭇잎을 먹지만 심각한 해충에 속하는 몇몇 종도 있다. 유충의 경우 몇몇 종이 메뚜기의 알을 먹기도 하지만 다른 종들은 벌의 보금자리에 살면서 그 알이나 유충, 저장한 먹이 등을 먹는다. 유충은 ‘과변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다리의 관절이나 몸의 다른 부분에서 부식성 액체인 ‘칸다리딘(cantharidin)’을 내뿜는다. 이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게 된다.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곤충으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신장병 치료약이나 자살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칸다리딘’의 성분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병 치료제나 수포성 피부염 치료제, 이노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한국에는 20종이 분포한다.

1. 먹가뢰 - *Epicauta chinensis taishoensis* Lewis, 1879



〈먹가뢰 성충〉

2005년 7월 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7~19mm 정도로 몸전체가 검은색이나 머리 부분은 약간 붉은색을 띠는 ‘떡가뢰’ 를 만났다. 성충은 낮에 활동하는데 활엽성 풀, 특히 싸리나무에서 볼 수 있으며, 봄부터 가을에 걸쳐 나타나 잡초, 특히 콩과식물을 먹는다. 암컷은 흙 속에 1,000개가 넘는 알을 낳는다. 유충으로서 월동하고 메뚜기의 알덩어리를 먹고 자란다.

〈머리가 튀어나온 개미붙이과〉

머리는 튀어나오고, 촉각은 실 모양, 톱니 모양, 빗살 모양, 곤봉 모양이다. 아랫입술수염은 도끼 모양이고, 앞가슴판은 짧다. 나무좀의 대표적인 천적이며 유충은 벌집이나 메뚜기의 알집, 나무좀 등을 먹는다. 한국에는 개미붙이속과 흰띠개미붙이속의 2속 2종이 있다. 외형이 비교적 화려한 편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꽃에서 화분과 화밀을 먹고 살며 이들의 생태습성에 대해서는 관찰이 좀 더 필요한 종이다.

1. 불개미붙이-*Trichodes sinae* Chevrolat, 1874

2009년 7월 3일 삼군리에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흙집 벽에서 날개딱지에 3개의 붉은 가로줄이 선 한 ‘불개미붙이’ 를 만났다. 성충은 5~8월에 주로 보이는데, 한국에 서식하는 개미붙이류 중에서 가장 대형이다. 상당히 높은 비행능력을 가지고 한낮에 비행하며 꽃을 찾아다닌다. 주로 흰색 꽃에 많이 모여 애벌레와 어른벌레 모두 꽃가루만을 먹고 사는 특이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 나뭇잎 등에 앉아서 휴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어 등 쪽만 보인다. 주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곤충이나 생태적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불개미붙이성충〉

〈머리가 긴 거위벌레과〉

우리나라에는 33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머리는 폭보다 길고, 둥그렇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주로 나무의 열매나 줄기를 먹으며 자라는 해충이다. 긴 주둥이로 과일과 나무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알을 낳는데 애벌레가 먹을 나뭇잎을 말아서 요람을 만들어서 생활한다.

1. 사과거위벌레-*Paracentrocorynus nigricollis* Roelofs, 1874



〈사과거위벌레성충〉

2005년 7월 4일 황성읍 읍하리 섬강산책로에서 몸길이 6~8mm 정도의 ‘사과거위 벌레’ 를 만났다. 성충은 5~9월에 주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의 거위벌레 중 가장 흔하다. 성충 암컷은 5~7월까지 갈참 나무, 떡갈나무잎을 먹는데 주먹을 연속적으로 깨물어 흠집을 내 집을 짓고 산란한다.

2. 등빨간거위벌레-*Tomapoderus ruficollis* Fabricius, 1781

2008년 8월 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6mm 정도인 ‘등빨간거위벌레’ 를 만났다. 성충은 5~10월에 나타나 주로 느티나무 종류의 잎을 가해하며 여기에 알을 낳는다. 주로 어두운 잎의 뒷면

에 구멍을 내면서 잎을 먹는다. 느티나무의 잎에 피해를 입히는 산림해충이나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주지는 않으며 한여름 대발생하였다가 자취를 감춘다. 성충으로 겨울을 난다.



〈등빨간거위벌레 성충〉

〈꽃에 모이는 꽃무지과〉

아름답게 활짝 핀 꽃에 가까이 가면 어김없이 꽃을 파먹고 있는 꽃무지무리가 보인다. 꽃무지과는 풍뎅이과에 속하는 곤충의 한 분류이다. 날 때에는 풍뎅이들과 달리 앞날개를 살짝 들어올린 뒤 뒷날개만 완전히 펴서 난다. 애벌레는 토양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특이하게도 누워서 기어다니는 습성이 있다. 어른벌레는 봄에 꽃이나 과일 즙, 수액을 먹는다. 곤충학자 중에는 꽃무지라는 이름의 유래를 꽃에 모이는 풍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1. 홀쭉꽃무지-*Callynomes obsoleta* Fairmaire, 1878

2008년 5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5~17mm 정도이며, 몸 전체가 흑색을 띤 ‘홀쭉꽃무지’를 만났다. 성충은 봄에서 가을까지 발견할 수 있으나 주로 5-6월에 출현하며 낮에 활동한다. 과일즙이나 수액을 주로 먹는다. 꽃무지라는 이름은 꽃에 모여드는 풍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나 다른 꽃무지류에 비하여 초본식물의 잎이나 돌 밑에서 자주 발견된다. 행동이 둔한 편이며 날 때에는 앞날개를 약간 들어 올리고 뒷날개를 완전히 펴서 비행한다. 애벌레로 겨울을 난다.



〈홀쭉꽃무지 성충〉

2. 풀색꽃무지-*Gametis jucunda* Faldermann, 1835



〈풀색꽃무지 성충〉

2005년 7월 8일 횡성읍 읍하리 섬강둘레길에서 짙레꽃에 모여든 몸길이 15mm 정도인 ‘풀색꽃무지’를 만났다. 어른벌레는 봄, 가을에 걸쳐 1년에 2회 출현하며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한다. 개체변이가 있어서 대부분 몸빛깔이 풀색을 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갈색 또는 검은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어른벌레는 주로 흰색, 붉은색 꽃에 무리를 지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가을철에 산란한 알은 부화한 후 땅속의 부식질을 먹으며 3번의 허물을 벗은 후 3령 애벌레 상태로 겨울나기를 한 후 이듬해 봄에 번데기가 된다.

〈몸이 가늘고 긴 목대장과〉

몸은 가늘고 길며 더듬이는 11마디이다. 목덜미와 네발이 가늘고 길며 발톱은 빗살 모양이다.

1. 목대장-*Cephaloon pallens* Motschulsky, 1860



2008년 5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3mm로 갈색을 띤 ‘목대장’ 을 만났다. 산길 주변의 초원과 관목림에서 서식하는데 성충은 5월부터 6월까지 나타난다. 낮에는 꽃에 모이거나 풀줄기에 앉아 쉰다. 밤에는 불빛에도 날아온다.

〈무늬가 화려한 무당벌레과〉

우리나라에는 90여종의 무당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당벌레는 일생동안 3만여 마리의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농약으로 불린다. 무당벌레는 번데기 과정이 있는 완전변태 곤충으로 눈에 띄는 경계색을 띄고 있다. 이는 무당벌레의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화려한 색은 나를 잡아먹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일종에 경고다. 무당벌레는 위험을 감지하면 다리마디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노란색 액체의 독을 내보내 천적을 물리친다.

1. 남생이무당벌레-*Aiolocaria hexaspilota* Hope, 1831



〈남생이무당벌레 성충〉

2004년 10월 21일 강림면 태종대 주위에서 몸길이 10mm 정도인 ‘남생이무당벌레’ 를 만났다. 남생이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여진 남생이무당벌레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무당벌레 중에 가장 큰 종이다. 나무껍질 틈새나 나무구멍 속에서 무리를 지어 성충으로 겨울을 나고 4~5월에 번식을 한다. 암컷은 버드나무나 사시나무의 죽은 가지에 20 여개의 주홍색 알 덩어리를 낳는다.

2. 달무리무당벌레-*Anatis halonis* Lewis, 1896

2008년 5월 26일 몸길이 7~9mm로 대형 무당벌레류에 속하는 ‘달무리무당벌레’ 를 만났다. 유충과 성충은 주로 소나무류에 있는 왕진딧물을 잡아먹고 생활한다. 성충은 4~6월에 1년에 1회 발생하며, 4월 초순부터 번식한다. 암컷은 소나무의 껍질 속에 2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달무리무당벌레 성충〉

3. 칠성무당벌레-*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aeus, 1758



〈칠성무당벌레 성충〉

2005년 6월 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5~8.5mm 정도인 몸은 짧은 달걀 모양이고 몸 전체가 뒷박을 엮어 놓은 것 같은 ‘칠성무당벌레’ 를 만났다. 딱지날개의 점이 일곱 개가 있어 칠성무당벌레라고 불린다. 3~11월 까지 들과 야산의 잡초 지역이나 진딧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데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2~3주 밖에 걸리지 않는다. 성충으로 겨울을 난다.

4. 애홍점박이무당벌레-*Chilocorus kuwanae* Silvestri, 1909

2005년 8월 3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3.6~4.3mm정도인데 흑색 광택이 강하고 딱지날개의 가운데에 한 개의 작고 빨간 무늬가 있는 ‘애홍점박이무당벌레’ 를 만났다. 가끔 빨간색의 무늬

가 없어져서 북방홍점박이무당벌레와 혼동할 수 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연중 성충을 볼 수 있으며 가을이 되면 성충들이 크게 무리를 이루어 풀과 낙엽 밑, 건물의 특정한 장소로 이동해 겨울을 지내는 습성이 있다. 손으로 잡았더니 매우 나쁜 냄새를 내는 노란색 액체를 내뿜었다.



〈애홍점박이무당벌레 성충〉

5. 꼬마남생이무당벌레-*Propylea japonica* Thunberg, 1781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성충〉

2007년 8월 7일 승지봉 등산로에서 몸길이 3~4.5mm 정도로 무당벌레류 중 가장 작은 종인 ‘꼬마남생이무당벌레’를 만났다. 머리는 작고 검정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 들과 야산의 잡초 지역에서 살며, 봄에서 가을까지 활동한다. 유충이나 성충 모두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짝짓기 모습을 보니 암수의 무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짝짓기〉

6.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Motschulsky, 1857

2006년 6월 22일 황성읍 읍하리에서 무당벌레중 유일한 해충인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를 만났다. 어릴 때 앙상한 감자 잎에 새빨갳게 붙어있던 이 벌레를 식구들이 잡던 기억이 새롭다. 몸길이 6.5~8mm로 검정 점무늬 28개가 특징이다. 연 3회 발생하는데, 각각 6~7월, 7월 하순~8월 상순, 9월에 나타난다. 성충으로서 월동한 성충은 이른 봄부터 활동하는데 5월에 밭으로 이동한다. 유충은 몸길이 약 9mm의 방추형이고 연한 노란색이며 14~21일 뒤에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는 7일이 지나면 우화하여 성충이 된다. 가지, 감자, 토마토 등 가짓과 식물을 재배하는 밭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러한 식물에 피해를 준다. 성충과 유충이 잎을 갉아먹어 그물 모양의 규칙적인 흔적이 남는다. 잎의 표피만 남아 흰색으로 보이며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구멍이 생긴다. 피해가 심하면 잎맥만 남는다. 드물게 가지 등 열매 표면을 갉아먹기도 한다. 역시 해충이라 방제를 위해 연구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성충〉

〈더듬이가 긴 무당벌레붙이과〉

우리나라에는 4종이 알려졌다. 무당벌레무리와 비슷하나 더듬이가 길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1. 무당벌레붙이-*Ancylopus pictus asiaticus* Strohecker, 1972



〈무당벌레붙이 성충〉

2008년 5월 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무당벌레처럼 보이지만 무당벌레가 아닌 몸길이 4~5mm 정도인 ‘무당벌레붙이’를 만났다. 몸이 납작하여 나무 틈이나 돌 틈 사이에서 지내기가 유리하다. 성충이나 유충 모두 버섯 종류와 곰팡이 종류를 먹으면서 서식한다. 평상시에는 죽은 나무 틈 사이, 나무껍질, 돌 틈 사이 등의 습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서 지낸다. 어른벌레로 한곳에 모여 겨울나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코끼리 벌레 바구미과〉

몸길이는 6~80mm로 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머리가 코끼리의 코처럼 앞으로 쭉 뻗어 주둥이를 이루기 때문에 영어로 'snout beetles'로 불리며 북한에서는 ‘코끼리벌레’라고 한다. 다른 적을 만났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죽은 체하는 의사행동(疑死行動)을 하는 종류가 많다.

1. 흰점박이꽃바구미-*Baris dispilota* Solsky, 1870



〈흰점박이꽃바구미 성충〉

2007년 7월 8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4~5mm 정도인 ‘흰점박이꽃바구미’를 만났다. 성충은 각종 꽃에 모여들어 꽃가루(화분)를 먹는다. 성충은 3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다. 유충은 대개 죽은 나뭇가지에서 살며 가끔 살아 있는 나무에도 기생한다.

2. 황초록바구미-*Chlorophanus grandis* Roelofs, 1873



〈황초록바구미 짝짓기〉



〈황초록바구미 성충〉

2007년 7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2-14mm정도인 연두색 곤충으로 몸 전체가 만지면 쉽게 벗겨지는 금록색의 비늘조각으로 덮여 있는 ‘황초록바구미’를 자주 만났다. 성충은 6~8월에 관찰되며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난다. 성충은 버드나무류나 참나무류의 잎을 먹는다.

3. 흑바구미-*Episomus turritus* Gyllenhal, 1833

2008년 6월 9일 횡성읍 승지봉을 오르던 중 콩무늬가 마치 칼로 자른 듯 뭉툭한 것이 인상적인 몸길이 13~15mm정도인 ‘흑바구미’를 만났다. 옷나무 잎에 붙어있는 흑바구미를 신나게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다. 나중에 보니 땅밑에 떨어져서 죽은척하고 있었다. 성충은 5월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으나 6월에 가장 많다. 칙 등의 여러 콩과식물의 잎을 갉아먹는다. 땅에 떨어지면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다. 유충은 땅 속에서 뿌리를 갉아먹고 자란다.



〈흑바구미 성충〉



〈의사행동하는 흑바구미〉

4. 길쭉바구미-*Lixus impressiventris* Roelofs, 1873

2007년 7월 2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약 12mm인 ‘길쭉바구미’를 만났다. 성충은 5~8월에 보이는데 낮에 풀잎에 잘 앉는다.



〈길쭉바구미 성충〉

5. 배자바구미-*Mesalcidodes trifidus* Pascoe, 1870



〈배자바구미 성충〉

2007년 7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7~10mm정도인 ‘배자바구미’를 만났다. 성충은 대부분 4~9월경에 출현한다. 바구미의 특징인 긴 주둥이로 먹이식물의 줄기 속을 파먹는다. 먹이식물은 칩이다.

〈잘 튀어 오르는 방아벌레과〉

몸길이는 10~30mm이나, 작은 것은 2mm정도인 반면 큰 것은 65mm 정도가 된다. 앞가슴과 가운데가슴의 근육을 당기면 이 돌기가 지렛대처럼 작용해 튀어오를 수 있게 해준다. 성충은 고목이나 잎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꽃에 모이는 종류도 있다. 이른 봄에는 과일나무나 키 작은 나무의 새싹을 갹아먹기도 한다. 유충은 가늘고 긴 원통 모양이며 몸은 비교적 튼튼하다. 유충은 썩은 나무속이나 흙 속에 사는 종류가 많으며 식물의 뿌리나 땅 표면의 풀, 씨앗 등을 먹는다. 한국에는 약 80종이 알려져 있다.

1. 대유동방아벌레-*Agrypnus argillaceus* Solsky, 1970

2007년 7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2~18mm정도인 '대유동방아벌레' 를 만났다. 거대한 배부분을 이용해 딱딱거리며 튀어 오르는 습성이 있어 '방아벌레' 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click beetle'이라 한다. 몸은 전체적으로 적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5~6월경 가장 많이 출현한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성충은 초본류의 잎을 갉아먹는다. 유충으로 월동한다.



〈대유동방아벌레 성충〉

2. 재털빛살방아벌레-*Melanotus annosus* Candéze, 1864



〈재털빛살방아벌레 성충〉

2008년 5월 1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2~15mm정도인 '재털빛살방아벌레' 를 만났다.

3. 왕빛살방아벌레-*Pectocera fortunei* Candéze, 1873

2008년 6월 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22~30mm정도로 방아벌레 중 가장 큰 종인 '왕빛살방아벌레' 를 만났다. 성충은 5~8월에 발견되며, 암컷은 죽은 소나무에 알을 낳는데 유충은 소나무 속의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함께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알에서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린다. 손으로 잡으면 앞가슴 등판을 방아 찧듯이 움직이는데 이는 위협에 처할 때 튀어 올라 달아나는 수단이다.



〈왕빛살방아벌레 성충〉

〈버섯이 주식인 버섯벌레과〉

우리나라에는 25종이 알려졌다. 모양, 크기 및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1. 고오람왕버섯벌레-*Episcapha gorhami* Lewis, 1879

2005년 6월 1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1~15mm 정도인 ‘고오람왕버섯벌레’를 만났다. 몸은 검은색 이나, 딱지날개의 기부(基部)와 중앙 아래쪽에는 복잡한 모양의 주황색 또는 주황색 무늬가 있다. 성충과 유충 모두 딱딱한 버섯을 먹는다.



〈고오람왕버섯벌레 성충〉

〈가늘고 긴 병대벌레과〉

성충의 몸길이는 1~15mm로 몸의 양 옆이 평행하다. 몸은 일반적으로 가늘고 길며 부드럽다. 암수의 형태적 차이는 없다. 꽃에서 발견되는 종은 대부분 갈색이나 노란색이다. 성충은 주간성이고 발광기관은 없으나 겹보기에 반디불이과와 비슷하게 생겼다. 성충의 주된 먹이는 즙액, 꽃가루, 다른 작은 곤충들로 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의 꽃이나 잎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유충은 대부분 육식성이며 몇몇 종만이 식물을 먹는다.

1. 회황색병대벌레-*Athemus vitellinus* Kiesenwetter, 1897



〈회황색병대벌레 성충〉

2005년 6월 1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9~11mm 정도이며 온몸이 회황색인 ‘회황색병대벌레’를 만났다. 암수 모두 앞다리와 가운데다리의 발톱에 흑 돌기가 있다. 성충은 5~6월에 평지의 강변 초원지대에서 볼 수 있다. 종령 유충으로 겨울을 나고 4월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5월 초순에 성충이 된다.

2. 서울병대벌레-*Cantharis soeulensis* Pic, 1922



〈서울병대벌레 성충〉

2005년 6월 1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13mm정도인 ‘서울병대벌레’를 만났다. 유충으로 겨울을 나며 평지, 풀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낮에 잘 날아다니며, 진딧물 등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큰 턱이 사슴불 같은 사슴벌레과〉

우리나라에는 17종이 알려졌다. 크기가 크며, 수컷의 경우 큰턱이 매우 발달한다. 대부분 참나무 숲에서 생활하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대부분 환경에 따라 몸집이 큰 개체와 작은 개체가 있어 크기의 변이가 다양하다. 큰턱은 크고 튼튼하며, 사슴뿔처럼 생겼다. 특히 수컷의 것이 발달되었고 종류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다. 큰턱은 수컷의 경우 다른 수컷과의 싸움용으로 또는 과시용으로 발달하였다. 암컷은 몸과 큰턱의 크기가 동종 수컷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성충은 나무의 수액을 주로 먹는다. 유충은 썩은 나무나 부식토 등 습한 장소에서 살며 살고 있는 집을 먹으면서 자란다. 유충 기간은 보통 1~3년이다. 유충 기간의 영양상태가 성충의 크기와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1. 사슴벌레-*Lucanus maculifemoratus dybowskyi* Parry, 1887



〈사슴벌레 성충 수컷과 암컷〉

2005년 7월 20일 갑천면 청소년수련원에서 몸길이가 수컷은 38mm, 암컷은 40mm정도인 ‘사슴벌레’를 만났다. 성충은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볼 수 있다. 주로 참나무가 많은 곳에서 생활한다. 성충은 나무의 수액을 주로 먹는다. 유충은 썩은 나무나 부식토 등 습한 장소에서 사는데. 유충 기간은 보통 1~3년이다. 뿔로 적을 공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슴벌레 성충 수컷〉

〈싸움을 잘하는 의병벌레과〉

싸움을 잘해서 옛날 외적을 물리치던 의병을 생각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8종이 보고되었다.

1. 띠꺾은뿔의병벌레- *Intybia niponicus* Lewis, 1895



〈띠꺾은뿔의병벌레 성충〉

2007년 7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3.5mm 정도인 ‘띠꺾은뿔의병벌레’를 만났다. 전체 몸 색이 검정색이고 딱지날개 중간에 굵고 빨간 띠가 있다. 유충은 육식성이다.

2. 노랑무늬의병벌레 - *Malachius prolongatus* Motschulsky, 1866

2008년 5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5.2~5.8mm 정도인 ‘노랑무늬의병벌레’를 만났다. 성충은 잡식성으로 꽃가루나 과즙도 먹지만 절지동물도 포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유충은 균류나 작은 절지동물의 알이나 유충을 포식한다. 싸움을 잘해서 그런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



〈노랑무늬의병벌레 성충〉

〈앞벌레붙이과〉

우리나라에는 4종이 알려졌다. 모양과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1. 큰남색앞벌레붙이 - *Cerogria janthinipennis* Fairmaire, 1886



〈큰남색앞벌레붙이 성충〉

2007년 7월 8일 몸길이 15mm정도인 ‘큰남색잎벌레붙이’ 를 만났다. 잎벌레류에 비해서 몸이 긴 편이며 머리와 가슴의 구분이 뚜렷하다. 어른벌레는 5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나타난다. 애벌레는 주로 밤나무의 잎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리생활을 한다.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한다.

〈잎에서 주로 보이는 잎벌레과〉

우리나라에는 372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타원형이며, 무늬나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일부만 등불에 찾아온다.

1. 발리잎벌레-*Altica caerulescens* Baly, 1874

2007년 8월 10일 몸길이 3~4mm이며 몸 색깔은 흑청색인 ‘발리잎벌레’ 를 만났다.



〈발리잎벌레 성충〉

2. 애둥글잎벌레-*Argopus balyi* Harold, 1878



〈애둥글잎벌레 성충〉

2006년 8월 2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4~5mm 정도로 몸이 적은 '애둥글잎벌레' 를 만났다. 전체적으로 몸이 작고 등글어 "애둥글잎벌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보통 평지와 야산의 풀밭에서 주로 서식하며 어른벌레는 5월부터 나타나 사위질빵, 으아리 등의 잎을 먹고 그곳에서 알을 낳는다.

3. 중국청남색잎벌레- *Chrysochus chinensis* Baly, 1766



〈중국청남색잎벌레 성충〉

2005년 5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9~13mm정도인 '중국청남색잎벌레' 를 만났다.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나 주로 6월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여러 종류의 넓은 잎을 가진 박주가리·쑥·고구마 등의 풀을 먹는다. 유충은 땅 속에서 생활한다.

4. 사시나무잎벌레-*Chrysomela populi* Linnaeus, 1758



〈사시나무잎벌레 성충〉

2008년 5월 2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12mm정도인 ‘사시나무잎벌레’를 만났다. 황철나무, 버드나무 따위의 해충이다. 연 2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낙엽이나 돌 밑 또는 땅 속에서 월동한다. 성충은 이른 봄부터 나타나 활동을 하는데 암컷은 숙주식물의 새로운 잎이 나올 새눈 주위의 가는 가지에 30~40개의 알을 무리를 이루어 낳는다. 유충은 몸길이가 약 15mm이고, 옅은 복숭아색으로 특히 등에는 2줄의 검은 점무늬가 있다. 유충 기간은 약 20일이며 8월경이면 다 자라서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는 잎 뒤에 매달려 붙어 있는데 건드리면 몸 옆면에서 젖빛의 액체 방어 물질을 분비하며 번데기로 지내는 기간은 3~5일이다.

5. 버들잎벌레-*Chrysomela vigintipunctata* Scopoli, 1763



〈버들잎벌레 성충〉

2005년 9월 6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7~9mm정도인 ‘버들잎벌레’를 만났다. 유충은 몸길이가 약 11mm로 머리는 검은색이고 몸의 바탕은 황록색이며 검은 점이 있다. 연 1회 발생하며 토양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월동 성충은 4월경에 나타나서 잎을 갉아 먹고 잎 뒷면에 무더기로 산란한다. 유충은 4월 하순~5월 하순에 잎을 갉아 먹다가 잎 뒷면에 꼬리를 붙이고 번데기가 된다.

6. 사각노랑테가시잎벌레-*Dactylispa subquadrata* Baly, 1874

2008년 6월 19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6~8mm정도인 ‘사각노랑테가시잎벌레’를 만났다. 딱지날개는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있다. 성충은 4~11월에 보이는데 주로 졸참나무 잎 뒤에 붙어 있다.



〈사각노랑테가시잎벌레 성충〉

7. 상아잎벌레-*Gallerucida bifasciata* Motschulsky, 1860



〈상아잎벌레 성충〉

2007년 4월 23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10mm 정도인 '상아잎벌레' 를 만났다. 몸빛은 광택 있는 검은빛인데 노란 상아 빛갈의 줄무늬가 3개 있어 보석처럼 아름답다. 성충은 4~11월에 걸쳐 나타나며 6월에 개체수가 가장 많아진다. 야산의 수목,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볼 수 있다. 성충과 유충 모두 호장근·까치수영·수영·소리쟁이 등의 잎을 먹는다. 암컷은 땅 속에 알을 낳고 유충은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기간은 약 7일이다. 우화한 성충은 겨울이 되면 땅 속이나 낙엽 밑으로 들어가 월동한다

8. 배노랑긴가슴잎벌레-*Lema concinnipennis* Baly, 1865



〈배노랑긴가슴잎벌레 성충〉

2007년 8월 1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5.0~6.5mm 정도인 ‘배노랑긴가슴잎벌레’를 만났다. 어른벌레로 겨울나기를 하며, 5~7월에 잎 뒷면에 산란한다. 애벌레는 집단으로 먹이를 먹으며, 상체를 흔들며 방어를 하는 습성이 있다. 연1회 발생하며, 어른벌레는 한여름 활동을 개시하고 가을철에 휴면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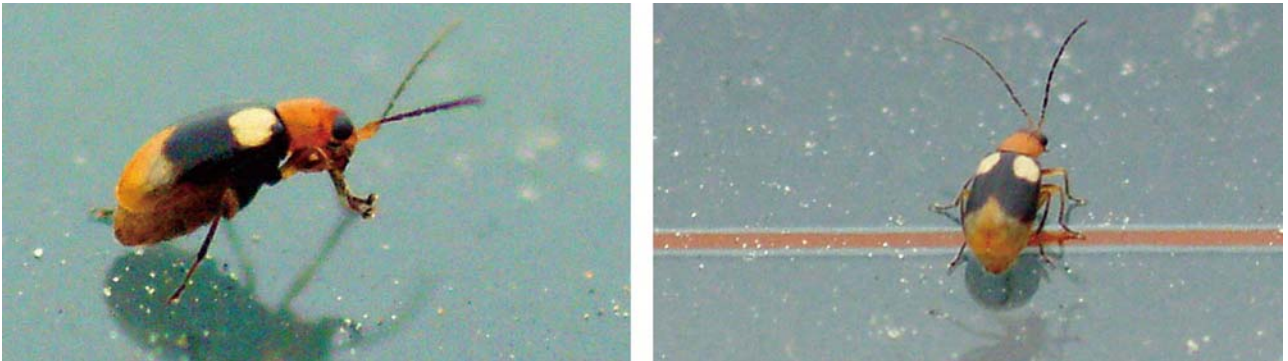
9. 고려긴가슴잎벌레-*Lilioceris ruficollis* Baly, 1865

2008년 6월 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5mm 정도인 ‘고려긴가슴잎벌레’를 만났다. 성충은 6~8월에 초원이나 산에 나타난다.



〈고려긴가슴잎벌레 성충〉

10. 크로바잎벌레 - *Monolepta quadriguttata* Motschulsky, 1860



〈크로바잎벌레 성충〉

2008년 6월 19일 섬강변에서 촬영을 마치고 강변에 세워 놓은 차에 와보니 뒷면유리에 처음 보는 벌레가 있었다. 날아갈까봐 마음조리며 촬영했다. 몸길이 3.6~4.0mm인 ‘크로바잎벌레’이다.

11. 어리발톱잎벌레 - *Monolepta shirozui* Kimoto, 1965



〈어리발톱잎벌레 성충〉

2007년 8월 1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3.0~4.0mm정도인 ‘어리발톱잎벌레’를 만났다. 다리와 몸 전체 색깔은 황갈색이다. 때죽나무를 기주식물로 삼는다.

12. 왕벼룩잎벌레 - *Ophrida spectabilis* Baly, 1862

2008년 6월 19일 승지봉 오르는 길에서 ‘왕벼룩잎벌레’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니 벌레가 없어서 ‘도망도 빨리 갔네!’라고 실망하며 일어서려다 땅위에 발짝 자빠져 다리를 으르고 죽은 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으로 잡았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5분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일어나 움직였다. ‘아, 이것이 의사행동(疑死行動)이구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벌레들의 행동이 신기했다. 몸길이 9~12mm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큰 잎벌레 중 하나이다. 몸은 적갈색으로 광택이 강하다. 성충은 한여름에 연 1회 출현하며, 활엽수림이 발달된 곳에서 서식한다. 유충은 자기의 똥을 몸에 발라 위장하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왕벼룩잎벌레 성충〉



〈의사행동〉



〈몸에 자기 똥을 발라 위장한 약충〉

13. 밤나무잎벌레-*Physosmaragdina nigrifrons* Hope, 1842



〈밤나무잎벌레 성충〉

2007년 7월 1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4.8~5.5mm정도인 ‘밤나무잎벌레’ 를 만났다. 성충의 몸체는 약간 길고 통통하며, 몸빛깔은 검은색이다. 유충은 먹이식물로 밤나무잎이나 청미래덩굴잎, 억새류의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삼림해충으로 분류된다.

〈무늬가 다양한 풍뎅이과〉

우리나라에는 35종이 알려졌다. 무늬 및 색상이 다양하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1. 주둥무늬차색풍뎅이-*Adoretus tenuimaculatus* Waterhouse, 1875

2007년 6월 2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9~12mm정도인 ‘주둥무늬차색풍뎅이’ 를 만났다. 어른벌레의 몸 빛깔은 갈색을 띤다. 앞날개의 흰색의 짧은 털로 된 점무늬가 있다. 유충은 흰색을 띤다. 어른벌레는 1년에 1회 출현한다. 성충은 겨울나기를 하고, 이듬해 5월경에 활동을 시작하여 식물의 잎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의 습성을 가지며 불빛에 잘 모인다. 흙속에 알을 낳으며, 애벌레는 부식질이나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먹이식물로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의 과일나무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이다.



〈주둥무늬차색풍뎅이 성충〉

2. 장수풍뎅이-*Trypoxylus dichotomus* Linnaeus, 1771



〈장수풍뎅이 성충 암컷〉

2007년 6월 24일 갑천면 황성댐에서 30~85mm정도인 ‘장수풍뎅이’ 를 만났다. 낙엽활엽수림에 서식한다. 애벌레는 낙엽이 두텁게 쌓인 곳에서 살며 야행성으로 밤에는 불빛에도 날아든다. 수컷을 만나지 못해 아쉽다.

3. 등얼룩풍뎅이-*Blitopertha orientalis* Waterhouse, 1875

2008년 6월 3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13mm정도인 ‘등얼룩풍뎅이’ 를 만났다. 등껍질 표면에 얼룩이 진 무늬가 있어 얼룩풍뎅이라고 부른다. 성충은 6~7월에 가장 많고, 9월까지 볼 수 있는데 주로 활엽수의 잎을 먹는다, 애벌레는 땅속에서 뿌리를 갉아먹어 농작물의 해충이기도 하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1~2년이 걸린다.



〈등얼룩풍뎅이 성충〉

4. 연노랑풍뎅이-*Blitopertha pallidipennis* Reitter, 1902



〈연노랑풍뎅이 성충〉

2007년 6월 2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1mm정도인 ‘연노랑풍뎅이’ 를 만났다. 활엽수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풍뎅이류 중 가장 흔한 종이다. 성충은 6월에서 8월에 걸쳐 활동한다. 여러 식물의 잎을 갉아먹으며 모와 모종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5. 사슴풍뎅이- *Dicronocephalus adamsi* Pascoe, 1863



〈사슴풍뎅이성충 1〉



〈사슴풍뎅이성충 2〉

2014년 5월 14일 황성읍 승지봉을 오르는 길에 몸길이 약 21~35mm정도인 ‘사슴풍뎅이’ 를 만났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나 앞가슴등판과 딱지날개(굳은날개)의 대부분이 회백색의 가루 물질로 덮였다. 수컷은 머리 앞쪽에 1쌍의 사슴뿔 모양의 돌기가 있고 그 끝은 강하게 위쪽으로 구부러졌다. 참나무같은 활엽수림에 모인다.

6. 녹색콩풍뎅이-*Popillia quadriguttata* Fabricius, 1787



〈녹색콩풍뎅이 성충〉

2007년 7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11mm정도인 '녹색콩풍뎅이' 를 만났다. 광택이 강하고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균일하게 녹색 내지 구릿빛 흑색인데 다리는 구릿빛 내지 보랏빛 흑색이고 딱지날개는 황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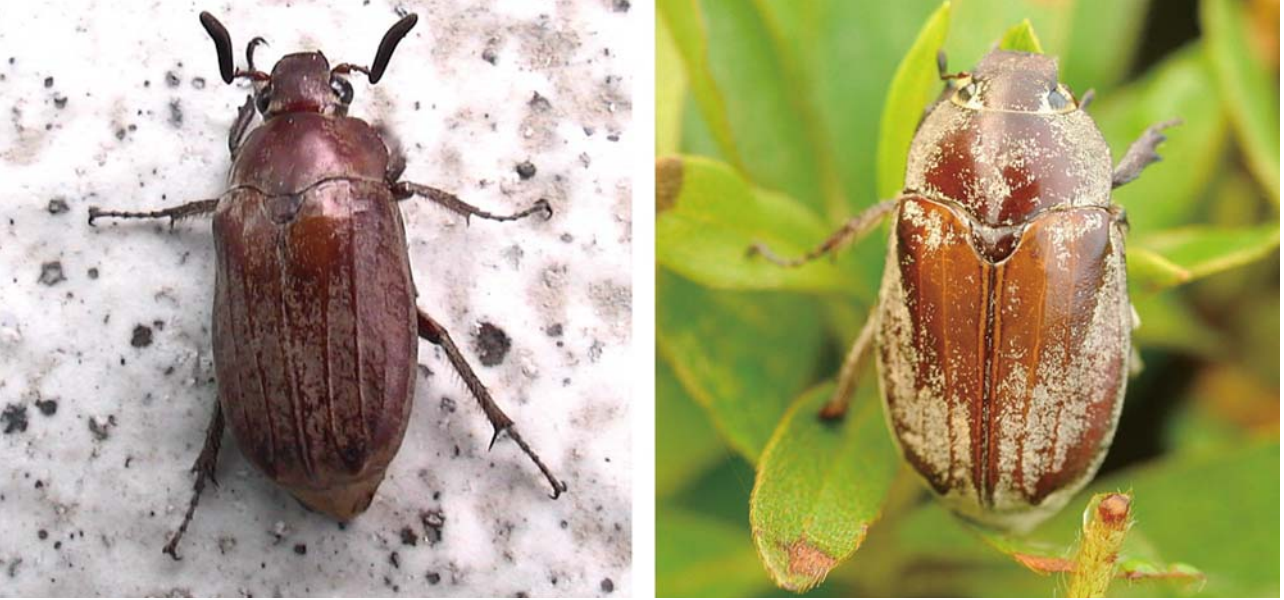
7. 점박이긴다리풍뎅이-*Scarabaeus aureola* Pallas, 1871



〈점박이긴다리풍뎅이 성충〉

2008년 5월 20일 몸길이 7~8mm정도인 '점박이긴다리풍뎅이' 를 만났다. 등쪽은 황록색 비늘로 덮였는데 가슴은 보다 청백색이 많고, 등판의 가운데는 흑갈색 비늘이 대략 4개 정도의 무늬를 형성하며, 딱지날개에는 흑갈색 비늘이 3열의 점무늬를 이루나 더러는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개체도 있다. 사과나무가 기주식물이다

8. 왕풍뎅이-*Scarabaeus aureola* Pallas, 1871



〈왕풍뎅이 성충〉

2007년 7월 26일 갑천면 횡성댐에서 ‘왕풍뎅이’ 를 만났다. 몸길이 30~40mm로 큰 편이다. 야산의 참나무류가 많은 지역에 서식하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 과수에 피해를 준다. 봄부터 여름까지 활동하며 한여름 밤이면 불빛에 날아든다. 성충은 참나무의 잎을 갉아먹는다. 2년에 1회 발생하고 땅 속에 알을 낳는다. 부화한 해에는 어린 유충으로, 그 다음해에는 성숙한 유충으로 월동한다. 유충은 몸빛깔이 유백색이고 머리가 갈색으로 굽뎅이처럼 몸이 구부러져 있다. 유충은 땅 속에서 살면서 사과나무 등 활엽수의 뿌리를 먹으므로 나무의 수세를 쇠퇴시키고 열매가 자라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9. 풍뎅이-*Mimela splendens* Gyllenhal, 1817



〈풍뎅이 성충 1〉



〈퐁뎡이 성충 2〉

2005년 7월 1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퐁뎡이’ 를 만났다. 몸빛깔은 짙은 초록색으로 금빛 광택이 난다. 몸빛깔에 개체변이가 심하여 붉은빛 또는 검은빛을 띤 자주색인 것도 있다.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하며, 땅 속에서 식물의 뿌리를 먹으면서 자란다. 번데기는 5월경에 이루어지며 30일 후 어른벌레가 되어 나온다. 야간에 불빛에 반응하여 날아드는 특성이 있고, 먹이식물로는 장미, 차나무, 감나무, 밤나무, 무궁화, 찔레나무, 해당화, 복사나무, 뱃나무, 참나무 등의 활엽수 잎을 먹는다.

10. 참콩퐁뎡이-*Popillia flavosellata* Fairemaire, 1886

2008년 8월 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8~13mm정도인 ‘참콩퐁뎡이’ 를 만났다.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빛에 가까운 남색을 띤다.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여러 가지 잎과 꽃잎을 먹으며, 그곳에서 짹짹 한다. 7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활동 한다. 대부분 산지에서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참나무, 황철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의 잎을 갹아먹는다.



〈참콩퐁뎡이 성충〉

11. 왜콩풍뎅이-*Popillia quadriguttata japonica* Newmann, 1838



〈왜콩풍뎅이 성충〉

2005년 5월 30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0mm정도인 ‘왜콩풍뎅이’ 를 만났다. 월동한 유충은 5월경부터 용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용화한다. 성충의 지상출현은 6월 상순~7월 상순으로 최성기는 6월 하순이다. 암컷은 흙 속으로 들어가 산란한다. 부화한 유충은 잔디 뿌리와 부식물을 먹고 성장한다. 유충으로 월동한 후 성장을 계속하여 3령을 지난다. 과수류 등의 활엽수 및 콩과식물이 주요 기주식물이다.

〈하늘소붙이과〉

우리나라에는 25종이 알려졌다. 무늬와 색상은 다양하나 대부분 앞가슴이 길다.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1. 노랑하늘소붙이

-*Xanthochroa luteipennis* Marseul, 1876

2006년 6월 28일 몸길이 9~12mm정도인 ‘노랑하늘소붙이’ 를 만났다. 성충은 침엽수의 썩은 나무줄기에 알을 낳는다. 유충은 썩은 나무속에 구멍을 파고 사는데 그 곳에 방을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노랑하늘소붙이 성충〉



2. 녹색하늘소붙이-*Chrysanthia integricollis* Heyden, 1886

2008년 5월 24일 몸길이 5~6mm정도인 ‘녹색하늘소붙이’ 를 만났다. 몸빛깔은 짙은 초록색이고 금속광택이 난다. 몸은 가늘며 작고 등쪽에 점무늬가 흩어져 있다.



〈녹색하늘소붙이 성충〉

〈더듬이가 특징인 하늘소과〉

한국에는 장수하늘소를 비롯하여 300종정도가 알려져 있다. 애벌레는 나무속에서 나무를 갉아먹 으면서 사는데, 천적으로는 딱따구리와 맵시벌 등이 있다. 몸길이는 2mm가 채 안 되는 것에서부터 15cm가 넘는 것까지 있다. 더듬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그 중 긴수염하늘소 수컷 더듬이는 13cm나 되며 대개 11~12마디로 된 실 모양이다. 나무굼벵이라 불리기도 하는 유충은 머리는 작고 가슴은 넓적하다. 유충의 몸은 흰색에 원통형으로 주둥이가 꽤 단단하여 나무속을 파먹어 들어가 목재에 해를 끼친다. 그러나 한약재로 쓰이는 것도 많다.

1. 남색초원하늘소-*Agapanthia pilicornis* Fabricius, 1787



〈남색초원하늘소 성충〉

2005년 6월 1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1~17mm정도인 '남색초원하늘소'를 만났다. 몸은 가늘고 원통형이다. 바탕색이 청록색인데 강하게 광택이 난다. 수컷의 더듬이는 몸길이의 1.5배에 이르며 제4마디까지 검은색 털 뭉치가 나 있어 특이하다. 5~7월에 산지의 풀밭에서 생활한다. 각종 꽃에 모이거나 국화 쭉 등의 줄기에서 관찰 된다. 흔하게 관찰되는 하늘소이다.

2.알락하늘소-*Anoplophora malasiaca* Thomson, 1865



〈알락하늘소 성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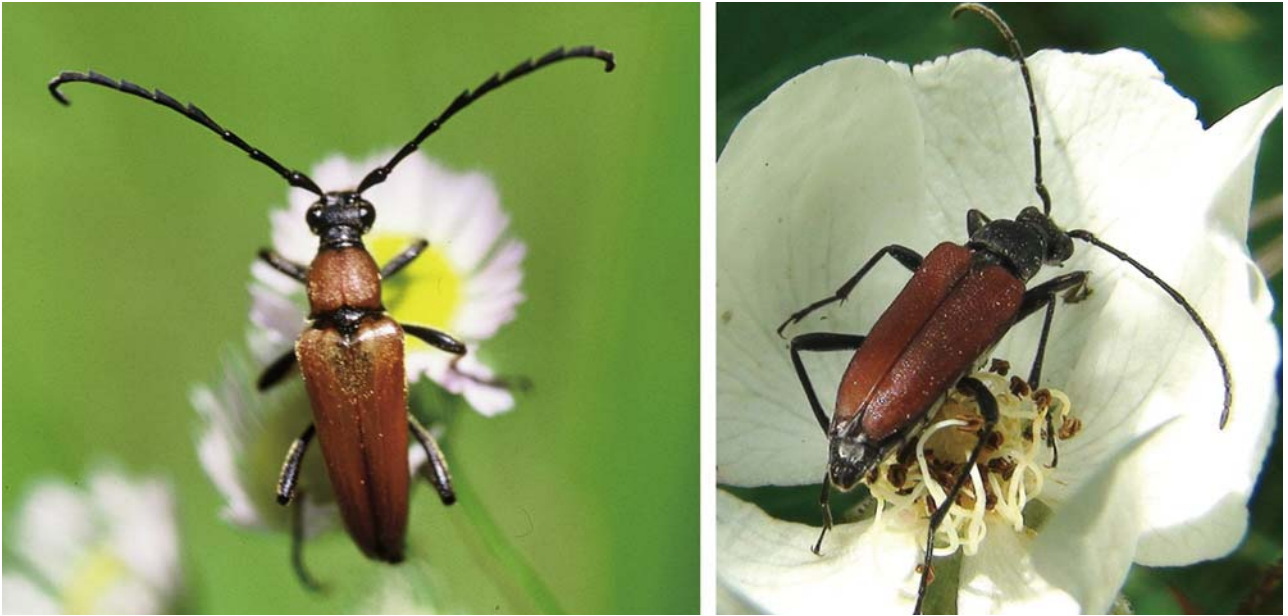


〈알락하늘소 성충 2〉

2016년 7월 1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가 30~35mm정도인 '알락하늘소'를 만났다. 더듬이는 몸보다 길은데 수컷의 경우 더듬이가 몸길이의 2배에 가깝다. 성충은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특히 초여름에 개체수가 가장 많다. 성충은 살아 있는 버드나무의 껍질을 먹으며, 대

개 낮에 활동하지만 불빛에 모여들기도 한다. 유충은 버드나무나 플라타너스 등에 기생한다. 성충이 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3. 붉은산꽃하늘소-*Corymbia rubra* Linnaeus, 1758



〈붉은산꽃하늘소 성충〉

2014년 5월 1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는 12~22mm정도인 ‘붉은산꽃하늘소’를 만났다. 성충은 7~9월에 출현하여 여러꽃에 모여 꽃가루나 꿀을 먹으며 꽃위에서 비행한다. 유충은 적송, 벌채목과 고사목에 기생한다.

4. 우리목하늘소-*Lamiomimus gottschei* Kolbe, 1886



〈우리목하늘소 성충〉

2004년 6월 우천초등학교에서 몸길이 22~42mm정도인 ‘우리목하늘소’를 만났다. ‘떡갈나무하늘

소'라고도 불리는 이 벌레는 '돌들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다. 옛날 어린이들이 이 벌레로 누가 더 큰 돌을 드는지 내기를 하며 놀았다는 기록을 보고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 돌들기를 해봤던 기억이 난다. 자기 몸무게 보다 몇 배 더 무거운 돌도 거뜬히 들었다. 몸은 짧고 굵으며 튼튼해 보인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몸은 작고 촉각(더듬이)은 길다. 몸빛깔은 흑갈색·황갈색이다. 참나무류의 벌채목에 모여는데, 성충은 6월에서 8월까지 볼 수 있다. 야행성이며 불빛에 모여들기도 한다. 성충은 참나무류의 나무껍질을 갉아먹으며 유충도 나무속에서 목질부를 먹고 산다. 유충이 성충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년이다.

5.꽃하늘소-*Leptura aethiops* Poda, 1761



(꽃하늘소 성충)

2009년 6월 1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2~17mm정도인 '꽃하늘소'를 만났다. 몸은 대체로 가늘고 긴 편이다. 온몸이 검은색이고 몸 전체에 윤기가 흐른다. 숲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으며 주로 5~8월에 활동한다. 성충은 꿀을 찾아 짙레꽃, 보리수나무, 나무딸기의 꽃에 모여든다.

6.긴알락꽃하늘소-*Leptura arcuata* Panzer, 1793

2008년 5월 2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하늘소 중에서 무늬가 제일 예쁜 '긴알락꽃하늘소'를 만났다. 몸길이 12~18mm이며 성충은 5~8월에 출현한다. 몸은 흑색이며, 머리와 가슴에는 황색 털이 뽁뽁하게 나있다.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흑색, 딱지날개에는 4줄의 황색 가로 띠무늬가 있는데, 어깨 쪽은 고리 모양이다. 성충은 8월까지 볼 수 있으나 5월에 가장 많고, 유충은 여러 종류의 말라 죽은 침엽수나 활엽수를 먹고 산다.



〈긴알락꽃하늘소 성충〉

7. 열두점박이꽃하늘소-*Leptura duodecimguttata* Fabricius, 1801

2007년 5월 25일 몸길이 11~15mm정도인 ‘열두점박이꽃하늘소’ 를 만났다. 성충의 몸빛깔은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며, 딱지날개의 위쪽으로 삼각형 형태를 한 노란점이 좌우대칭으로 12개 배열되어 있다. 국내에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는 일반적인 종이다. 여름철 숲속에 꽃이 무성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흰색의 꽃에 잘 모인다. 신나무꽃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암컷은 주로 벌채된 활엽수에 산란한다. 참나무류에서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하며, 정확한 먹이식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열두점박이꽃하늘소 성충〉

8. 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 Tian-Shansky



〈하늘소 성충 1〉

2013년 8월 5일 갑천면 황성담에서 몸길이 34~57mm정도인 ‘하늘소’를 만났다. 6~8월에 평지나 낮은 산에서 낮에 주로 활동하는 성충이 보이는데 몸집이 큰 편에 속하는 하늘소다. 온몸이 황갈색 잔털로 덮였으며, 잔털이 빠지면 흑갈색을 띤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더듬이가 훨씬 길다. 유충은 밤나무 속을 파먹고 자란다.



〈하늘소 성충 2〉

9. 털두꺼비하늘소-*Moechotypa diphysis* Pascoe, 1871

2008년 4월 1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몸길이 15~25mm정도인 ‘털두꺼비하늘소’를 만났다. 하늘소무리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종으로 표고버섯 재배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 방제를 위한 연구가 잘 되어있다. 몸길이 15~25mm이다. 머리와 더듬이는 검은색이며, 몸은 전체적으로 흑갈색 바탕이다. 몸의 형태는 통통한 타원형이다. 가슴과 딱지날개가 마치 두꺼비의 등과 같이 울퉁불퉁하

게 돌출되어 있어 털두꺼비하늘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성충은 1년에 1~2회 출현하며, 겨울나기는 유충이나 성충으로 한다. 성충은 수액이 나오는 나무나 침엽수의 진액 근처에 많이 모인다. 암컷은 고사목 또는 벌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에 알을 낳으며 유충은 수피 밑을 가해한다. 알려진 기주식물로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굴피나무 등이다.



〈털두꺼비하늘소 성충〉

10. 국화하늘소- *Phytoecia rufiventris* Gautier, 1870



〈국화하늘소 성충〉

2008년 5월 24일 몸길이 6~9mm정도인 ‘국화하늘소’ 를 만났다. 몸 빛깔은 검은 빛을 띤 푸른색이고 온몸에 작은 점무늬가 촘촘히 나 있다. 성충은 국화과 식물에 주로 모이며 유충도 국화과 식물에 기생한다. 민첩하게 날 수 있고, 암컷은 줄기에 고리 모양의 상처를 내어 그 속에 1개의 연노란 색 알을 낳는다. 유충은 줄기 속으로 파먹어 들어가면서 상처를 입히고 뿌리 근처까지 먹으며 8월에 줄기 속에서 번데기가 되고 9월에 성충이 된다. 국화는 위쪽에서부터 말라죽으며, 특히 대륜국화(大輪菊花)에서는 피해가 심각하다. 연 1회 발생하고, 9월에 성충이 되며 성충의 형태로 가해식물의 뿌리에서 월동한다.

13.삼하늘소-*Thyestilla gebleri* Faldermann, 1835

2007년 7월 3일 몸길이 11~15mm정도인 ‘삼하늘소’ 를 만났다. 등은 검고 잿빛 솜털이 있어 어두운 회색이다. 들이나 야산에 있는 삼의 잎과 줄기에 서식한다. 성충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숲속에서 삼에 날아와 잎 또는 눈을 갉아먹으며 유충은 삼의 줄기 속에 기생한다.



〈삼하늘소 성충〉

〈홍날개과〉

몸길이 4~20mm 로 납작하고 노랑색에서 검정색까지 다양한 색을 띄며 몸에는 많은 털이 있다. 국내에는 3속 8종이 기록되어 있다. 유충은 썩거나 잘려진 나무에서 주로 발견된다.

1.애홍날개-*Pseudopyrochroa rubricollis* Lewis, 1887

2008년 5월 15일 몸길이 7~9mm정도인 ‘애홍날개’ 를 만났다. 머리는 검은색이고 눈 사이는 넓으면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성충은 5~7월에 산지에서 볼 수 있다.



〈애홍날개 성충〉

〈홍반디과〉

몸이 부드럽고 체색이 화려하며 주로 열대지방에 있다. 성체는 식물의 즙액이나 다른 곤충을 먹으며, 식물 사이를 느릿느릿 날거나 꽃 위에서 기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렌지색과 검은색 또는 푸른색의 뚜렷한 체색으로 아마도 포식자들에게 자신이 시고 얼얼한 맛임을 경고하는 것 같다.

1. 주홍홍반디-*Dictyopterus aurora* Herbst, 1789



〈주홍홍반디 성충〉

2007년 8월 5일 몸길이 8~13mm정도의 '주홍홍반디' 를 만났다. 머리는 검은 색이고 가슴등판은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띤다. 성충은 한여름인 5~7월에 볼 수 있다. 다른 딱정벌레류와 달리 낮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애벌레는 교목류의 나뭇잎에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포식성이며, 어른벌레는 나무의 즙액 등을 빨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나가는 말

요즘은 벌레 사진을 촬영하려고 섬강산책로에 나가도 별로 벌레가 눈에 띄지 않는다. 눈이 나빠져서 일까? 아니면 환경 변화로 인해 벌레가 사라진 것일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마음이 착잡하다. 새로운 벌레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알았을 때의 기쁨 때문에 벌레사진을 찍었고 사진이 모이다 보니 분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관심을 갖다보니 이야기 거리가 생겨 황성문화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황성문화’에 투고한 것이다. 덕분에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어 기쁘고 즐거웠으나 새로운 의문도 많이 갖게 되었지만 풀길이 없어 답답하기도 했다. 벌레에 대한 연구도 해충 방제를 위한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든 벌레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원고를 내놓게 되어 부끄럽지만 이 글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역할을 다하는 벌레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강원의 자연(제6집-곤충편)’ 1997년 12월 30일
남상호 ‘한국의 곤충’ 교학사 2003년 9월 20일
조영권 ‘주머니속 곤충도감’ 황소걸음 2006년 8월 10일
손재천 ‘주머니속 애벌레 도감’ 황소걸음 2006년 9월 21일
안수정 ‘노린재 도감’ 자연과 생태 2010년 6월 5일
백문기 ‘한국 밤 곤충도감’ 자연과 생태 2016년 10월 31일
네이버 ‘두산백과’, ‘곤충나라 식물나라 카페’

향토사료 제32집

벌레이야기 -횡성 섬강변을 중심으로-

인 쇄 _ 2018년 8월 31일

발행일 _ 2018년 8월 31일

발행인 _ 박순업

편집자 _ 한상균

기 획 _ 민준식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

인쇄처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는 횡성군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